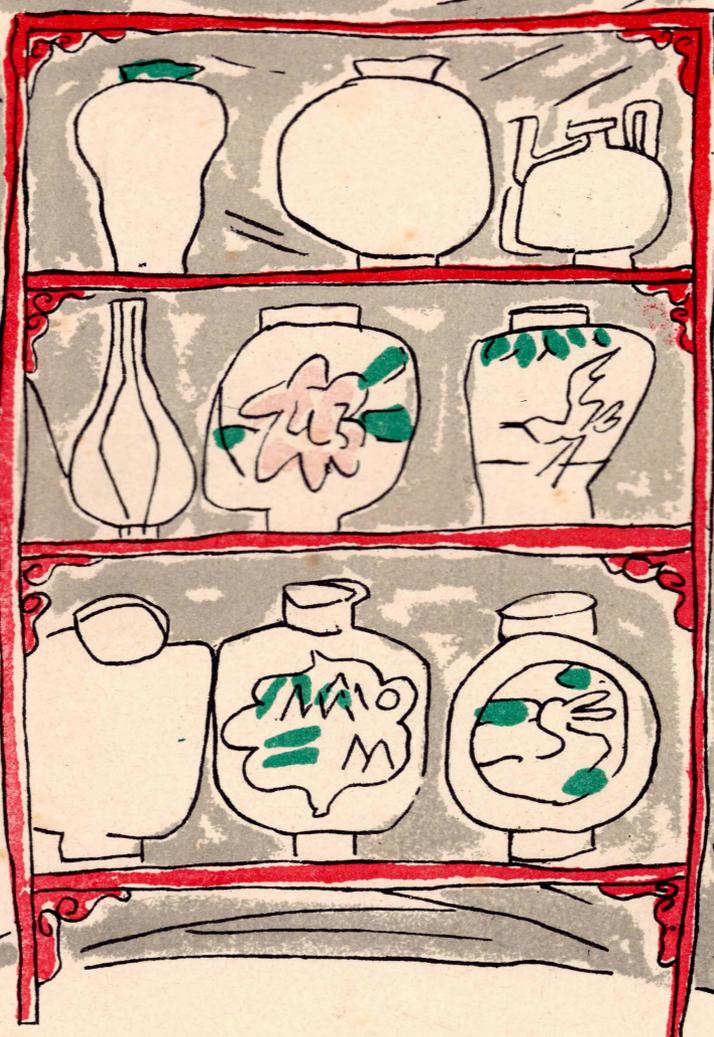


藝術院報

藝術



創刊第1號

빈 면

빈 면

빈 면



創刊第1號



빈 면

院報發刊에際하여

藝術院會長 高 義 東

藝術院의 創設됨이 우리 政府가 樹立된後에 다른機關에 比하여 가장 나중에 既往된바에 早晚의 差
 異가 있을까닭은 없다 먼저난 兄이나 나중난 아우나 잘만 차라면 다들 제일을 하기는 마치한가지 일것이다
 그리하나 이제에 있어서 보건대 이미 돌이 되었는데 손도 놀릴줄을 모르고 따루서지도 못하고 아무 機能을
 發揮하지 못한다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先天不足이 아닌가 의심이 되지 않을수없다 그리하다가 이제에 입을
 열어 무슨 意思表示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藝術院報라 하는 것이다。

院報가 創刊이 되니 그어찌 기쁘지 아니하랴 이제로부터 果然 무슨 所感을 表現하고 希望을 要求하며 成
 長의 길을 찾아 가고자하는 모든 動作을 하게 되 바이다

다시 도리켜 생각하건대 藝術院은 文學 美術 音樂 演藝의 四部門으로 組織이 되어있다 學術 美術 音樂
 等은 우리나라의 古代로부터 燦然한 發達로서 今일에 이르기까지 遺跡이 있는 것을보아 더 말할것이없다 演
 藝中 映畫라는 것은 西洋에 있어서도 六十年이 지나지못하는 歷史를 가진 藝術로서 워낙이 急速한 發展으로
 서 今일에 있어서 가장 優秀한 境地에 이르러있다 그리하니 映畫에는 더 말할것이 없고 演劇은 原本부터
 發展이 되지 못하였었다 音樂等에 對하여는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을 하고 精神을 가다듬을 必要가 있는 것
 을 깨닫지 아니하면 안될것이다。

三國時代의 遺物 金石의 製品이며 陶器의 形態이며 깨여진 기와장 조각까지라도 볼 때에 우리의 感懷와

情緒가 그어떠한가? 그리하게 盡善盡美하게 偉大하게 發達이되었던 時代는 더 말할것없이 그만두고 四百餘年前
쯤 되는때에 造成되었던 石物 우리가 날마다 보는 塔洞公園의 塔과 碑를 다지한면 不思議다 그의 意匠과
솜씨가 果然 이따한가 결단코 等閑한게 생각하고 報酬에만 팔리고 누구를 속이랴코만 생각을 하고 또 이만
하면 되었지 하는 그리한 卑劣한 精神이 없었는 것은 確實하게 보인다

文學에 있어서 漢文으로 말하드레도 崔孤雲같은 이며 우리의 글로서는 오늘날의 우리의 師表가되는 鄭松江이
며。

書에 이르러 今일에 우리가 볼수있는 것으로만도 安堅 金鳴國 謙齊 檀園等の 神韻이 躍動하는 筆致이며
音樂으로 玉寶高 百結先生 朴暎等の 通神한 거문고와 作曲等은 萬古에 일컫러지는 巨匠名家들이다 이것이 결
단코 한때에 우연히 지나간 자취가 아니다 專一한 精神과 不斷의 工力에서 나온 結精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
藝術院에있어서 院報創刊號를 내놓으며 우리 藝術人들의 精神을 發表하고 前進할길은 完하는데에 있어서
어찌 勇敢한 權力아래서 結晶된 魂膽이 없이 지낸다 하리오
우리 文化人 여러분은 藝術院의 會員이든지 아니든지 不問하고 健全하고 一致한 精神으로 文化人답고 藝術
人답게 지내기를 바라며 우리 現代를 생각하고 將來를 爲하야 우리의 藝術의 자취를 남기여 능키를 바라는
나이다。

院報創刊에 當하여 簡單한말로 우리의 無窮한 將來를 祝願하며 努力과 奔鬪을 바라고 서로서로 親睦하여
和氣에애한 가운데에서 잘 지내나아가기를 深甚하게 바라는바이다

藝術院報創刊號目次

題字……………孫在馨
 裝幀……………金煥基
 扉畫……………裴濂
 目次……………張遇聖

創刊辭……………高羲東(一)

開院式致辭……………李大統領閣下(三)

藝術院의 成立經緯……………裴吉基(五)

오늘의 文學藝術의 位置……………朴鍾和(一二)

韓國文學의 過去와 將來……………金東里(一五)

韓國美術의 過去와 將來……………張勃(二〇)

韓國樂壇의 過去와 將來……………玄濟明(二四)

아침……………李象範(二八)

復活……………柳致環(二九)

斗리……………崔貞熙(三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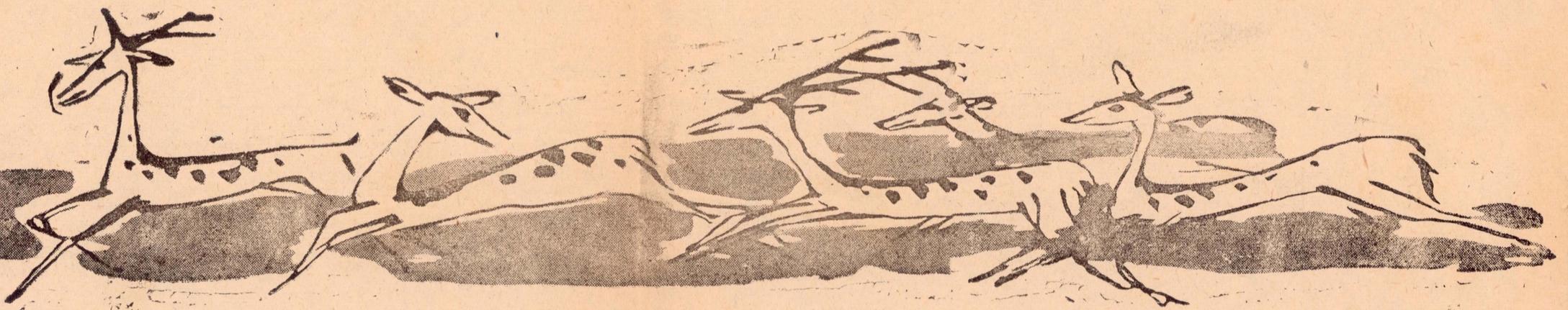
煖爐……………朴木月(四二)

藝術賞授賞規程……………(三三)

會議錄……………(三三)

戲曲 姊妹……………柳致真(四三)

會員住所錄……………(一〇八)



빈 면

리대통령 각하의 개인식 치사

오늘 학술원 급 예술원을 조직하여 개원하는 날에 당하여 내가 친히 참석하랴 했으나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참석치 못하나 학술원과 예술원에 대하여 진정한 축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동양에 처해서 사천여 년을 내려오는 문명국 민족으로 각방면으로 선진이 되어 예의문명국으로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지나간 사오십년 동안에 우리가 다 잘 못해서 나라를 이저 버리고 남의 앞제하에서 측수무책으로 날로 퇴보하여 진전할 길이 마켜 지내다가 지금에 와서는 다행히 반도 이남만이라도 자유건설에 기초를 세우고 남북 통일을 도모하고있는 중인데 우리사람들의 자태로 고유한 신발명의 기능과 지혜를 발전 지켜서 지나간 반백년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회복해야 될것이니 이런관계로 인연해서 학술원과 예술원의 기회에 책임이 더욱 중대함을 인식하여 발분명심하고 여력분의 능력과 노력을 다해서 절점 성공해서 나가면 민족에 대하여 막대한 공헌을 이룩할로 믿으며 여러분들이 무한노력해서 만무한 대성공을 이루기 바랍니다。

宣 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保障하고 科學者와 藝術家의 地位를 向上 시키기 爲하여 制定公布된 「文化保護法」에 依한 藝術院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正式으로 發足됨을 宣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創設되는 藝術院은 大韓民國의 憲法에 依해서 保障된 藝術의 自由를 守護發展시킬 義務와 法律에 依해서 明示된 國內外에 對한 藝術家의 代表機關이라는 名譽를 負荷한것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榮光스러운 義務와 名譽를 깊이 自覺하고 이를 爲하여 우리의 最善을 다할것을 嚴肅히 盟誓하는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古典的인 民族藝術의 傳統을 正確히 繼承하고 現代 世界藝術의 精粹를 正當히 吸收하여 우리의 民族藝術의 正統을 形成發展시키는것이 우리의 基本的인 路線이며 이를 爲해서는 藝術의 自律性이 嚴格히 保障되고 藝術家의 國家的인 處遇가 한層더 改善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이에 闡明하는바입니다。

우리는 偉대한 國家의 礎石은 偉대한 藝術의 創造에 있음을 깊이 認識하고 우리 民族의 不幸이 藝術로 因해서 除去되고 우리 民族의 幸福이 藝術로 因해서 造成될것을 믿으며 우리는 藝術을 通하여 靈魂과 理念과 榮光을 創造하는 偉대한 課業에 國內외의 모든 藝術家들과 協力共進할것을 이에 共約宣言 하는 바입니다。

續紀四千二百八十七年七月十七日

藝 術 院

藝術院의 成立 經緯

文敎部藝術課長 裴 吉 基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保障하고 科學者와 藝術家의 地位를 向上 시키므로써 民族文化의 創造發展에 功獻함을 目的으로하여 學術院과 藝術院을 둔다」라고 規程한 文化保護法은 檀紀四二八五年八月七日 法律第二四八號로써 公布되었다. 이는 世人이 周知하는 바와 같이 當時의 國會文敎分科委員會의 案으로써 上程되어 通過 公布된 것이다. 法令 公布後 文敎部에서는 비로소 學術院과 藝術院의 實現을 爲하여 開院準備를 始作하여 同年十月四日자로 學 藝術院 創設準備委員 十四人 (藝術院 七人)을 選定하여 委囑하였는데 名單은 다음과 같다.

葛以基(政府側) 金正植(國會 文委) 朴鍾和 玄濟明 徐恒錫 都相鳳 蔡東鮮氏等이다. (藝術院側)이 委員會는 文字 그대로 藝術院 創設準備委員會이므로 곧 母法인 文化保護法에 依據하여 文化人登錄令을 起草審議하는 것이 맨 처음 着手한 일이 었다. 勿論 그 일이란 各委員들이 會合하여 文敎部에서 起阜한 것을 組上에 놓고 疵議 檢討하는 것이다. 同委員會가 數次 會合하여 審議를 完了하고 公布한 法令이 卽 輿論이 沸騰하고 是非가 많았던 文化人登錄令인데 이는 四二八六年四月十大日字 大統領令 第七三號로써 公布되었다. 그런데 이 法令의 名稱 卽 文化人登錄令의 文化人 三字가 後日 禍根의 큰 原因이 되었으니, 그 것은 母法인 文化保護法의 文化 二字를 살리기爲하여 따와서 부쳤기 때문이다. 卽 文化人이란 말이 하두 漠然하기 때문에 끝끝내 말성이 되고야 만 것이다. 그것은 주로 言論 出版界에서의 非難이 있었다. 이 法令 公布와 登錄이 契機가 되어 當時 出版文化協會가 文總에서 脫退까지한 不祥事가 생겼던 것이다. 차라리 처음 부터 學者藝術家登錄令이라고 두면이 名稱을 부쳤던들 끝까지 말성꺼리가 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學藝術院會員選舉나 開院에 이르기까지의 言論界의 冷待는 반지 않았을 것이며 文敎部로서도 事務進行이 多少 容易하였을 것이다. 뒤에 言及하는 바와 같은 不當한 攻擊도 그렇게까지 甚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

우기 登錄手續이 複雜하였기 때문에 文總은 第七次 總會를 開催하고 當時의 文敎部 文化局長인 林命稷氏의 出席을 要請하여 手續의 簡易化를 論議한 結果 文敎部 文總 兩側는 完全한 合議를 보아서 文總은 積極的으로 呼應하여 協助한 것을 決議하였던 것이다. (參考로 그때 簡易化한 것은 卒業證明書와 身元證明書 添付를 省略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所謂 文化人登錄은 始作되고 活潑化되었던 것이다. 勿論 新聞은 通하여 數次 公告도 하였으며 登錄期間을 無制限으로 할 수 없으니 便宜上 磨勘期日도 定하였던 것이다. (이 登錄直前 筆者 就任) 그런데 藝術家의 登錄도 滿足할 程度는 아니었지만 特히 科學者들의 登錄이 消極的이고 成績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數次에 걸쳐 各大學에 督勵와 督促을 兼한 公文을 發送하였었다. 이때에 그前까지 藝術課에서 學藝術院事務를 處理어 말아보던 것을 科學者 登錄事務는 大學教育課에서 担當 分掌하기로 하여 分離하였다. 이 登錄接受事務는 뒤에도 言及하겠거니와 마지막의 資格無查를 할 때까지 繼續하였다.

一方 이와 併行하여 學藝術院會員選舉令을 起草하여 部內에서 討議를 거듭하였는데 筆者는 맨처음 小分科制를 擇하여 起草하였는데, 部內 會議에서 母法에 規程됨이 없으니 不當하다고 하여 分科를 나누지 말고 選舉토록 하자는, 即 學藝術院會員 五〇人 藝術院會員 二五人을 아무런 制限 없이 多數得票順으로 하자는 強力한 反對 意見에 逢着하였던 것이다. 勿論 法理論的으로 볼때 母法인 文化保護法에 分科制에 對한 何等의 規程이 없으니 分科制로 하지 않는 것이 一面 妥當한 見解인 것처럼 생각되나, 이는 法理論에 拘碍되어 너무나 實情을 無視한 見解이기 때문에 筆者는 積極 反對하며 分科制를 固執하였었다.

反對意見을 具體的으로 말하면 學藝術院例은 人文科學 自然科學의 區別없이 한 사람이 五〇人까지를 列記하고 藝術院例은 한 사람이 二五人까지를 列記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結果가 公平치 못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最初의 草案인 小分科制란 例을 들면 文學에 열사람이 아니고 細分하여 小說 〇人, 詩 〇人 評論 〇人 兒童文學 〇人 美術 〇人 東洋畫 〇人 洋畫 〇人式으로 처음부터 具體的인 數交를 實地에 있어서 斯界에서 마땅히 選出되어야 할 사람을 想定하면서 配定하는 것이었다. 即 初期期인만큼 四大分科에 均等的한 數를 配定할 것이 아니라 當時生存하 活動하고 있는 分으로서 萬若의境

選 官選을 한다면 被選되어야 할 사람의 數를 基礎로하여 定하였던 것이다. 勿論 이것은 그 配定의 法的根據를 反問해 올때는 對答할 道地가 없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 筆者가 憂慮한 것은 五〇人 或은 二五人을 한 사람이 써 넣기로 하면 專功人士가 적은 分野에서는 被選者가 나오기 어렵고, 反對로 專功人士 아닌 登錄者가 많은 分野에서 거의 다 차지 하기 쉽다는 點

있으며 特別 眞摯한 學者일수록 他分野의 事情에 어두운 것이며 自然科學者가 人文科學界나 人文科學者가 自然科學界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는 點이 있다. 이렇게 되면 功名心과 實名性이 많아서 많이 宣傳된 사람이 有利하다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數次の 會合에서 漸漸 筆者의 意見은 不利해 지고, 드디어 八月에 들어서는 還都 命令이 내려 中旬에 還都를 하였다.

그리고 四二八六年 九月十六日자로 藝術家資格審査委員 七八을 選定하여 委囑하였는데, 그名單은 다음과 같다. 朴鍾和 廉尙燮 (文學) 高義東 張勃(美術) 玄濟明 李珠煥(音樂) 柳致眞(演藝) 諸氏이다. 一面, 選舉會를 決定하기 爲하여 最終的으로 學, 藝術院 開院準備委員會를 召集하여 開催하였는데 그것이 四二八六年 九月二十一日이 었다. 多幸히 會合한 여러 委員들이 筆者의 分科制를 實情에 비추어 妥當한 것이라고 替同 支持하여 줌으로써 折衝案인 大分科制를 採擇하기로 되었다. 이때 나는 무슨 큰 勝利나 한 것처럼 지냈던 것이다. 卽(學術院은 姑捨하고) 第一類 文學 第二類 美術 第三類 音樂 第四類 演藝로 나누고 投票 時에 한 사람이 最高 二十四人까지를 記入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各類의 定員數는 그類에 屬하는 被選舉人에 對한 投票數에 比例하여 選舉委員會에서 配定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였던 結果 偶然히도 現實情에 비추어 理想에 가까운 配定(定員)數가 나타나는데 이에 關하여는 順序에 따라 言及하겠다.

一方 藝術家登錄資格審査委員會는 四二八六年 九月十八日 學術院側 卽 科學者登錄資格審査委員會와 같이 召集하여 合同會議을 열고 登錄資格審査에 關한 大體論을 討議하고 各各 委員長 副委員長을 選出하였는데 藝術院側委員長에 高義東 副委員長에 玄濟明氏가 選出되었다. 第二回會 同年九月二十五日 藝術院側單獨으로 召集하여 藝術家의 資格의 限界와 其他에 關하여 論議하고, 各分科別로 審査하여 全體會議에 附議하여 最終決定을 지우자고 決議하였다. (學術院側에서는 學者의 限界가 比較的 明確하기때문에 容易하였으나, 藝術院側은 是非가 많았었다.) 그러는 一方 登錄은 繼續하여 接受하였으며, 한 사람이라도 많이 登錄시키기 爲하여 努力하였다. 卽 四二八七年一月十九日 最終的으로 會合하여 合格者를 決定하기前까지 接受를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合格된 사람의 名簿 卽 文化人名簿가 法에 依하여 選舉人名簿를 代身하기 때문이다. 그後 四二八七年三月 九日 選舉委員 二十五人과 補助委員二十八人을 委囑하고 選舉準備를 進行하였다. 이 選舉委員 委囑에는 某團體의 建議書 처럼 文化界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大部分이 었다. 卽 主로 文敎部內의 局課長, 獎學官, 編修官 그리고 敎育界에서 몇사람을 選出 委囑하였

기 때문이다. 補助委員은 서울特別市 및 各道의 學務課長 文政課長 總學官으로써 補하였다. 여기에는 큰 理由가 있었으니 그것은 選舉의 嚴正을 期하기 爲하여 文化界의 著名한 人士를 投票場所에 내세워서 宣傳하는 것을 避하기 爲한 것이 主理由이었다. 이 일은 어디까지라도 잘 한 일이라고 筆者는 생각한다.

그리고 選舉期日을 三月二十五日로 定하고 四月十日 以前인 二月十五日에 公告하였으며, 投票所의 設場所를 選舉日 三十日以前에 二, 三回式 連이어 各新聞에 公告하였다. 選舉人名簿는 미이 印刷하여 希望하는 사람에게 配發하였으며, 文數部 告示板에, 二十日 以前에 公示하였다. 芸術家名簿와 같이 學術院 및 藝術院會員選舉令도 無制限 要請하는 사람에게 配付 또는 郵送하였다. 特히 選舉直前에 몇 新聞에 投票日 投票場所 登錄者의 名單等を 綜合하여 大的으로 公告한 것은 選舉가 臨迫하였으므로 다시 注意를 喚起시켜 有終의美를 거두기 爲한 努力의 表現이었다.

이리하여 丹기四二八年三月二十五日 歷史的인 投票가 全國 十四個 投票所에서 一齊히 始作되어 이날 無事히 끝을 마치고 各委員들은 着着 歸廳하였는데, 不幸히도 濟州道에 出張한 委員이 때마침 海上暴風으로 因하여 船便이 끊어져 四月一日에야 겨우 歸廳하게 되었음으로 四月三日 서울 淸津國民學校에서 開票를 始作하여 當日 夜半子正이 월신 넘어서 開票를 修了하고 當選者名單을 四月六日 發表하였다. 投票狀況을 參考로 들면 다음과 같다. 各類의 當選者 定員數 注意하시압.

投票狀況

類別	有權者數	投票者數	當選者
第一類	一〇四人	三〇四票	七人
第二類	一四九	三二五	七
第三類	九二	二八五	六
第四類	九七	二七五	五
計	四四三	一,一八九	二五

(註、分科別 配定數는 各類的 被選舉人에 對한 投票數의 比例에 依함) 名單은 省略함

第一口 當選者會議을 四月二十一日 서울大學校 齒科大學講堂에서 最年長者인 高義東氏 司會로 開催하고 第二回 當選者會議을 四月 十四日 같은 場所에서 開催하고 會長에 高義東氏 副會長에 朴鍾和氏를 選出하고 아울러 任命會員四人 推薦會員十人을 選出하였다. 任命會員은 大統領閣下의 裁可가 必要하므로 卽 大統領閣下의 任命이므로 四二八年五月二十一日字로 裁可를 提請하여 同年六月十九日字로 任命辭令이 내렸다.

神紀四二八年七月十七日 下午二時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講堂에서 歷史的인 學術院 藝術院 共同의 開院式을 舉行하고 兩院의 發足を 널리 内外에 宣布하였다.

持히 行가지 附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卽 藝術院會員 當選者會議가. 連續 開催될 때 부터 이 選舉에 關하여 是非가 紛紛하고 輿論이 沸騰하였는데, 中 特히 某團體에서는 「藝術院會員選舉에 關한 建議書」라는 것을 作成하여 政府 各界를 비웃하여 各 言論機關에 發送하여 마치 藝術院會員選舉가 違法 不當한 것이라는 그릇된 認識과 印線을 주려고 하였으므로, 選舉委員會에서는 곧 이에 對한 解明書를 作成하였으나, 問題視하지 않고 默過하는 것이 점잖는 것이라 하여 참아오다가 不得已 이를 發表하지 않으면 아니 될 境遇에 이르러 極히 一部 要路에만 發表한 일이 있고 아직 一般文化界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參考로 그 解明書 全文을 引用하여 끝을 맺으려고 한다.

藝術院會員選舉에 關한 建議書에 對한 解明

學術院 藝術院 選舉委員會

藝術院會員選舉에 關한 建議書는 그 內容의 全體가 法令의 一方的인 解釋과 歪曲으로서 一貫되어 있으므로 그 不當性을 指摘하여 解明하려고 하였으나 問題視 하지 않고 默適함이 중을 것 같아서 沈默을 지켜왔으나 아즉도 一部에서 歪曲 宣傳하여 物議를 자아내는 傾向이 있으므로 이를 解明하는 바이다.

1. 文化人登錄手續簡次의 複雜함을 簡易化하여 달라는 文化界의 要請에 依하여 行政措置로서 이를 簡易化한 것은 違法이 아니다.

이것을 歡迎하고 登錄한 사람들이 이제와서 略式方法云云 함은 그 理由를 모르겠다.

2、文化入登錄期日이 지난다음 所謂 非公式 交涉으로 登錄을 接受하였다고하나 登錄에는 一定한 期間이 없다. 期日을 數三次 定한것은 登錄을 促求하기爲한 主務當局의 事務的措置였으며 으키려 期間後에도 公文等으로 登錄을 促求督勵 하였다. 選舉令이 今年一月二十三日字로 公布되어 三月二十五日 選舉를 實施하였으므로 選舉人名簿作成時까지 接受 하였다.

3、法에規定되어 있지 안드래도 藝術家登錄資格審査委員의 任命은 應當 發表하여야 할것임에도 不拘하고 이를 發表하지 않았으며 또 同審査委員會의 會台이 非合法的이 었다고하나 同審査委員會의 委員任命은 當時 各新聞紙上에 發表되었으며 또 合法的으로 會合하여 委員長 副委員長까지 選出하여 審査事務를 進行完了 하였다.

4、文化人選舉令(學藝術院會員選舉令)이 三月一日字 文總會報에만 全文이 發表 되었다고 하나 同選舉令은 官報 續紀四二八七年一月二十三日字 第一〇四九號에 全文이 發表되었으며 印刷한 冊子(選舉令)를 選舉人및 其他 希望 하는 人士에게 配付 또는 發送 하였다.

5、選舉四十日前에 選舉日字가 公布되지 않고 二十日前에 選舉人名簿가 公示되지 않았다고 하나 法令의 規定대로 選舉日 四十日以前인 即 二月十四日字 東亞日報 京鄉新聞 中央日報 二月十五日字 東亞日報 京鄉新聞 中央日報等に 發表되었으며 投票所公示 亦是 三十日 以前인 即 二月二十五日字 聯合新聞 二月二十六日字 聯合新聞 東亞日報等に 發表되었으며(外에도 있으나 保管 中인 資料에 依함) 選舉人名簿도 二十日以前인 三月五日에 文敎部 告示板에 公示하였다. 그리고 選舉日 五日前에 서울신문과 東亞日報에 選舉日字 投票場所 選舉人名簿를 綜合하여 廣告案內한것은 選舉令에는 規定이되어 있지않으나 選舉가 臨迫하였으므로 다지한번 注意를 喚起하기 爲하여 親切을 다 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選舉人名簿를 選舉令과 같이 全選舉人에게 配付하였다.

6、文敎部次官이 委員長署理도 아니면서 副委員長으로서 委員長行勢를 하였다고 非難하나 委員長이 闕席中이므로 不得已 副委員長이 委員長의 闕席을 告하고 代理한 것이다. 選舉令 第十一條 一項에「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 有故時는 代理한다」고 明白히 規定 되어 있다.

7、選舉委員二十人 補佐委員三十人을 文化界는 勿論 選舉人조차 알바 없었다고 하나 이것은 所謂 著명한 文化人中에서 選出 任命하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으키려 文敎部の 方針이었다. 理由는 文化人이 選舉委員으로서 投票場所에 나서

서 監視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宣傳하는 結果를 招來할 卽 選舉의 公正性을 잃을 憂慮가 있기 때문에 文敎部內의 局 課長 獎學官 및 編修官 外에 一部 校長 其他 教育關係者中에서 選舉委員會를 任命하고 各道의 文敎社會局內의 課長 獎學官을 補助委員으로 任命하였던 것이다.

8, 封鎖封印 되지 않은 卽 開封된 재료의 投票函 云云하나 이것은 이미 解明한바와 같이 人文科學 自然科學 藝術의 三部 門中 어느 하나 或은 두 部門의 選舉人이 全然없는 投票所에도 投票函을 全部 設置하였으므로 投票가 全然 없는 空函이 十 이것은 該當 選舉人이 全然 없는 地方(投票所)에도 選舉當日 旅行 出張 其他의 事情으로 他地方의 選舉人이 到來할까 하여 一個있었다. 豫備적으로 設置하였던 것이다(選舉區 全國一圓을 參照)

9, 當選票數 計算에 對하여서는 選舉令 第二十八條와 第二十九條를 混同하고 있는 모양인데 第二十八條는 「그所屬名類의 定員은 그類에 屬하는 被選舉人에 對한 投票數에 比例하여」라고 規定 되어 있으므로 投票數를 集計할 것이고 第二十九條 第一項 但書는 「그類의 投票數를 그類의 定員數로 除하여」라고 明白히 第二十八條와 다르게 規定되어 있다. 이를 各類에一投票者가 最高六人까지 記入할수 있으나 一人을 記入하든 最高六人까지를 記入하는 自然人 一人으로 看做하는 同選舉令의 起草精神에서 卽 더 이미判異한 것이다.

10, 任命會員 및 推薦會員은 文化保護法 第十八條와 附則의 明白한 規定에 依하여 當選會員 自身들이 選舉 또는 推薦하였다.

11, 登錄令 第十二條三項은 登錄取消에 關한 것이지 藝術院 會員에 關한 것은 아니다 會員에 關한 것은 藝術院 自體가 決定할

12, 相當한 地位의 藝術家들이 未登錄인 事實을 無視하고 文化界에 全然알리지 않는 者에게 選舉權이 付與되었다고 하나問題이다.

政府가 法令을 公布하고 登錄을 促求 勸告 督勵할때 非協力 또는 拒否하던사람들을 登錄시킬수는 없었다. 그리고 文化界에 全然 알려지지 않은者 云云하나 藝術家의 限界를 運動競技 選手的 記錄처럼 正確히 判定할수는 없으므로 提出된 書類에 依하여 審査 13, 藝術院會員中에는 過去民族의 受難期에 있어서 民族精神이나 民族의 志操를 뚜렷이 犯한者가 있다고 하나 이는 本末을 顛倒한 말이다. 왜냐하면 藝術院 會員은 文化人 自身들이 選出한 사람 들이며 또한 學皆 文總傘下 各國體의 重要幹部 乃至 重 顯들이니 이는 오히려 文總自體의 問題일 것이며 自家撞着이 아닐수 없다.

14, 今般選舉는 秘密 無記名 投票가 어디 까지나 嚴格히 그리고 完全히 實施되었음을 附言한다.

오늘의文學藝術의位置

朴 鍾 和

(1)

文學는 文學自體의 本然의 姿態를 闡明하기爲하여 人生과 文學과의關係를 思索하고 探求하고 研究하고 整理하고 敷演하는 學問
이요, 文學藝術은 科學는 基礎와 土壤로하여 自我를 育成 生長시키는同時에 人生과 學問을 經과 緯로써 交錯構成하면서 잃어버
렸던 우리의 眞理를 藝術위에 再表現하여 文學藝術家 自來의 獨特한 個性으로서 人類는 世界를 歷史를 眞의世界 美의世界, 善
의世界로 이끌고 나아가려는 文學藝術의 모든行動, 곧 다시말하면 文學藝術의 製作過程을 終了한 結晶的 表現을 藝術의價値로써
判斷하여 藝術的 或은 非藝術的, 또는 藝術家, 非藝術家로 區分할수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써 文學은 다만學이될뿐, 行動性을 띠운 文政은 될수없고, 文學藝術, 또한 藝術製作過程以外的 모든行動은 文學藝術의 行
動으로서 許與할수없는 것이다.

이것은 唯獨 文學과 文藝에서만 그런것이 아니라 美學과 美術, 音樂學과 音樂 모든藝術分野에 있어서도 다같은 共通性을 띤
問題다.

여기 가령 繪畫家가 한사람 있다고하자 自己의 天職인 繪畫를 研究, 製作하는 過程의 行動을 떠나서 街頭에서 或은 會堂에서
자기의政見을 發表하거나 政策을 論述할境遇에 이것을 바로 곧 藝術의製作過程하는 作品行動이라고 볼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藝術家나 學者가 政策을 論議할수없다거나 政見을 發表할수없다는것은 決코 아니다. 얼마 지 自由스럽게 發言하고 行動할수있는 것이지만은 이 行動과 이 言論은 곧 藝術하는 行動이라 말할수없다. 그것이 아무리 美術에 가까운 政見과 政策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作品行動 以外的것인것이다.

(11)

解放後 우리文學과 文學藝術은 十年동안 空白의世代를 가져왔다. 乙酉에서부터 今年이 乙未가되니 हत수로 꼭 十年이 되었다. 或은 그렇지 않다고 空白이 아니라고 反問할 사람이 있을지도모 모르지만 三千里疆土에 半동장이나마 우리의 大韓民國을 세우기 爲하여 우리는 學問을 떠나서 政治와 同伴하는 行動을 하는 동안 眞摯한 學問의 研究를 게을리했고 우리는 民國政府의 樹立을 協助하기에 바쁘나머지 刻苦의 文學藝術的 放光을 形成하도록 鍊磨할 시간을 갖지 못하였던 것이다. 母論 國難이오면 農夫도 傭이로서 槍을 대신하여 잡고 일어서는 것이요, 僧侶도 덕장삼을 벗어 던지고 활과 칼을 잡는 것이다. 學者나 藝術家라 해서 晏然히 象牙塔속에서 作品製作에만 熱倒한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우리文學藝術人들은 解放直後 송두리채 共產主義의 陣營으로 넘어가려는 文化全般을 죽임으로써 對抗하면서 民族藝術을 擁護해 놓으려는데 努力하였고 더욱이 六、二五의 敵의 南侵과 一、四後退의 分散流離속에서도 大邱와 釜山으로 漂泊하면서 제각금 軍과 政府와 協調하면서 公的 私的으로 藝術行動을 展開하려는데 努力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모든 지나간일을 가만히 돌이켜볼때 우리는 이것으로써 결코 滿足한 수는 없다.

혹은 從軍作然가 되어 雪山氷巷에서 一線으로 士兵과 같이 馳驅하면서 作品을 構想해서 發表하였고, 或은 從軍畫가가 되어 砲彈을 무릅쓰며 「스켈퀴」를 하여 後方과 前方의 思想의統一을 造成하는데 努力하였고, 演劇, 音樂으로 團體를 만들어서 一線將兵을 鼓舞하는데 커다란 效果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이것은 學問과 藝術이 또는 學者와 藝術家가 國難에 끼이는 態度이지 純粹한 藝術의 立場에서 볼때는 乙酉解放에서부터 이제까지의 우리의 취해진 行動은 無可奈何의 國難에 이바지된 行動이요 學問 또는 藝術史上으로 본다면 空白의 面을 차지한 十年이 되는 것뿐인 것이다.

(11)

우리 저택의 全體의 大願인 國土統一의 大事業과 民主 自由世界로의 完成은 아직도 우리國民 單獨의 힘만으로는 達成할 수 없는 段階에까지 이르렀다. 모든 것이 國際情勢 全般의 動向과 함께 漸進的으로 邪必歸正의 길을 取하게 되고 있다.

우리 겨레가 일찌기 當했던 六、二五와 一、四後退의 慘酷한代價가 이렇게 험잡인 微溫的인 結果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은 우리 겨레가 다 함께 땅을 쳐서 痛嘆해도 시원치 않은 노릇이다. 學者와 藝術家라 하여 이 鬱憤과 맺저린 恨이 없으랴마는 단지 팔독을 건어붙이는 悲憤慷慨로 單은 解消가 될일이 아니다.

우리들은 또다시 國難이 온다면 快하게 奮는 던지고 일어 나야만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少康의 狀態에서는 우리들은 한시바때 지나간 空白의 十年時代를 되풀이 하는 것을 되도록 免하는데 努力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말하자면 한시바때 文學과 藝術의 本道를 찾아서 지나간 不幸했던 空白의 「페이지」를 메우는 倍加的 힘을 쓰지 아니하면 아니될 段階에 이르렀다.

이 努力이야말로 結局에가서는 大韓民國의 文化的 價値를 높여서 自由陣營의 모든人類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게하는 일이다. 共產主義의 機械的으로 強壓的으로 命令的으로 움직이는 모든 文化政策에 對決해서 自由大韓의 學問과 藝術이 이렇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世界에 立證시킬수있는 絶好의 機會인 것이다.

우리는 學識의 研究보다도 말로만 떠돌고 학풍을 보는 學者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作品을 製作하는 創作的 熱意보다도 事業을 推進하려는 藝術家가 뒤어서는 아니된다. 事業이 決코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事業家の 任務요 藝術家の 任務는 아니다 事務와 事業으로써 「마이나쓰」된 十年藝術의 空白를 메꿀수는 없는 것이다.

(四)

周圍의 모든環境이 아직도 安定된 生活을 할수없는것이 오늘날 우리의 現象이다.

이것은 社會全般의 現狀인 것이다. 우리에게 모든條件이 惡條件이다 江山은 焦土는, 復興은 遼遠하고, 經濟는 自立되지 못했고, 이럼으로써 사람의 마음은 浮動하고 荒廢하고 가나하고 피로우니 和氣는 하나도없고, 남은것은 殺伐하고 刻薄하고 殘酷한 風潮 밖에 남지않았다.

여기다가 富裕한 남의나라의 奢侈하고 華麗한 風俗는 우리에게 다닥저서는 虛華가 되고 虛慾이 되고 虛火가 된다.

虛華 虛慾 虛火는 사람과 社會와 國家를 망치고야 마는 것이다 學着나 藝術家나 詩人이 여기 휩쓸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의 學과 藝術로써 自身을 修鍊하여 脫皮해가면서 모든民衆을 이끌어 나아갈 커다란 天職에 自負함이 많아야 할 것이다.

韓國文學의 過去와 將來

金 東 里

韓國文學의 近代의 建設의 始初는 崔南善의 主宰한 少年의 發刊부터다. 「少年」誌의 創刊은 隆熙二年(西紀一九〇八)으로 볼때 距今 四十八年前이다. 勿論 이보다 먼저 新文學의 胎動은 이미 李海朝 李人植 等の 新小説 時代에까지 溯及 되었지만 그것이 尙 意識的인 運動으로 具現된 것은 亦是 崔南善이 發刊한 「少年」 「青春」 등으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崔南善은 이 「少年」 「青春」誌를 通하여 愛國心을 鼓吹하고 民族意識을 強調하는 많은 文章을 發表하였다. 지금 말도 하면 「옛세이」에 屬한 性質의 文章을인대, 過去의 漢文體 또는 古體式 文章에서 脫離하여 近代體 國語式 文章에 接近 되어 있었다.

같은 民族主義者로서 어느덧 崔南善을 도와 나타난 사람이 李光洙다. 愛國心の 鼓吹와 民族意識의 強調에 있어 두사람의 理念은 共通되어 있었으나 文學的인 性格과 方向에 있어서는 같지 않았다. 그것은 뒤에 그들이 成就한바 한사람(崔南善)이 學者史學로 나가고, 한사람(李光洙)이 作家(小説)로 나가게 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뒤 李光洙는 「無情」 「開拓者」 「再生」 「忠」 「有情」 「愛慾의彼岸」 「그의自叙傳」 「사랑」 等の 現代小説과 「麻衣太子」 「李舜臣」 「端宗哀史」 「世祖大王」 「異次頓의死」 「元曉大師」 等 韓國史料에 取材한 歷史小説을 썼다. 그의 流暢優麗한 文章과, 文學的 「분류」과, 透徹한 理想主義는 그의文學(小説)의 共通的 缺點인 構成上의 破綻과, 主題의 通俗性과, 性格(人物) 創造의 抽象性(觀念的)에도 不拘이고, 그로 하여금 다만 新文學의 開拓者에 머물게 하지 않고 韓國一流의 作家의 地位를 確保하게 한 것이다. 「少年」보다 十年 뒤(「青春」보다는 五年뒤)인 一九一九년에 金東仁 朱耀翰 田榮澤等을 同人으로한 「創造」誌가 發刊되었다.

「創造」誌가 「少年」「青春」 등과 다른點은 그 純文學의 性格에 있었다. 「少年」과 「青春」도, 一種의 文學誌로 볼수는 있었으나 時代가 時代이니만치, 啓蒙主義乃至 民族主義 運動의 機關誌같은 性格을 띄고 있었음에 對하여 「創造」誌는 좀더 近代自然主義文學에 接近된 純文學의 性格을 띄었던 것이다. 作品의 水準問題는 別個로 하더라도, 이點에 있어, 「創造」誌의 文學史的 意義는 貴重한 것이라 하겠다.

金東仁은 그뒤 「감자」「笞刑」「발가락이 담았다」「金研實傳」等 自然主義系의 短篇小說과 「狂畫師」「狂炎쓰나타」等 耽美主義系의 短篇小說과 그 밖에 「雲峴宮의 봄」「首陽大君」等の 歷史小說을 썼다. 그의 簡潔하고 直線的인 文章은 短篇小說에 適應되어서 上記하마와 같은 瀟灑한 作品(短篇)을 產出할수 있었으나 長篇에서는 所期한 目的이 達成되지 못한편이다.

「創造」가 發刊 되던 다음해인 一九二〇年인 金億 吳相淳 卞榮魯 南宮璧 黃錫禹 廉尙燮 等を 同人으로한 「廢墟」誌가 發刊되었다. 「廢墟」派의 文學的 性格은 「創造」派보다도 또 다시 한걸음더 「純文學」으로 나아간 것이다. 世俗「廢墟派」라 하면 그 題目대로 「廢墟派」 곧 「頽廢派」라는 解釋을 나리는 것이 보통이지마는 그들의 「廢墟」의 意識을 西歐人의 世紀末의 「미카당스」와 混沌하는 것은 잘못이다. 「廢墟派」의 「廢墟」의 意識은 頽廢主義보다도 浪漫主義的인 것이 本質이다. 浪漫主義의 「耽溺」的 要素를 그들 (「廢墟派」自身이나 그뒤의 批評家들이 頽廢主義로 錯覺했던 것이다. 이것은 頽廢主義로 自處했던 黃錫禹가 自己의 頽廢主義의 本質을 說明한 文章 가운데서 「知的 搖擻期 前後에 在한 青年의 心理는 一種의 無政府的 世紀末的 頽敗狀態를 무한다. 그特質로서는 物에 능기 쉽고 또한 까닭없이 서글프며 따라서 눈물에 弱해진다. 그리고 何等 根底없는 自慢心이 높아서 학부로 權威者에게 反抗하고 싶게된다」한것을 보면 더욱 瞭然해진다. 「青年」時期의 「物에 능기 쉽고」「까닭없이 서글프고」「눈물에 弱하고」「何等 根底없는 自慢心이 높고」——이것은 世紀末的 頽廢主義가 아닌 浪漫主義的 氣質을 說明하는비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해서 이것을 十九世紀 前半期의 西歐人의 그것 (浪漫主義)과 混沌해서도 안된다. 浪漫主義 固有의 「感傷」的 「耽溺」的 要素와 이들(廢墟派)의 感傷의 耽溺의 悲嘆的 痛哭的 要素와의 사이에는, 民族的 時代的 社會的 條件의 歴然한 差異가 있다. 다만 그 文學的 本質에 있어 어느것이냐 하면 「世紀末的 頽廢主義」보다 浪漫主義에 가깝다는 程度나. 特히 吳相淳의 「虛無主義」를 匹敵의인 「니힐리즘」과 混沌한다면 이것은 根本的인 錯誤다.

그리고 以上과 같은 詩人 中心의 「廢墟」同人 가운데서 寫實主義 小說家 廉尙燮의 存在는 特異한 것이다. 廉尙燮의 文章은 簡

明直截한 金東仁의 文章에 比하여 晦澁緻密에 있어 對蹠의 이요, 그의 寫實主義的 作風은 李光洙의 理想主義(浪漫主義)的 作風에 比하여 또한 對蹠的이다. 이러한 그의 文章과 作風은 이미 「靑개고리標本室」 「밥과嫉妬」 「불동」等 短篇과 「三代」 「二心」 「牡丹꽃 필때」 「萬歲前」等 長篇을 通하여 잘 나타나 있으나 作品 自體의 成功으로는 解放後의 「두破産」 「臨終」 「一代의 遺業」 「夫婦」等의 短篇과 長篇 「驟雨」等에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廢墟」에서 두해 뒤에 「白潮」가 發刊 되었다. 朴鍾和 玄鎮健 羅彬 洪忠容 李相和 安碩柱 李章熙等을 同人으로 한 世稱 「白潮派」의 性格은 浪漫主義로 特徵을 삼는 것이 普通이나 浪漫主義的 性格에 있어서는 「廢墟派」의 「感傷」 「耽溺」에 比하여 오히려 덜다. 「廢墟派」의 「感傷的 耽溺」에 比하여 「白潮派」는 現著히 現實的이었다. 自由主義만 말은 文藝思潮上的 標語는 아니지마는 그들에게 굳이 標語를 붙인다면 그들이야말로 民族主義를 具體的 內容으로 한 自由主義였다. 여기에 그들의 現實性이 있었으며, 그러므로써 나중 傾向派文學의 主唱者이던 朴英熙 金基鎮等과도 어느 程度 步調를 같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朴鍾和는 처음 詩으로 出發하였으나 나중은 歷史小說에 置重하여 「錦衫의 피」 「待春賦」 「多情佛心」 「黎明」 「民族」 「洪景來」等 民族主義的 情熱로 一貫된 作品들을 產出하였다.

「白潮」보다 다시 두해 뒤에는 「朝鮮文壇」(李光洙 方仁根)이 發刊 되었다. 이때는 이미 同人誌的 性格에서 準文壇誌로 發展하여 李光洙 金億 朱耀翱 廉尙燮 金東仁 玄鎮健 朴鍾和 李殷相 崔曙海 蔡萬植 梁柱東 金東煥 金東暉等 多數文人들이 關聯되고 있었다. 이리하여 이 「朝鮮文壇」의 民族主義系의 文人들은 「開闢」에 依據한 「傾向派系」文人들과 隱然히 對立되고 있었다. 一九二五年에서 二八年까지 約 三四年間을 傾向派文學(實主義)의 全盛期라 할 수 있다. 이 期間에 登場하고 活躍하던 大部分의 作家는 越北해 있다.

傾向派文學이 수그러진 二九年頃에서 三二年 사이에 登場한 사람으로 作故한 金尙鎔 金允植 朴龍喆 및 毛允淑 等(以上詩人, 과 亦是 作故한 李孝石 姜敬燮, 및 金末蜂 李無影等)이 있었다.

一九〇九年 (續紀四二四二年)에서 一九三〇年(續紀四二六三年)까지 約 二十年間에 걸친 韓國의 新文學은 以上에 略述한 바와 같이 한마디로 表現하면 「同人誌文學」時代다. 同人誌가 곧 文壇이요, 同人이면 곧 文壇人이었다.

以上과 같은 「同人誌」時代에서 正常的인 文壇이 形成된 것은 一九三二年에서 同三十六년까지 約 五六年間이다. 이 期間에 登場

한 文人으로는 柳致瓊 金達鎭 金硯燮 盧天命 徐廷柱 黃順元 金光均 辛夕汀 金顯承 張萬榮 許允碩 등의 詩人과 桂鏞默 金裕貞 李箱 朴榮濬 崔貞熙 金來成 鄭飛石 金光洲 朱耀燮 崔仁旭 張德祚 金廷漢 李鳳九 安壽吉 등의 小說家가 있었다.

이 「三二」年에서 「三六」년까지를 나는 文壇形成期란 말을 했거니와 이 時代의 文學史的 意義는 實로 重要な 것이다. 이때까지는 大概 어느 同人誌나 또는 準同人誌(「開闢」 「朝鮮文壇」)에 依據한 文學그런이 文壇을 代行하여 왔기 때문에 어느

程度 그 그를(即 文壇)의 性格이나 傾向에 特徵的인 것을 發見하고 命名할수 있었으나 「三二—三六」年代에 와서는 各新聞(朝鮮日報 東亞日報 中央日報等)이 爲主)의 懸賞制에 依하여 選出되었으므로 그 對象은 全國的인 同好者 乃至 志向志가 아닐수

없었으며 그 標準은 面識이나 流派보다 文學的인 力量 그 自體가 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筆者는 일찍이 이 時代의 文學的 性格을 純粹文學이라 規定하고, 그 精神的 基調를 「휴먼리즘」이라 하였거니와, 이 「純粹文學」과 「휴먼리즘」이란 用語의 積

極的 意味와 文學史的 意義에 對해서는 따로 論及할 機會를 가지기로 하고 여기서는 省略하겠다. 一九三九年에서 四一年까지 約 三年間은 「文章」 「人文評論」時代다. 이 兩誌의 性格은 「文章」을 前日의 「朝鮮文壇」에 比한다면 「人文評論」은 「開闢」에 比할수 있을 것이다. 「文章」은 民族主義的인 純粹文學誌에 가가웠고, 「人文評論」은 社會主義的인 行

動文學誌에 가가웠던 것이다. 그리고 이 時代에 나온 新人은 朴斗鎭 朴木月 趙芝薰 金鍾漢(作故) 李漢稷 朴南秀 李鎬雨 金相沃 金洙敦(以上 詩人) 등과

郭復信 崔泰應 林玉仁 (以上 小說)等 大概가 「文章」推薦制로 나온 사람들이요, 「人文評論」誌를 通하여 나온 數三人은 지금 以北에 있고, 그 밖에 金松은 戲曲으로 金容浩는 詩集 「饗宴」으로 이때를 前後하여 各各 나왔다.

그다음 四一年(四二七四)에서 四五(四二七八)년까지 五年間은 文壇 暗黑期고 보니 「八、一五」까지의 韓國新文學의 略譜는 大概 以上에서 끝난다. (批評文學는 省略)

그러면 「八、一五」以後의 韓國文學의 現況은 어떠한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重要な 問題다. 이 重要的問題를 몇장남지 않은 紙面으로 說明하기는 到底히 不可能한 노릇이다. 여기 그 至極히 結論的인 數言으로써

許與된 紙面을 채우려 한다.

「八、一五」以後의 韓國文學은 吾人의 一般的인 期待와는 反對로 자못 低下된 것이 事實이다. 그것은 첫째 解放 以前の 約五

年間に 걸친 暗黒期에도 原因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直接的인 理由는, 解放後의 左右分裂 南北斷絶 「六、二五」動亂等에 있음이 分明하다. 「八、一五」以後에 登場한 사람으로 現在 活動하고 있는 사람만 小說에 約十五名 詩에 約二十名 合해서 約三十名 以上の 새로운 일꾼들이 登場되어 있으니, 「八、一五」以前の 作家에다 이 三十數名을 合하면 韓國에도 거의 七八十名의 現役 作家(詩人 小說家)가 일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그 一般的 水準은 아직도 舊 畧은 것이어서, 解放以後 昨年度까지 그 어떤 基本的 水準을 넘어서 作品이 每年 平均 두세篇을 넘지 못하고 있다.

今年들어 「現代文學」 「文學藝術」等 純文學誌의 發刊을 契機로 하여 量에 있어서나 質에 있어서나 解放以來 처음보는 盛況을 이루고 있다. 여기엔 勿論 還都以後 비로소 어느정도 生活이 整理 되었다는 理由도 있을 것이며, 또 그동안(動亂中) 쌓아졌던 많은 素材가 비로소 作品化 되기 시작했다는 點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直接的인 理由는 上記한 두개의 純文學誌가 發行되고 있다는 事實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筆者는 일찌기 다른 機會에서 一九三二年을 起點으로하여 約 半世紀 동안에는 韓國文學도 世界文學의 水準에 到達할수 있으리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이 機會에 나는 다시 이말을 確認하려하는 바이다. 이미 二十年은 지났으니, 今年(五五年)을 基準으로 하여 約 三十年 동안에 우리의 目標은 達成되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附言하고자 하는 것은, 筆者가 위에서 「世界文學의 水準」이란 말을 이미 썼거니와, 이것은 決코 오늘날 西歐에서 流行되고 있는 「메카니즘」이나 實存主義의 模倣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實存主義도 「現代의 意識」 또는 「現代的 感覺」을 體驗한다는 意味에서 理解할수도 있고 攝取할수도 있으나 그것이 恰似 새로운 前進이라 생각하고 盲從하거나 模倣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왜그러나 하면 現代(二十世紀)는 特殊한 季節이기 때문이다. 二十世紀의 新理想主義, 新浪漫主義, 新古典主義, 表現主義, 即物主義, 行動主義, 官能主義, 感覺主義, 主知主義, 起現實主義, 實存主義 하는 따위 標語를 十七八世紀의 古典主義나, 十九世紀前半期の 浪漫主義나 十九世紀後半期の 寫實主義의 展開와 같이 錯覺해서는 안 된다. 現代는 混沌의 世紀다. 새로 일어나는 모든 「流派」 「傾向」 「主義」等等을 一一히 盲從하고 模倣하다가 流行歌수가 되고 말 것이 다. 더구나 韓國文學과 같이 그 近代的 建設이 뒤떨어진 風土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언제나 現代(當代란 뜻에서)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目的은 언제나 永遠한 未來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現代를 攝取한답시고 그때그때의 流行과 傾向을 盲從하고 模倣하는 나머지 文學的 基礎를 半(百을 標準으로 하는 경우의 二十五)도 제 것으로 가지지 못할 때 自己들의 一生은 虛妄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저어도 標準(百)의 半(五十)을 突破하기 前에는 어떠한 才弄과 제스츄어도 한갓 無意味에 그치고 만다는 것을 再三 銘心해야 할 것이다.

韓國美術의過去와將來

張 勃

높은山은 보는사람의 位置와 角度와 距離에 따라서 달고 새로은面이 나타나듯이 歷史도 보는눈과 時代에 따라서 그面貌가 變하여가고 前에 보지못하던것이 보이기도 하는것이다. 그러나 人間의 眼界는 아무리해도 그局限性을 完全히 떠날수는 없을것이며 그視力의 不完全性을 어찌할道埋가 없을것이니 歷史의 全過程이 終結되기前에는 歷史의 全貌와 그意味를 決定的으로 把握하는 기쁨은 맛보지 못할것이다.

이미 지나간 過去의 歷史도 이처럼 보는境地에 따라서 差異가 있고 不完全한것이라면 하늘며 無限한 可能性中에 있는 未來의 歷史에 對해서는 더구나 말할것이없다. 그러나 歷史는 連續된것이며 飛躍하는것이 아니라고하며 無에서 생기는것은 더욱이 아니며 人間의 自由意志의 協力を 얻어서 創造되고 前進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咫尺도 分間못하는 暗黒을 걸어가듯도 아닐것이 다. 이처럼 人間은 歷史에 參與하는 自由的인 主人公으로서 不完全하나마 未來의 歷史에 對해서도 어느程度의 意慾과 態度를 表明할수 있는것이라고 보겠다. 이러한 觀點에서 이면에 筆者에게 주어진 本論題는 韓國美術史를 叙述하는 同時에 未來에 對한 豫言을 하라는것이아니라 (이것은 不可能事) 進展하는 歷史中에있는 한갓 美術人으로서 이에對한 反省과 觀望을 말하라는 것일것이 나 具體的인 歷史的 事實보다는 우리의 體溫圈內에서 느낄수있는 韓國美術에 對한 文化思潮的인 몇가지 考察로서 마칠까한다.

于先 韓國美術이라고 할 때 이것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韓國美術이 地理적으로나 性格으로나 넘어서는 안 될 어떠한 限界를 決定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 것이라고 믿는다. 勿論 韓國美術에는 韓國的인 特色이 있고 中國美術에는 中國的인 것이 있는 것은 事實이며 그 뿐 아니라 우리는 永久히 이러한 것을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다. 조금前에도 말한 바와 같이 藝術은 創造라고 하되 無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면 傳統과 血統과 社會環境의 制約과 特異性中에서 그것의 眞價를 把握하고 그것을 如實히 具現하는 길은 藝術的創造의 領域이라고도 하겠으나 이와同時에 藝術이라는 것은 他回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無限히 克服하고 超越하려는 努力이라는 것도 忘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時空의 制約中에 벗어나서 現實을 靈感이 捕捉하여 永遠한 世界로 높이고 生命을 賦與하는 것이 作家의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藝術品도 結局은 地上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時空中에 位置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制約을 도다시 가지게 되는 것이다. 藝術創造에 있어서 이 兩面性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認定하는 바이겠으나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制約性은 人間의 不完全性에 屬하는 것이며 作家는 藝術을 通해서 이 不完全性을 克服하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藝術의 偉大性인 同時에 悲慘性인 것이다. 이것을 좀더 具體적으로 말리 比喻해 본다면 自己속에서 생긴 子女가 自己눈에 至極히 귀엽고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眞實로 사랑있는 父母라면 그子女가 모든 사람의 눈에 그렇기를 바랄 것이니 이렇게 되려면 一旦 그父子關係가 克服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苦痛을 겪어야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한다. 韓國美術이라고 할 때 韓國이라는 것은 母性的인 名稱이며 韓國美術品이 世界에 進出했을 때 되도록이면 그것의 母親이 韓國이라는 것을 몰라볼 만할 높이에 超越해 있는 것이 좋으며 그 偉大性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대체 이것이 누구의 子息인가를 험디려 찾은 後에야 비로소 그것이 韓國의 子息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母性的의 榮光은 더욱 偉大한 것이다. 이러한 母子間의 사랑은 아무 리 無限大로 擴大한다 해도 決코 弱화하지 않는다. 보다는 더욱더욱 緊張되고 強化될 것이며, 母親있는 곳에 아들이 있는 것이니 아를 가는 곳에 母親이 따를 것이니 우리는 참으로 寬大하고 自由롭고 開放된 精神으로 創造의 길을 걸음으로서 偉大한 民族藝術文化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것은 理想論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너머도 當然한 本質論이라고 하겠으나 그럼에서 不拘하고 이처럼 強調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弱小民族으로서 周圍環境에 너머도 시달리고 萎縮되어 있는 동안에 이러한 것 까지도 비꼬려지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 까닭이다. 우리도 過去에는 獨自의으로 活潑히 民族精神을 發揮하여 新羅나 高麗時代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歷史에 永久히 빛날

文化를 創造한 民族의 後孫으로서 그 血統을 간직하고 있는 것도 巋然한 事實이나 우리 世代에 와서 國權없는 三十六年이란 어도 쓰라린 歴史였다는 것은 더 말할餘地도 없거니와 그 동안의 世界情勢의 變動과 世界文化의 展開는 눈부실만큼 急激한 것이어서 現在의 世界文化를 素朴한 精神으로는 對面할 수 없는데 많은 錯綜과 混沌이 若起되는 것이다. 우리가 西歐文化와 接觸하게 된 것은 日本을 通해서이며 日本이 本格的으로 歐羅巴의 文明을 輸入하기 始作한 것은 明治維新以後이며 그當時 日本이 輸入한 西歐의 文明이란 어떤 것이었나 하면 十九世紀末의 科學萬能主義와 唯物論 進化論의 全盛期였으며 歐羅巴文明自體로 본다면 루비우스와 宗教改革으로부터 始作된 近代世界가 傳統的인 基督敎的인 精神秩序를 거이 抹殺하다시피하고 그矛盾을 最後의 段階에 까지 이끌어가고 있을 때였다. 그렇기 때문에 日本人들은 恒常말하기를 「西洋의 物質文明은 大和魂으로 살려서 使用하는 것」이 指導原理이라고 하며 가장 賢명한 體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大和魂이 悲慘하게도 敗北하는 것을 體驗한 것이다. 아무튼 우리가 日本의 影響을 받게 되었을 때는 日本自體의 文化도 動搖되기 始作한 때였으며 거기에서 우리 自身の 動搖도 合流되어서 二重 三重으로 奇妙한 性格을 갖은 것이었다. 이런 形便에 있었음으로 文化라는 것이 眞實로 理解되었을 理도 없고 思想에 體系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이런 關係로 해서 아직까지도 西洋文明이라고 하면 그저 簡單히 十九世紀의 西洋文明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周圍에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責任은 日本帝國主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歐羅巴文明 自體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世界思潮 乃至 文化形態의 레두리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西洋畫라는 것을 그리기 始作한 것이나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나 하는 것은 하나하나 指摘할 것도 없이 可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傳統을 가지고 있던 東洋畫에 있어서도 政治的 壓력과 教育의 効力에 依하여 不知不識間에 所謂 日本畫의 影響을 받게 되고 그것을 追從하는 동안에 東洋畫가 가진 本來의 眞은 藝術性과 훌륭한 傳統을 忘却하고 倭小한 日本趣味를 追慕하는 傾向이 많았던 것이다. 當時 日本畫壇은 模倣期에 있었으며 不幸히도 그 模倣의 對象인 巴里美術界는 近代思潮의 複雜한 波動을 타고 하두도 安定된 姿勢를 가질餘裕도 없이 끝없는 變動中에 놓여 있었음으로 이에 따라 日本의 思潮도 흔들리고 있어서 갈피를 찾아볼 수 없는 狀態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 健全한 發展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었으며 青年作家들은 착기어려운 時代의 暗黒속에서 무서운 試鍊을 받지 않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制約속에서 所謂 總督府가 主權한 二十餘年에 걸친 朝鮮美術展覽會는 進行되어간 것이다. 그러나 이것조차 더 惡化되어 日本帝國主義는 그末期에 가서 自發的인 鎖國主義的全體主義에 기우러지고 말았을 때 美術界의 苦痛은 더욱 컸으며 筆息狀態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太平洋戰爭이 終末을 告하고 우리國權이 恢復되며 自由民族의 一員으로서 全面的으로 自由世界の 文化와의 接觸이 展開되었으나 이것은 너머도 急激한 變動이었다. 우리가 全體主義를 버서나서 오랜간만에 歐美的 文化와 相面할때 그것은 너머도 窄선것 이어서 또다시 새로운 混亂에 빠지고 만것이다. 게다가 民族의 南北分裂이 甚기고 悲劇的인 六、二五事變과 UN軍의 參戰等 이 無말할수없는 苦難을 겪어왔으나 아직도 如前히 北進統一이라는 大業을 이루지못한채 있는것이다.

이러한 混亂과 分裂과 鬪爭中에 있으면서도 表術하는 이에 屈服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오히려 拮目할만한 發展을 보이고있으며 特히 日本的인 色彩를 一掃하고 面目一新하여 靑靑하게 美術의 本軌道를 指向하여 邁進하고있는 靑年後進들의 모습은 實로 놀라운것이 있다.

어느分野에서나 그렇겠지만 特히 表術界에 있어서의 將來의 希望이라고 하는것은 靑年作家들에게 있는것이며 現在이미 그러한 期待에 가득찬 作家들을 우리는 눈앞에 많이 보고있는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重要な 課題는 現代世界思潮를 어떻게 받아들리며 어떻게 理解하며 어떠한態度로 이것과 對決할것인가 하는問題다. 이것은 우리만이 갖이는 問題가 아니라 西洋世界自體에있어서도 重大한問題가 많일수없으며 아무런 對策없이 그대로 지나 갈수없는것이다. 二十世紀에 들어서 二次에 걸친 世界大戰은 많은 悲慘을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近代世界の 醜惡을 反省시키는 強力한 楔機를 軋드는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知性的 健康이 恢復되기 까지에는 相當한 距離가 있는것이어서 當分間 이 暗夜는 繼續될것으로 보인다.

藝術이란 創造하는 힘이고 歷史의 進展도 하나의 創造라고한다면 歷史의 가장先頭에 서는것은 藝術家라고 할수도있을것이다. 말하자면 歷史의 暗夜에 구명을 찾아서 光明이 생기게 하는일을 하는것이 藝術家가 아닌한다. 이러니만치 藝術에 從事하는 사람에 使命은 至極히 큰것이며 따라서 그責任도 莫大한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賢明해야하며 純粹해야한다는것이라고 하겠다. 하나의 技巧나 或은 個人的 主觀的인 趣味나 主張 이런것은 藝術分野에 있어서 아무리 重要하다 하더라도 一部分의 位置밖에는 차지할수 없는것이다.

特히 知性的時代라고 하는 現代에 있어서 知性이 不健全하고 어두워다가는 全身이다. 어둠에 빠질危險이 있는것이다. 앞으로의 武器는 무엇보다도 知識이라고 믿는다. 筆者(서울大學校美術大學學長)

韓國樂壇의過去와將來

玄 濟 明

韓國樂界의 現象을 살펴 보면, 不足된 點이 많으면서 그러나 形式을 가추고 있는 點이다.

『하루 아침에 로오마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옛 말이 있거니와, 요즘의 新人音樂家나 音樂學徒들은, 韓國樂界의 過去之事を 모르고 때문에, 얼핏 꽤 正常的인 發展史를 想像하기 쉽다.

그러나 어느나라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을터이지만, 韓國도 亦是 新 文化를 輸入하는 後進國家의 常例에 除外됨이 없이 洋樂이 傳來했었던 當時엔 꽤나 奇聞 奇談이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洋樂은 主로 美國宣教師의 손으로 輸入된 것이지만,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生前 처음으로 目擊하고, 혹은 만저 본 當時의 우리 社會에선, 音樂이 하나의 藝術로서의 待接을 받지 못하고 一種의 奇異한 物件이나 事件으로서 取扱 되었었다. 지금도 늘은이 더러 물어 보면, 거리의 興行師나 약장수를 通한 바이올린 밖에 記憶 나지 않는 분이 많지만, 初代의 所謂 韓國 바 이올리니스트 가운데도, 右手로자 運指를 하고, 활을 左手로 使用했던분이 있었으니, 짐작 하고도 남음이 있는 現狀이었다.

그나마 當時의 社會가, 大志를 품은 이들 音樂人의 營爲를 迫窘하고 抑壓하지나 않았던들 多小間 生色이 있었을 터인데, 어찌다가 어려운 環境을 무릅쓰고 音樂部門을 指向하려는 實踐家가 나타나면, 무슨 『쟁이』, 『상놈』이니 하고 모두가 내쳐 돌렸으니, 現今과 같이 비젓 계 教育을 받을수 없었음은 勿論이요, 弊端이 많은 獨習조차 남의 耳目을 避해 가면서 해야 할 實情이었다. 그러나 모처럼 發表會나 演奏會를 가져 볼려고 해도, 이렇다 할만한 場所나 音樂館도 없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暗葬 當한 音樂人의 『努力』이 許多했었다.

이러한 가진 逆境에다 또 하나의 큰 支障이 있었다. 勿論, 어느 程度 土台가 잡힌 現今에도 그러한 傾向이 濃厚하지만, 그 當時의 樂界의 經濟的인 困窮은 더욱 深刻했었다. 音樂專門이면 糊口之策이 서지 않으니, 거기에 健全한 發展이, 있을터 萬無

했다.

그러나 根滅되는 運命만은 倏幸히 免하게 되어, 그 後 十年, 二十年, 歲月이 흐르는 동안에, 가까이서 日本에서, 멀리서 歐美等地에서 音樂專攻의 難關을 克服하고 歸國해 온 분들이 드문 드문 있었다. 그러나 이분들의 高貴한 努力도, 日帝의 桎梏을 벗어 나지는 못하여, 愛惜한 挫折까지도 보게 되었으며, 全體的으로 속 시원한 發展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면서 遲遲牛步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祖國의 光復을 마치했었다. 비록 統一의 契機를 睨았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땅과 제 집을 찾아 낸 歡喜는 억눌려 둘 수가 없었다. 政治, 經濟, 教育, 藝術等의 各分野에서 活氣 있는 建設運動이 始作됨에 따라, 樂壇도 並行하여 처음으로 本軌道에 올라 서게 되었다고 할까. 宿願의 심포니運動을 비롯하여, 오페라의公演과 演奏面의 現實化이며, 혹은 日進 月步하는 演奏會, 나아가서는 外國人 音樂家나 演奏團의 來韓에 依한 新鮮하고 感激的인 刺戟等, 實로 長足の 發展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特히 여러 音樂學校의 誕生은 韓國樂壇의 存續과 發展을 爲하여 分明히 劃期的인 現象이요, 또한 훌륭한 慶事라고 하겠다.

昔년과 같이 남의 耳目을 避해 가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正確하고 普遍性 있는 教育을, 誠實한 方法에 依據하여 公公하게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想起해 보면, 過去 數 많은 音樂家들의 憂患이 었던 同時, 韓國樂壇의 發展의 痛이기도 했던 音樂教育의 難問題가 이로써 얼마간 緩和된 셈이니, 무척 믿음직한 일이라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고, 信賴 할 수 있는 先進國家에서의 貴重한 樂譜나, 音樂書籍 導入과 翻譯 등은 前進하는 韓國樂壇에 對하여 더욱 拍車的인 資料가 되었고, 또 그 刺戟에 依하여, 未熟했거나 教育用 乃至 演奏用的 樂譜等이 우리의 손으로 印刷되고, 또 우리의 힘으로써도 音樂書籍이나 音樂雜誌가 發刊되었었다. 거기에 덧붙여, 라디오의 一般的인 普及이 可能(勿論 韓國產은 아니었지만)하게 되고, 따라서 放送音樂이 量的으로나 質적으로 많은 發展을 보이었으며, 이것이 한편 一般人的 音樂藝術에 對한 啓蒙에도 큰 功績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韓國樂壇의 現狀을, 昔日의 沈滯時代에 比較할때, 거기에 一大飛躍이 있었음은 一旦 肯定되는 바이지만, 아직도 世界的인 水準에서 겨누어 보면, 그 얼마나 落伍되어 있는지, 實로 前途遙遠한 實情이라 하겠다.

좋은 料理은 만들어 내기 爲해선 한 가지 要素만으로서 이루어 질 수는 없다. 첫째, 좋은 材料가 있어야 할 것은 두 말할 必要가 없고, 이와 아울러 料理人의 솜씨도 不可欠의 要素가 된다. 한데, 거기에다 優秀한 施設이 있어야 함도 勿論이요, 料理人의 誠意나, 또한 좋은 先入觀을 주기 爲한 適當한 宣傳等도 결코 疎忽히 할 수 없는 일이며, 完成된 料理라 할지라도, 그 것을 玩味하는 場所나 環境如何에 따라, 그 効果에 많은 差異가 생긴다는 것도 亦是 問題가 된다.

音樂藝術을 이와 同一視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마히 살피 보면 類似한 點이 적 많다.

假令, 料理의 材料를 바꾸어 音樂의 素質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料理人의 솜씨를, 音樂人의 技巧이라고 해도 좋겠다. 이 두 가지는, 料理의 境遇와 같이 絶對 不可欠의 要素가 된다. 創作의 境遇라면, 料理人의 솜씨가 作曲家의 作曲技法이나 理論處理의 熟達程度에 該當될 것이고, 演奏家의 境遇라면, 그 테크닉에 該當되리라 하나 料理의 處地에서와 같이, 音樂 또한 이 두 가지만으므로선 그 存續發展이 不可能하다.

첫째 存續發展하기 爲하여, 優秀한 施設, 곧 音樂專攻을 爲한 充實한 學校의 創立이나, 或은 權威 있는 教育機關의 設定이 先決問題이겠다. 充實한 學校를 이루기 爲해선, 再言할 必要 없이 充分한 教育的施設이 있어야 할 더이고, 並行하여 權威 있는 教育家를 되도록이면 多數 配置해야 할 것은 勿論이다.

한데 우리 韓國의 實情은 어떠한가? 그저 寒心스럽다는 表現으로서 다 했고나 할까, 이력 저력 數十台의 피아노가 備置되어 있는 學校도 없지는 않으나, 그것이나마 數가 不足이어서 每樣 爭奪寸劇이 버려지는 形便이다.

또한 教授問題에 있어서도, 韓國樂壇의 過去가 過去이니만치, 實力 있고, 誠實하고, 아울러 무엇 보다 높은 人間性을 兼備한 분이 내단히 적기 때문에, 多大數의 教授들이 過勞한 負擔에 呻吟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前者 教育的施設의 難問題를 조금이라도 緩和하거나 解消시킬 수 있는 方法이 없을 것인가? 결코 쉬운 問題는 아니다. 하나 그렇다고 束手無策에 歸着시킬 수 없는 노릇이다. 要는 韓國政府나 音樂人들의 經濟力이 豊足해서, 何時라도 必要한 樂器를, 所要되는 數交대로 輸入해 올 수 있거나, 그렇지 못하면 自家生産을 하는 길 밖에 달리 道理가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經濟的인 困窮으로 우리는 政府에 對하여 直接的인 經濟援助를 도저히 바라지 못하는 形便이다. 그러면 間接的인 方法은 있을 수 없을까? — 있다. 단 한 가지의 方法이긴 하나, 가장 效果的이라고 생각되는 — 한 마디로 말하면, 演奏活動을 많이 阻止시키고 있는, 『興行稅』를 免除하는 方法이다. 하기가 이 問題가 지금 세심스럽게 論議된다는 것은, 벌써 때 늦는 것이 없지 않으나, 그 점은 後進國家의 事들이다. 理解해야 하고, 不得한 일이었다고 속 시원하게 諦念해 버려야 할 일이지만, 萬一 앞으로 免稅의 革斷이 내러지지 않는다면, 實로 딱하고 어지러운 事實이 아닐 수 없다. 政府의 經濟狀態를 짐작하고, 至難한 自立自活의 길이라도 開拓해 보겠다는 音樂人들의 希望이 한낱의 조각꿈이 되고 마는 것이다.

생각을 도리켜, 自家生産의 現實化나 바라 볼까 하지만, 韓國人이 外國各地에서 正規의 技術을 習得하여, 實用에 提供될 수 있는 各種의 樂器를 製作할 수 있을 때 까지, 몇 년을 기다리고, 幾年을 헤아려야 하는지 — 그나마 이미 지지 않은 人員이 先進 各國에 派送되어 各種의 樂器製作의 技術을 習得中이면 또 모르되, 于先 急한 불을 끄기 爲해선 亦是 免稅에 依한 音樂人의 自立自活의 方策만이 最善일 것거다. 樂器製作의 技術을 習得시키기 爲한 方策도 早速히 세워져야 할 것은 再言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音樂育의 問題가 提起되었기 때문에 한 마디 더 添加해 두고 싶은 點은, 早期教育의 實踐에 對해서이다.

關心 있는 부이면 이미 아는 터이지만, 音樂教育은 一種의 天才教育에 依據한다. 다른 藝術部門과는 달리, 特別 演奏時의 最大의 要素의 하나인 技巧練習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效果的인 것이다. 그러면 이나 어린 少年少女들 어떻게 教育시켜야 無難할 것인가? 몇가지 方法이 있을 것이다. 하나 少年少女의 教育보다는, 먼저 父兄母姊들이, 音樂藝術에 對한 正確한 認識을 갖게끔, 適切한 啓蒙運動이나 宣傳方法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父兄母姊가 音樂藝術에 對한 正當한 認識을 가지게 되면, 質的으로 優秀한 家庭教師를 맞아 드립수도 있고, 通學할 수 있는 年齡이면, 믿을만한 音樂學院이나 研究所에 依賴할 수도 있겠다. 어느 方法이든 開에, 아예 失手해서 안 될 問題는 兒童의 音樂의 才質에 對한 判別일 것이다. 자칫 輕率하게 判定을 내리면 兒童의 一生에 큰 惡影響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까지나 慎重을 期해야 한다.

兒童의 教育方法에 있어선, 境遇와 環境에 따라 適切한 方法이 있겠거니와, 父兄母姊들에 對한 啓蒙 乃至 宣傳은 어떠한 方法에 依據할 것인가?

손을 뽑아 보며, 우선 쉽게 放送을 通하는 수도 있겠고, 音樂雜誌나 其他 音樂刊行物等을 利用할 수도 있겠다. 自家生産을 할 水準은 못 되기 때문에, 當分間은 外國生産品에 依支할 수 밖에 別對策이 없지만, 音樂映畫나 레코오드에 依한 啓蒙의 힘도 輕視할 바 못 된다. 그러나 좋은 演奏를, 理想的인 音樂館에서, 혹은 오페라劇場에서, 자주 發表하고 자주 鑑賞케 하는 것 보다는 더 積極的인 方法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좋은 演奏』를 生産해 낼 수 있는, 專門的이며 技術的인 分野에 對한 責任은 全的으로 音樂家 自身들에게 있다고 해도 좋겠다. 하지만 오페라劇場이나 音樂館의 建立에 있어선, 當局의 좀 더 正確한 認識에 立脚한, 積極的인 援助가 있어야 이루어지리라 하고 여기며, 그도 어찌할 實情이라면, 最少限度 音樂人들의 自立自活의 門이라도 열어 주어야 마땅한 일이 아닐까 한다.

萬一, 이와 같이 當局의 音樂藝術에 對한 正確한 認識의 惠澤을 입어, 理想的인 音樂館이나, 堂堂한 오페라劇場이 建立되고, 音樂人에게 自立自活의 門이 열리어, 演奏活動이 活潑해지고, 敎育의 全般的인 問題가 圓滑하게 經營되어 나간다면, 그리 멀지 않은 將來에 韓國樂壇의 世界的인 進出이 어김 없이 約束될 것이다.

그리하여 韓國文化를 世界各國에 다 널리 紹介하고, 그럼으로써 韓國과 韓國樂壇의 國際的인 飛躍을 促進시키는 한편, 今般前 NRC(交響樂團 來韓의 感歎的인 境遇와 같이, 各先進國家와의 大太的인 文化交流을 實踐하여, 더욱 큰 國家的인 發展을 圖謀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筆者 서울大學校 音樂大學學長)



Small, faint markings or stamps in the bottom left corner, possibly a library or collection identifier.

빈 면

詩

復活

柳 致 環

어젯날 저녁!

아득히 닳아드는 暮色과 더부러 적막히 人事소리 넘어나는 거리에 서서 飢갈같이 앓이는 孤獨과 絶望
에 나는 그 무어던가? 그 무어를 애달게도 기다려 죽어 갔고

山山이여 너회는

까우러지는 落照의 마지막 餘光속에 그 깊은 悔悟와 아픔의 주름살들을 짓고 마침내 絶命하여 갔었으니

그러나 이 새벽

너희 이마에는 장엄하고도 聖스런 비웃함의 빛이 이같이 서려나고 나의 가슴엔 합초롱히 이슬 젖은 기
쁨이 다시 스며 들거늘

그랬었음에랴

그 無限한 孤獨과 悔悟의 저녁이 있었으므로하여 여기 이 거룩한 復活이 있었음에랴

침침 그 孤獨과 悔悟의 밤은 내게 더욱 깊어 크고 나는 그 孤獨과 悔悟를 더욱더 달가히 지녀 견디
었었음을!

과 리

崔貞熙

百科全書를 뒤져 보니 과 리의 種類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집과 리, 쇠과 리, 감장 과 리, 금과 리, 기생 집과 리, 기생, 감장과 리를 이 있다.

우리를 家庭에 날라들어서 똥앵거리며 성가시게 구는것을 집과 리라고 일러는지 모르겠다. 또 그 몸동아리가 정글맞게 크고 짓벌건 눈이 불룩 튀어나온 놈은 어느 種類에 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外貌는 흡사 매미를 닮은듯 하나 매미의 生理하고는 전혀 다르다. 매미는 나무에 곶득 높이 올라앉아 한 여름을 아름다운 노래도서 사람을 즐겁게 할뿐 아니라 나무외 진을 빨아먹으며 깨끗이 사는데 이 과 리란 놈은 그렇지 못하다. 사람을 그냥 성가시게만 구는 것이다. 성가시게 굴 뿐아니라 도대체 지저분 하기 짝이 없다. 먹을것이고 보면 무엇이냐 좋다. 먹기 爲해 선 어디나 쫓아 다닌다. 便所에도 가고 쓰레기통에도 가고 傳染病菌이 있는 데도 가고 심지어는 쥐가 죽어 넘어진데 까지 불어서 빨아먹는다. 밥 그릇에도 앉는다. 찬 그릇에도 앉는다. 수까락에도 앉는다.

밥그릇에 앉은 과 리가 죽은 쥐를 빨아먹던 과 리인지도 모르겠다. 찬그릇에 앉은 과 리가 便所에 갔던 과 리인지 모르겠다. 수까락에 앉은 과 리가 썩은것들이 들어있는 쓰레기통에 갔던 과 리인지 모르겠다. 혹은 傳染病菌이 있는데 갔던 과 리인지도 모르겠다.

과 리의 몸동아리와 다리에는 털이 많이 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온갖 病菌과 더러운것이 썩잘 묻게 되어 있다고 한다. 또 과 리는 먹었던 것을 다시 吐해놓기도 잘 한다는 것이다.

여름에 흰 빨래를 다루어 본 사람은 과 리가 먹은것을 다시 吐해 놓는다는 事實을 알 수 있으리라. 호린 날이거나 비 오

는 날, 흰 빨래를 다루어 불량이면 더 잘 알 수 있으리라. 얼른 마르지 않는 빨래에 몸동아리가 크고 첫별건 눈이 투 불거
져 나온 과리들이 어디서 그처럼 모여드는지 모여들어선 흉을 싸고 먹은것을 따해놓곤 해서 結局은 빨래가 불모양이 없이
되고 만다. 마루에 널어도 그렇고 房에 널어 보아도 소용이없는 것이다. 울화가 치밀어서 빨래를 房에 널어놓은 채 돌아가며
문이란 門과 窓이란 窓을 모조리 쳐 닫아 틈셀테 하나 없이 해놓고 과리藥을 흠뻑 뿌려 준다. 몸동아리가 작은 늬도 죽고
큰 늬도 죽는다. 작은 늬은 한참 맹맹일 치다가 죽지만 큰 늬은 심겁게도 죽는다. 피피 쓸어진다. 것처럼 첫별건 눈이 투
불거져 나와 사납게 보이는 늬이 원 그다지도 쉽게 쓸어질 수가 있으랴.

스레받기에 쓰러담으면 한 스레받기에 가득 하다. 마음이 깨운 해진다. 몸이 가든해 진다. 戰爭에서 敵을 數없이 무지르고
난 勇士의 마음이 이리러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도모지 측은하거나 가엾지가 않다.

너무 입살맞기 때문인 가 보았다. 하두 정가시게 구는 탓인 모양이 있다.

정가시게 구는 것내에도 죽여놓고 보면 측은하고 가엾은 것이 있다. 가운 곡식이 누렇게 익었을 때의 재배 처럼 정가신것
이 없건만 이것을 붙잡아놓고 보면 가엾고 측은하여 견딜 수 없어진다. 죽일 수도 없고 노아 보낼 수도 없어 한참동안 두
진 애를 쓰다가 다른 사람에게 내어 준다. 내어주고나서도 마음이 언짢다. 가져 간 사람이 구어먹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
는 때문이다.

색은 아침 일찍부터 맑은 목소리로 재갈 거리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맑게 해 주지만 과리란 늬은 거저 아누테나 좃
아 다니며 더럽게만 구니까 죽어 쓰러진 몸동아리까지에도 憤惡을 느끼게 되나 보았다. 과리의 주검은 어디에서던지 보면 불
사룩 깨운해 진다. 과리통 밑에 색은 냄새를 피울 수 있는 것들을 놓아 두면 과리는 영나없이 그리로 모여든다. 모여든 늬
은 十分의수이 다 과리통으로 들어가게 마련이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다. 제대로 놓아두어도 색질 들어 가지만 과리
가 잔뜩 모였을때 깔아놓은 밑받침을 툭툭 두다러면 과리란 늬들이 와야 하고 과리통으로 드리 쓸린다. 드리 쓸린 늬들은
통안에서 한참 右往左往하다간 비누물에 빠진다. 비누물에서 해염을 치가간 二分이나 三分가량하면 아주 絶命해 버린다.

또 밤에 호롱불 앞에서 글을 쓰고 있는라면 과리들이 모여든다. 글 쓰는것을 그만두고 과리잡이를 하는 때가 많다. 잡은과
리의 날개를 호롱불에 고슬려 없세버리기도 한다. 주동아리를 호롱불에 태워주기도 한다. 이렇게 殘忍하게 굴고나서도 가엾거나

측은하지가 않다.

어제 아침이 었다. 부엌 구석 거미줄에 파리란 놈 한마리가 걸려 있었다. 금방 걸린 모양이 었다. 헤여날려고 다리를 버둥 거렸다. 거미란 놈이 제빨리 파리에게로 가까이 오더니 두어번 어두만지는듯하고선 똑딱 먹어버리는 것이었다. 어떻게痛快한지 몰랐다. 거미줄이라면 돌아가며 쓸어버리던 버릇을 發露하지 않고 그냥 두어웠다. 또 파리가 걸리거던 먹어버터라고——. 몇십마 리던지 거기 그렇게 있으면서 먹어버터라고——.

파리는 어떤 方法으로 죽든 간에 죽는 것을 보고나면 깨운 할 따름이다. 무슨 方法으로던지 많이 죽일 수가 있었으면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손등에 파리란 놈이 와 앉았다. 요놈이 손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건만 감들하지 않고 앉아 있다. 쟁선 쟁는 손을 잘 쟁지않았더니 비위에 맞는 모양이다. 精神을 통이 못차리는 눈치다.

옆에 놓인 알박한 책 하나를 들어서 후려 갈졌다. 꽤 익숙한 원손이건만 빗맞았던지 파리는 왜양하고 달아 났다. 제놈이 가진 갖지만 쟁선 비린내를 좇아 이제 또 을 것이다. 오면 오는대로 잡아 보리라. 파리는 잡으면 잡을수록 마음이 깨운해 지기만 하는 것이다. (筆者女流小說家)

藝術賞授賞規程 (四二八八、四、九)

第一條 大韓民의 藝術을 發展 向上시키기 爲하여 藝術賞을 授與한다

第二條 本賞의 名稱은 「大韓民國藝術院藝術賞」이라한다 (以下賞이라한다)

第三條 賞은 當該年度에 發表된 作品中에서 가장 優秀하다고 認定된 作品의 作者 或은 藝術行動에 있어서 그功勞가 特別히 顯著하다고 認定된 作者에게 授與한다

但前者의 授賞對象은 十年以上 藝術生活을 繼續한者라야하며 後者의 授賞對象은 二十年以上 藝術行爲에 從事한 者라야 한다

第四條 賞은 每年各部門에서 一人을 넘지 못한다

第五條 當該年度에 그 當者가 없다고 認定될 때에는 賞은 授賞되지 않는다

第六條 賞은 藝術院에서 定하는 正賞과 副賞을 授與한다

第七條 賞은 藝術院에서 審議決定한다

第八條 賞의 審議는 藝術院 分科會에서 審議內定하여 藝術院의 全體會議에서 決定한다

第九條 賞을 決定하는 藝術院의 會議는 在籍會員 三分之二以上의 出席으로 成立되며 出席會員 三分之二以上의 贊成으로써 議決된다

第十條 賞은 每年六月에 授與한다

第十一條 本規定에서 明示되지 않은 其他 事項은 藝術院의 決議로써 이를行한다

第十二條 本規程은 檀紀四二八八年四月부터 이를 施行한다

藝術院會員當選者第一回會議

一、日 時 檀紀四二八七年四月二十一日下午一時

一、場 所 서울大學校 齒科大學講堂

一、參席人員

1、會員二十二名(定員二十五名中 參名欠席)

2、選舉委員長 安龍伯委員 喪吉基委員 劉澄梧幹事

一、決議事項

喪吉基選舉委員으로부터 經過報告가 있는後 柳致眞會員이 當選

會員各類別로 定員配定經緯의 說明을求하여서 다음과같이 黑板에 揭示코說明하다

1類 1449+2081=6,362 7人

2類 1452+2081=6,977 7人

3類 1182+2081=5,6799 6人

4類 1,20+2881=5,382 5人

備考 選舉令第29條第 2項投票(集計)數는定員數를除한數值의半以上

上

5203+25=208.102

最高年長者를 臨時議長으로 選出하자고合議를보아 高義東氏가 決定되고 推薦會員을 一類에서三人 二類에서三人 三類에서二人 四類에서二人을 選出키로하고 閉會하다

藝術院會員當選者第二回會議

一、日 時 檀紀四二八七年四月二十四日 下午一時

一、場 所 서울大學校 齒科大學講堂

一、參席人員

1、會員二十三名(定員二十五名中 二名 欠席)

2、觀吉基委員、崔洛久、金永學、趙海山、徐海洙書記

一、決議事項

趙演鉉會員이 各類別로 一人式으로하고 殘餘一名은 制限外로

하자는方法으로서 任命會員을 投票한結果 다음과같다

廉尙燮 一七票

高義東 一七〃

玄濟明 一六〃

吳相淳 一五〃

柳致眞 七〃 (出席會員의過半數以上票이未達)

以上으로四名이 任命會員에 當選되었다

다음은 推薦會員을 投票하여 다음과같이 選出되다

第一類(文學)

趙演鉉 一〇票、朴鍾和 一八票、金東里 一四票

第二類(美術)

李象範 一一票、張勃 一三票、孫在馨 一二票

第三類(音樂)

金聖泰 一五票、成慶麟 一四票

第四類(演藝)

柳致眞 一五票、李圭煥 九票

以上 十名이 推薦會員에當選되다

藝術院第一回定期總會

一、日 時 禮紀四二八七年六月三十日

一、場 所 서울大學校 齒科大學講堂

一、點 名 任命會員四人 推薦會員八人

一般會員十人 計二十二名

(參席人員選) 學委員長 曺吉基委員 劉澄梧幹事 崔洛久書記 金

永學書記 趙海山書記

一、任命會員辭令傳達

高義東 廉尙燮 玄濟明 吳相淳 以上 四會員에게 辭令傳達

二、選舉委員長人事(文教部長官)

그동안 여러분은 藝術院構成을 爲해서 많은 波란이 있었을 것

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克服하고 大統領이 任命하는

任命會員의 裁可가 나려서 비로서 첫 發足を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文化와 藝術을爲한 盛事라 봅니다

참된文化運動의 核心體 卽 藝術院이 中心體가 되어 今後如何

하게 藝術分野가 進展하는가는 여러분의 責任으로 믿습니다

文化와 藝術은 政治運動과는 何等關聯이 없습니다 全國의 藝術을 領導하는 여러분은 文化宣傳面에 있어서 無防備狀態에 있는 現狀을 強力한 힘으로써 또는 果敢한 態度로서 臨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大韓美術協會展을 보고 感激하였습니다 이것은 民族의 底力을 發揮한 것으로 봅니다

큰 努力과 큰 力量으로써 所期의 成果를 거두어 敵側의 文化攻勢에 反擊態勢를 取해야 될 것입니다. 藝術院과 藝術院의

發足이 늦어진 것은 이 사람의 不모한 탓이오나 앞으로 부디 活潑하게 所期의 成果를 거두어 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와같은 選舉委員長의 人事가 있은後 任員選舉도드러가 藝術院의 會長選舉는 過半數以上得點者로하되 未達 또는 同點

인 境遇에는 決定投票에서 決定하기로 決議하고 投票한結果 玄濟明 十點 朴鍾和 四點 高義東 八點 으로 過半數得點者

가 없으므로 다시 決定投票하였는데 玄濟明 十點 高義東 十 二點으로 參席會員 二十二名 過半數(十一點)을 超過하여 高

義東會員이 會長에 當選된 다음에 副會長選舉를하되 會長選 舉要領에 準하기로하여 投票한結果 玄濟明 九點 朴鍾和 十

點 으로 過半數(十一點) 得點者가 없으므로 다시 決定投票

하였으나 玄濟明 十一點 朴鐘和 十一點으로 過半數以上得點

에 同點이므로 年長者를 副會長으로 採擇하기로 되어서 朴鐘和 會員이 副會長으로 當選되었다

다음 各分科會長選舉는 各分科會長選出은 補闕會員이 補闕된 後 次期總會에서 選出키로하나

藝術院諸規程制定委員을 選出하되 正副會長과 各分科에서 一人 式四人 計 六人이 證例委員이 되어 制定委員을 選出한結果 以

下의 八會員이 決定되었다

高義東 朴鐘和 玄濟明 趙演鉉 金聖泰 柳致眞 尹孝重 吳 泳鎮

開院式舉行準備에 關하여서는 可及의 藝術院과 共同으로 하되 連絡 및 場所 日時 其他 決定은 藝術院諸規程制定委員에게 一 任키로하고 下午四時에 閉會하다

藝術院諸規程制定委員會

第一次會議

一、日 時 檀紀四二八七年七月二日下午二時

二、場 所 文敎部次官室

三、參席者 高義東 朴鐘和 玄濟明 趙演鉉 金聖泰 尹孝重

(劉澄梧 崔裕久書記)

一、決議事項

藝術院事務 同職制 및 會員報酬規程을 먼저 制定키로하되 그母法 (文化保護法)을 改正하여야 되게 이를 早速히 學藝院 同一步 調로 하기로 하고 玄濟明委員 發議로 諸規程의 草案委員으로서 趙演鉉委員과 尹孝重委員을 推薦하고 本月七日까지 作成提案 키로決議하다.

朴鐘和副會長 發議로서 藝術院諸印章을 다음에 依하여 早速히 制定키로 하였다. 藝術院印은 銀製로 하고 國務員印과 同規 格으로 하며 會長印은 角或象牙製로 各部長官印과 同規格으로 하기로 決議하였다. 下午三時半 閉會

藝術院諸規程制定委員會

第二次會議

一、日 時 檀紀四二八七年七月七日下午二時半

二、場 所 文敎部編修局長室

三、參席者 高義東 朴鐘和 玄濟明 尹孝重 趙演鉉 奕吉基

(藝術課長)

一、決議事項

開院式을 다음과如히 舉行키로 決議하다 日時 檀紀四二八七 年七月十七日下午二時 場所 서울大學校大講室 開院式準備委員으로 朴鐘和委員 玄濟明委員을 選出하다 閉會——四時

藝術院諸規程制定委員會

第二次會議

一、日 時 禮紀四二八七年十一月二十九日下午二時

一、場 所 文敎部高等教育局長室

一、參席人員

高發東 朴鍾和 玄濟明 金聖泰 趙演鉉 尹孝重 裴吉基 崔洛久

一、決議事項

禮紀四二八八年度 藝術院歲出豫算要求額을 二五、一六九、三三

四圓으로決議하였다

藝術院「렛지」는 尹孝重會員이 二、三種의 圖案을 次期會合

時까지 提出키로하다

藝術院會員報知規程 및 事務局職制關係討議를 爲하여 會長이 學

術院會長과 事前에 打合하여 學藝術院制定委員이 連席會議을

갓기로하다

會員二十五會員이 總會親睦會를 갓기 爲하여 來十二月十一

日下午三時에 適當한 곳에서 會合을 하기로하다

下午四時——閉會

藝術院學術院諸規程

制定委員連席會議

一、日 時 禮紀四二八七年十二月二十日 下午二時

一、場 所 서울大學校總長室

二、參席者

高發東 朴鍾和 玄濟明 柳致眞 尹日善 李炳濤(藝術院事務局

에 崔洛久 閔丙坤 趙海山)

決議事項

1、學藝術院에서 國會에 提出할 文化保護法(母法)을 同一하게作

成할 것으로하다

2、藝術院 院報를 急速히 發刊하기로하다

3、學藝術院諸規程制定委員과 國會 文敎社會分科委員間의 連席會

를 新年初에 가질 것을 合議하다

4、文敎部當局에 出版映畫演劇人을 招請하여 政府機構改革에

따르는 諸問題를 協議토록 提議할 것으로하다

下午四時——閉會

藝術院諸規程制定委員會

第四次會議

一、日 時 禮紀四二八八年二月十八日下午二時

一、場所 文教部次官室

一、參席者

高義東 朴鍾和 玄濟明 尹孝重 趙演鉉(職員、李蒲庸、趙海山)

一、決議事項

1、大韓民國藝術院藝術賞規程의 起草委員으로서 玄濟明 尹

孝重 趙演鉉의 三會員이 選定되다

2、藝術院賞規程을 十日以內로 完了함과함께 諸規程制定委員

會를 召集하고 總會H字와 其他를 決定하기로하였다

下午三時半——閉會

第一回臨時總會

一、日 時 禮紀四二八八年四月九日下午二時

一、場 所 서울大學校 會議室

一、參席人員

高義東 朴鍾和 吳相淳 玄濟明 金東里 趙演鉉 張勃 李象範

金泰 成慶麟 柳致眞 徐廷柱 金煥基 尹孝重 曩濂 朴泰俊

李珠煥 吳泳鎮 安鍾和

以上 十九名(職員——趙海山)

一、決議事項

1、文化保護法改正案을 學術院에서 起草한것과달리 藝術院에

서 諸規程制定委員中の 趙演鉉 吳泳鎮 두會員이 專任起草

委員이되어 改正案을作成하여서 民議院文教分科委員長과 民

議院內 各交渉團體代表에 提出하여 國會에上程시키도록하다

2、藝術院賞授賞規程을制定하였다

玄濟明 趙演鉉會員이 試案한 藝術院賞授賞規定에 玄濟明

會員의說明이 있은後 條文의修正을 加하고通過되었다

3、學藝術院諸規程制定委員은 四月二十二日 外交俱樂部에 民

議院文教分科委員과 懇談會를 갖이기로하였다

4、藝術院機關紙를 早速히發刊함에 趙演鉉會員이 編輯担當하

기로 하다

下午六時——閉會

學藝術院諸規程制定委員 및

民議院文教分科委員連席懇談會

一、日 時 禮紀四二八四年四月二十二日午後六時

一、場 所 外交俱樂部

一、參席人員

民議員——金法麟 金宗奎 孫文暉 李宜教 李恒寧

文教部——文教部長官 高等教育局長 大學教育課長

藝術院——高義東 朴鍾和 玄濟明 尹孝重 金聖泰

學術院——尹日善 崔奎南 李丙濂 金斗諤諸氏의 發言을 略記하

면 다음과 같다

玄濟明氏 | 文教專門委員에게 文化保護法制定에對한經緯를 들었

음은 좋았읍니다

李宜教氏 | 政府가釜山에 있을적에 李在鶴氏議員이 當時의文教

分科委員長으로 있을적에 文化人에對한 優待方策을 講求하

여야겠다는 要旨로서 文教專門委員에게 草案委囑을하였다

現行文化保護法은 本專門委員이 草案한 그대로 無修訂으로

通過된 것이니 文化人의 保護에만 置重되었다.

李恒寧氏 | 學藝術院의 機關自體가 國立이나 私立이나 하는대

論이 많은데 當初에 草案한 사람으로서는 現民主主義社會에

서 可能的 範圍內에서는 國、公、私立의表現을 알아할려고

한데서 國立이라고 불이지 알아하였다 이點에對해서 未備

되어서 罪悚합니다

崔奎南氏 | 會員에게 若干額을주는 二、〇〇〇圓의 手當制를

廢止하고 國家에서 補助金으로서 研究其他文化發展에 供할

費用을 給與하여 援助하는것이 좋겠고 구래의 國家機關을

만드는데는 贊成안한다 國家機關에서 事務局長에 理事官을

두는것등은 若少한給料로서 勸務할사람을求하기가 쉽지 않

은일이다

李長官 | 學藝術院會員에對한 劇場 博物館 圖書館, 科學館等

文敎部所管에屬하는 機關에는 特別히 優待方針을 取하겠다

그러나 他部에所管에는 卽 交通部機關等에는 交通部에 折衝하기로 하겠다

學藝術院의 國立機關 如否에 對하여서 여러가지 方法으로

法制室에 提案하였으나 끝끝내 反對하고있다 한때國務會議

에 案을提示하였으나 도리어猛烈히 反駁을 加하니 포이사

람自身이 學藝術院會員이고하니 僻處地가困難하여서 그座上會

議를 中止하게하였다 申法制室長의 一言을 例舉하면 至今

學藝術院을 國家機關으로만들게되면 約百二十餘名이 國務委

員級으로 國家에서 優待를 받게되니 現行政府機構簡素化를

할려고 하는次에 事務局長을두게되면 國家公務員이 많이증

加된다

金法麟氏 | 다른外國은 어떤間에 우리나라의 現實情으로서는

國家機關으로하여 保護育成하여야 되겠다

金宗奎氏 | 主權者側에서 統一된案이없고하니 오늘 提示한案은

兩院에서 再次無議하여서 國會에提出하시오 오늘은 時間도

늦고하니 물러보내주시요하고 退場하다

金斗憲氏 | 나는 崔總長의發言에놀랐다 우리가 過去에 數次에

會合하여 定하여둔 原則에 너무나 個人的인 理想論을 主

張하여서 甚 遺憾으로 生覺한다

朴鍾和氏 | 藝術院에서提出한 試案은 藝術院總會에서 決定된것

이요 總會의意見を 無視못합니다 그리고 過去에 文總에서

본마도 있겠지만 事務職員의 給與等支拂하는데 隘路가 많다
그러나 事務職員에 對하여서는 國家公務員을 配置하여 處
을 줄안다

高義彬氏一兩院을 잘만드느냐 못만드느냐 하는것은 李長官과
金法麟委員長에게 있으니 잘 付託합니다

中華民國學者招待懇談會

一、日 時 禮紀四二八年五月十八日 正午

二、場 所 國際호텔

一、參席人 朱家驊 董作賓 溥儒(中國學者)의 學者와 學藝術院會員

尹日善氏로부터 우리學藝術院이 오늘날이 자리에 멀리 中華民國
에서 오신 權威있는 學者를 모시게 되니 無限의 榮光이라는 말씀
이 있었노

다음 董作賓 學者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었다 韓國의 著名한 學
者 藝術家와 한 자리에 앉게 되니 기쁘고 또한 이러한 機會
에 接하게 됨을 잊지 못할 名譽로 생각한다 라는 人事가 있는 後
中華民國의 文化發達史를 말하였고 現在의 中國文化의
位置와 나갈길 學者들의 生活과 覺悟를 말하며 韓國은 歷史의 으
로도 兄弟와 다름없는 나라이니 相互間에 文化交流에 努力
하기를 約束하고 時間關係로 退場하였다
一時五十分——閉會

第二回臨時總會

一、日 時 禮紀四二八年六月二十一日下午一時四十分
二、場 所 文藝部會議室

參席人

高義彬 朴鍾和 趙演並 金東里 裴源 張勃 金奎泰 成慶麟
吳相淳 安鍾和 李珠煥 柳致眞 李象範 金煥基 尹老重 徐廷
柱 玄濟明 朴泰俊 (以上十八名)

事務局職員—朴琦選 趙海山

決議事項

오늘의 會議는 第二回臨時總會로 하기로 滿場一致로 可決한 後 各分
科別로 術院賞授賞者를 審議한 結果 文學功勞賞에 朴鍾和
會員 音樂 勞賞에 玄濟明會員을 選出하였다.

美術分委에서는 棄權하였으나 徐廷柱會員 金聖泰會員 金東
里會員 諸氏의 再次審議를 要請하는 意見이 成立되어 再次
審議結果 高義彬會員을 選出하였다
또한 演說分委에서는 分科委員出席者二人으로는 選出키 困難하
니 總會에서 決定해달라는 依頼가 있어 趙演並會員의 總會
에서 投票決定하자는 動議가 徐廷柱會員再請으로 成立되어 投
票한 結果 柳致眞十四票 安鍾和二票 李亨杓一票 棄權一票로
柳致眞會員이 選出되다

各分科委員이 選出한 授賞豫定者를 總會에서 認準키爲하여 無記

名投票言行하結果

文學 功勞賞 朴鍾和 十六票

音樂 功勞賞 玄濟明 十五票

演藝 功勞賞 柳致眞 十六票

美術 勞賞 高義泉 九票

右四人中 高義泉會員은 投票數의未達로서 認準이否決되다

二次會定期總會는 禮紀四二八年七月十日下午一時 文敎部會議

室에서開催키로 決定하고 下午五時 閉會하다

第二回定期總會

日時 四二八年七月十日 下午二時

場所 文敎部會議室

出席會員 朴鍾和 安鍾和 孫在馨 柳致眞 成慶麟 金聖泰 金東

里 玄濟明 張勃 趙演鉉 吳泳鎮 徐廷柱 李象範 朴泰俊 金

東根

事務局側 朴琦遠 趙海山

會長不出席으로 副會長 朴鍾和氏 司會로 開催하다 前會議錄

을 趙海山氏가 朗讀하고 朴琦遠氏 經過報告가 있은다음 新

年度豫算을 趙海山氏가 說明하다

決議事項

一、藝術院賞 授與에關한件

藝術院賞 施賞을 藝術院會長이 授與하기로 決定하고 學術院

과의 折衝은 新任되는 會長과 副會長이 하자는 金東里氏勳

議가 金聖泰氏再請 張勃氏三請으로 可決되다

任員改選에關한件

司會로부더 新任會長은 實際로 活動力있는분을 選出하자는

要請이 있은다음 無記名投票로 會長 副會長을 따로 따로

選定하자는 金聖泰氏勳議가 金東里氏再請으로 可決되어 在席

會員 十四人이 投票하結果 朴鍾和 九票 玄濟明 四票 無効

一票로 朴鍾和氏 會長에 當選되다

다음 副會長 選舉에 있어 在席會員 十五人이 投票하結果

玄濟明 十二票 吳相淳 一票 張勃 一票 高義泉 一票로 副

會長에 玄濟明氏가 當選되다

一、各分科會長 選舉에 있어는分科會長에는會長 副會長은 除外하

기로 可決하는 各分科에서 定員出席치 않은分科는 出席한 委

員만으로 決定하지고 勳議가可決되어 分科別로 選出한 分科

會長은 다음과 같으나 美術分科會長은 次回로 選出키로 하고

下午 四時에 閉會하있는데 選定된 分科會長은 다음과 같다

文學分科會長 廉 尙 燮

音樂分科會長 朴 泰 俊

演藝分科會長 柳 致 眞

(詩)

煖

爐

朴 木 月

生活이 平和 單調한 것은

不幸한 일이다.

때로는 夢이 부어주는 잔을

藥이 편다.

가벼운 月給봉투……그만큼의 꿈을 갖자면 지나친 負

擔일 것이냐.

눈 오는 밤의

煖爐 가에서

가만한 旅程의 프렌을 짜면

등이 따뜻하다.

五台山 雪景은

過分한 虛欲

江華島 一泡길이 알맞는대로

때웠을。宿泊費를。간결한 旅裝을

九九는 九九대로

밖은 여전한 심한 눈……

오늘밤은 푸욱 자고……

요만한 꿈이 부른 生活의 희미한 빛에

慰勞를 安睹를

마음이 快해져

어딘에 처변 찬다。

자는 얼굴에 微笑가 깃드리라

아아

짜락

눈소리

戲曲 姉妹 五幕

柳 致 眞 作

一九五一年 여름 서울北方에서 國聯軍 한참 싸울때에 釜山 避難地에서 일어난 얘기
 나오는 사람들

聖 姬。 (戰亂에 貞操를 유린當해 精神的 打撃을 받은 인테리處女)

玉 京。 (그의 동생인 文學少女. 타이피스트)

詩人。 悅。 (聖姬를 敬慕하는 페시미스트)

社長。 金 大 石。 (王京을 사랑하는 활발한 青年實業家)

秘書。 高 君。

假字 아저씨。 (假字化粧品製造及販賣業者)

行 商 女。

醫 師。

私 娼 窟 主 婦。

其 他。 平。 (다부지게 쟁진 十七歲의 私娼窟使重)

看護員, 男女海水浴客, 娼婦들。

黑人。 이웃男女, 아이等等

場 面。

- 1, 避難民들이 물러사는 침침한 地下室. 저녁나절에서부터 밤까지.
- 2, 病院入院室, 二三日後 아침나절.
- 3, 海水浴場. 數日後인 淸明한午後.
- 4, 社長金大石의 應接室. 同日 밤.
- 5, 私娼窟, 聖姬의 房. 二三日後인 日曜日밤.

숙맥힐듯이 협잡하고 침침한 地下室。널판자等으로 瀟瀟히 칸을 질러 사는 避難氏 數世帶。

假字化粧品을 製造하는 假字아저씨, 호래비 長髮詩人 崔悅, 어머니의 爽廳을 모시고 있는 타이피스트 玉京等이 그들이다.

幕이 열리면 조그마한窓에서 새어나오는 저녁 여인 光線을 받아가며 假字아저씨。外國의 化粧品容器에 假字化粧品을

채우고있고, 그反對편 어둠침침한 구석에는 長髮詩人 崔悅, 自己의 冊上에 고개를묻고 업드렸다.

이윽고 化粧品 行商하는女子, 나터난다.

行商女。(들어서며 떠들석하게) 가짜아즈바니, 나, 화장품 좀 더 받아가야겠시요!

假字아저씨。(말하던 化粧品을 옮기며) 취. 자네까지 가짜 가짜 하몬 어떻게 돼?

行商女. 인자 됐취다.

假字아저씨. 기분이 단단히 났군 그래.

行商女. 글세, 이것 보라니까! (하고 들고온 가방의內部를 털어보인다.)

假字아저씨. 아이구 그물건을 다 어디다기 백였누?

行商女. 오늘은 더, 서면쪽으로 나가디 샅샅이 봤소? 어느집엔 들어갔더니, 거기가 바로 양公主 소굴이외다. 레 한에미나이가

자니깐 너도 나도 하고 막 달겨들어서 글세 호호호...

假字아저씨. 하하하... 그것 통쾌하다.

行商女. 이렇게 가짜가 판을 쳤으니 내레 떠들만 하잖소?

假字아저씨. 현메, 오늘 매근건 그보다 더 근사하지. 자아 (行商女の 코에다가 化粧品을 자랑스럽게 갖다 대준다.)

行商女. (말어보며) 아—니 이거 웬일이오?

假字아저씨. 이만하면 코오티 아니라 제할아버지도 맞 설수없지?

行商女. 데일이외다! 데일!

假字아저씨. 암, 그렇지! 그럼! 하하하... (떠들고 웃다가 인기척이 나니까) 쉬! (하고 出入口속을 지켜본다.)

玉京이 책보를 끼고 나타난다. 會社에서 退勤하는 길이다.

假字아저씨. (안심한듯) 음, 옥정이구나.

行商女. 되근하네, 벌써?

玉京. 이것 좀 봐요. 이거! (하며 자랑스러운듯이 책보에서 電報를 내 보인다)

假字아저씨. 전보 안야?

玉京. 언니가! 언니가 살아와요!

假字아저씨. | 죽었다던?

玉京. 어머니 살아계셨을때 여기 자주 들리던 김사장 알죠? 그이가 테리고 온대, 우리 회사로 이 전보가 왔어!

假字아저씨. (시무룩 해지며) 살아있으면 모두 만나게 되는구먼.

玉京. (마무구석에 모셔둔 이틀뿐인 喪廳의 휘장을 곁으며) 어머니, 어머니께서 잠시도 잊지 못하시던 언니가 어머니

를 비러 살아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나 상심하셨으니까, 하늘이 언니를 찾아보내 주시는거예요.

行商女. 정말 하달만 빨리 이런 소식을 들었어도 너무마님 애래워 돌아가지도 않았을께다.

玉京. (눈물만 슬쩍 씻는다.)

假字아저씨. 언제 땅는데?

玉京. 오늘 저녁 열시차. 열은 저녁지를 준비해야지요? (바쁜듯이 팔을 걸고울린다)

假字아저씨. 넌 참 좋겠다.

行商女. 정말!

假字아저씨. 오늘은 얼마나?

行商女. (손가락으로 數量을 表示해보이며) 이것만 달라요!

假字아저씨. 어떻게하나 만들어 놓은게 좀 부족한데...

行商女. 그럼, 내 나—께 지난 (저녁) 해먹구 가질라 오갔시요.

假字아저씨. 빙빙들 줌 모아다주게.

行商女. 그렇게 하시랴요 (하며 退場)

假字아저씨. 나두 위선 저녀부터 지어먹을까? (일하던것을 대강치우고 일어서면서 콧노래를 부른다 (애랑 애랑 에헤요 에헤

라 품마 잘한다)

玉 京. (그등안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수건을쓰고 총채와 비를들고 詩人 崔悅의房으로 가려하며) 아저씨, 선생님께서 언

제 외출하셨나요?

假字아저씨. (가르키며) 저기 있잖어?

玉 京. (그제서야 비로서 발견하고) 이크! 나 안계신줄 알고 소제부터 해드리려던 참인데 선생님! (하고 조심스럽게

불러본다. 그러나 대답이 없으니까) 주무시나봐.

(재로 대련 와이샤쓰와 접시에담은 洋과자와 冷茶를 詩人 崔悅옆에 가만히 갖다 놓는다. 잠이 깨면 먹으라는 것이다)

假字아저씨. 옥경이 그렇게 아니라 이번에 언니오거든 그만 결혼을 해버리렴. 피착에 독신이자 한집웅 밑에서 살겠다.

玉 京. (詩人이 들을까봐 도끼눈을 뜨며) 쉬!

假字아저씨. 안야. 국수만 해오면 다 어울려진 일이니까 하는소리야

玉 京. (아이 줌! (말문을 막으려는듯이 총채를 들러멘다)

假字아저씨. 아야야 인자 안 그러께.

玉 京. (총채를 도로 놓으며) 함은이나 젊은이나 남자들은 모두 나빠 이성에게 친절히 하면 그결 곧 이상야릇하게 해

석을 하고. 내가 선생님을 보살피 드리는건 다룬 아무런 뜻이 있는게안요 다만 선생님께서 되도록 틈을내셔서

훌륭한 시를 한편이라도 더많이 쓰시라는것 밖에—

假字아저씨. (일부러 玉京의 辨明을 無視하려는듯이 큰소리로) 야, 너 그늘찌개 끼리가 뭐야?

玉 京. (표죽하게) 몰라요! (洋과자를 상청에 차려놓으며) 어머니 오늘은 뭐든지 줌 싶건 잠수세요

호호호... (하고 웃더니) 가자아저씨, 이것봐요, 오늘아침 회사사에 나오는 길에 내가 아주 큰 망신을 했다는, 글세. 판복동 큰거리로 나오자니까 우리 언니가 앞에서 걸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웬일이냐하고 덤벼들어 언니! 하고 덤벼 앉았구로, 그랬더니, 그건 언니가 아니구...!

假字아저씨. 허자만 그대신 회사책상위에 그정보가 와있었던말이지?

玉 京. 골똥히 생각하면 하늘이 알아주시는거죠

假字아저씨. 나도 六, 二五에 잃어버린 내마누라는 어떻게 된거야? 왜날안찾아와? 우리마누라야말로 참 아까운데...! 천공도

종고 얼굴도 잘 생기고...

玉 京. 우리 언니야말로 참 인품이 좋지요. 명동거리에 나가온 안치어다 보는 사람이 없었으니 여기나라나면 이 지하실이 환해결결.

假字아저씨. 미인 단명(美人短命)이라! 에이 기막힌다. 슬병 어딴더라! (슬병을찾아들고) 애꾸진 슬하고나 씨름을 해야지 애처럼계나간다)

玉 京. (詩集을피들고 낭독한다)

오늘 하로도

헛되히 옛 추억을 안시고

두더지 도양 아아

소리없이 울었더니!

아아 인간이란 본시...!

詩 人. (아까부터 원고를 쓰고 있다가, 이때 고개를 들며) 우정어!

玉 京. 아이구 개성군요?

詩 人. 그 원구?

玉 京. 에그 선생님두! 벌써부터 책사에서 팔고있는게, 저자인 선생님이 모르고 계세요? (하며 詩集을 보인다)

詩 人。 망할것들! 출판하지 말겠는데……

玉 京。 좋은 시가 참 많던데 넓히 읽혀야지요.

詩 人。 시란 본시 광고할건 못 돼.

玉 京。 그래도 난 이 시집을 내준 출판사를 여간 고압제 여기지 않았어요. 아첨에 출근할때 이 책을 사가지고, 그새

한번씩 읽었는데 선생님의 시를 한편 한편 단편적으로 읽을때 보다 사상적 체계가 환히 서서 여간 감명적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이 시 같은건…… (하며 계속하여 랑독하려한다)

詩 人。 그만 두어!

玉 京。 예?

詩 人。 옥정이는 남이 제 창작틀 되집어보면 좋겠어!

玉 京。 그 무슨 말씀이세요?

詩 人。 시란 시를 쓴 그 사람의 피 묻은 내장(內臟)이야.

玉 京。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싫은것을 도대체 왜 흰종이위에다 쓰시나요?

詩 人。 옥정이는 매려운 대소변을 참을수 있겠어? 못참는지? 그와 마찬가지로 시를 쓴다는건 사람의 생리야. 그러나

나는 이런 배설물(排泄物)을 내 깔기지 않으면 안되는 내 자신을 경멸하고 미워해. 마치 제가 내드린 동소음을 미워하고 싫어하듯이……

玉 京。 ……모르겠는걸요.

詩 人。 그책이나 없애버려. (신발을 신는다)

玉 京。 선생님, 그것 좀 잡숫고 나가시죠. (아까 잤다놓은 冷茶와 洋과자를 가르킨다. 詩人 崔悅이 모르고 나가는데 안 타까운것이다)

玉 京 人。 (와이·샤쓰마저 發見하고) 이거 어느새 또 빠라 대려왔군! (不滿하듯이 玉京을 치어다 본다)

詩 人. (일어서면서) 앞으로 이런 신경을랑 쓰지 말아요.

玉 京. (와이·샤쓰를주며) 잘아 입고 나가시지요?

詩 人. 옥경이, 미안하지만 내 짐 좀 싸주어.

玉 京. 댕다가 왜요?

詩 人. 인간이 살지 안는때가 어딘지 좀 떠다니고 싶어.

玉 京. 이 세상에 사람없는 때가 어딴어요?

詩 人. 그런때가 없다면, 내스스로가 피해나가든지.

玉 京. 아니, 선생, 돌아가시겠단 말씀은 아니시겠쇼?

詩 人. 왜 그렇게 놀래? 산다는 그자체가 대단치 않은것 처럼 죽는다는것도 그다지 대단찮은거야.

玉 京. 부르짖다싶이) 안예요! 선생님, 안돼요!

詩 人. 좀 나갔다 오게. (退場)

玉 京. (얼굴을 짜고 돌아서서 느낀다)
(반찬거리를 싸들고 약간 비틀거리며 조금前에 돌아와) 왜 우니?

玉 京. (안타가히) 아저씨, 어떻게하면 최선생님을 좀 위로해 드려요.

假字아저씨. 내버려두어 저런 병에는 약도 없어.

玉 京. 허지만, 저 훌륭한 시인이없어지면 어떻게해요, 인간성으로나 재주로서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찾아 볼수 없는분인

테!

假字아저씨. 그전생은 내가 만드는 화장볼과 같은 가짜는 아니란 말이지?

그래, 가짜는 안야. 하지만 틀렸어.

玉 京. (날카롭게) 뭐가 틀려요?

假字아저씨. 배속에서 조르루 소리가 나는때도 꼼짝하지안는게 도대체——

玉 京。 그 계 바로 선생의 위대한 점이에요.

假字아저씨. (눈이 둥글해지며) 영!

玉 京. (自信있게) 도대체 인생이란 삶은 일을 해가며 살만한 가치가 있답니까?

假字아저씨. (벼락을 맞는듯이 두손으로 머리를싸며) 아이구머나! 가짜 화장품이나 만드러 먹고 사는 늙은 다 죽어라! 그

거지?

玉 京. 몰라요!

假字아저씨. 해해해... 너 그 멋진 소리 어디서 들었니? 최선생이 가르쳐주더? 좋아, 달도 좋고 님도 좋고 최선생도 좋

다.

玉 京. 약주를 자신계 안요!

假字아저씨. 에랑 에랑 에해요, 내가 내사랑가? 해해해... 하긴 이 늙은 호래비가 똥때문에 남을 속여가며 바다 바다 살려

는지 나도 몰라. (울분한듯이 맨드러놓는 化粧品을 쓰러 트린다)

玉 京. (부들며) 아저씨!

假字아저씨. (빼뚜거리며) 제에기, 마누라나 살았더면 고생할해도 고생안 보람이라도 있을텐데 (꽃물을 췌으며) 우경아 용서해

라. 받아들고와야 대작해줄사람도 없고해서 땃속에 넣고 왔다.

玉 京. 자아 여기 누어요. (하며 자리를 잡고 누인다)

假字아저씨. 걱정말아 내가 캐니 취한체해보는거지 실상은 조금도 아취해.

이때 行商女 급히 나타난다.

行商女. 우경아 왔다. 왔어.

玉 京. 뭐? 밤찬배 웬일이야?

(밤에서 자듯차의 크락손 소리. 와자지글한소리! 玉京 出入口를 뛰어나간다)

行商女. 아즈바니, 玉京이 언니가 살아왔지요. 날레 줌 나와 보라요!

假字아저씨. 그대.

社長 金大石의 秘書 高君 투명크를 양손에 들고 들어온다.

秘 書. 옥경씨의 방이 어느거죠?

行 商 女. 여기요. 아—니 기차가 정각보다 날래 닷수다레! (투명크를 받아 놓으며)

秘 書. 네 半時間이나—

社長 金大石 앞서고 그뒤에 玉京 거진 廢人이된 洋公主를 新婦위하듯 부축하여 들어온다. 그것이 玉京의 언니인 聖姬다. 이웃女子 아이등구경이나 남것처럼 뒤에 따라 들어온다. 玉京은 언니를 마무리에 걸터앉힌다.

聖 姬. (힘없는 눈으로 地下室을 둘러본다)

假字아저씨. (이상하다는듯이) 저 여자가가 바로?

秘 書. 예.

假字아저씨.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상한데... (行商女를 치어다본다)

行 商 女. 글세.

秘 書. (눈을 흘기며 뒤를 찬다. 行商女 움츠른다)

玉 京. 언니 방에 들어가서 옷이나 좀갈아 입우.

聖 姬. (玉京에게 案内되어 힘없이 방으로 들어간다)

秘 書. (社長の 눈짓으로 방문을 닫아준다)

假字아저씨. (金大石에게) 이거 웬 일이오? 옥경이 언니는 아주 참한 대학 졸업생이라더데...

社 長. 이난리에 저렇게라도 살아왔으면 뭘지요. 뭐.

行 商 女. 에그— 저 꼴 될려면 차라리 죽는게 낫다 나!

이웃女子를. (고개를 꺼덕이며) 그림.

社 長. (秘書에게 눈짓한다. 다 쫓아 내라는 것이다.)

秘書. 무슨 구경났소. 다 나가 주우. 자아 나가요. (求景하려 따라 들어온 이웃女子 아이들 쫓겨나간다)

社長. 워! (방문이 다시 열린다.)

玉京. (방에서 뛰어나오자, 마투구석에 고개를 치받고 소리를 짜며 호느긴다.)

行商女. 에이! (하며 기가막힌듯 혀를 끌끌 차며 나간다)

社長. (위로하듯) 나는 옥정씨를 위해서 한노릇인데, 언니를 데려와서 뭐, 잘 못된게나.....

玉京. 천만에요. 그래서 우는게 안예요. (하며 얼른 눈물을 씻는다)

社長. 그렇잖아도 온기전에 감사하다 말씀이라도——

玉京. 고맙습니다. 자장 정말 고맙습니다.

社長. (좋아서) 하하하..... 옥정씨에게서 고맙단 소린 난쟁이군. 그러나 실상은 이런 인사나 받고 언니를 데리고 온게안예요. 옥정씨가 하도 언니 생각을 한다가에 듣기에 딱해서 추천했게.....

玉京. 대관절 언니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렇게 신문 광고를 내고 수소문을해도 알 도리가 없더니.....

社長. 바로 그저께가보군 사업 관계로 서울갔다가 외국손님을 접대할일이 생기지안였겠어요? 그러나 서울시내는 아직

전두지구라 똑똑한 요리집도 없구해서 영등포 어떤..... 부끄럽습니다. 야, 양공주스집으로 가지 안였겠어요?

그랬더니 뜻밖에 거기에..... (하며 聖姬의 들어있는 房쪽을 본다)

玉京. 그런데?

玉京. 애초엔 나도 내눈을 의심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어딘지.....

玉京. (얼굴을싸며) 그만 두세요.

社長. 나도 기가 막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1가는 대학의교수요. 우수한영문학자의 따님이 저럴수 있는나고. (玉京 섣부

거리는 아랫입술을 깨물고 우름을 참는다) 그러나 이게 오늘날의 전체 우리네 현실인걸, 어떻게 합니까?

玉京. (호느끼며) 저렇듯 죽지 않고 살았으니 생명이란 무서운거군요?

社長. 그러나 이걸 보면 더욱 기가 막힐겁니다. (自己의 포켓에서 조그마한 약병을 내보인다)

玉 京。 (의심스럽게 받으며) 이게 뭔데요?

社 長。 기차칸에서 언니가 번소에 간 틈에 그의 핸드·백을 뒤졌죠. 그때 발견한건데 아주 지독한 독약 따니다. 이의 반만 먹

어도 그 당장에 뺨으러지는——

玉 京。 역시 자기의 신세를 비판해서 항시 추경의길을 더듬고 있었던거군요?

社 長。 그런 모양이죠.

玉 京。 그러니 저렇게 마를수 밖에——

社 長。 더 얘기해야 옥경씨의 가슴만 아파게해드릴뿐이니 나는 그만 물러 가겠소. 앞으로 무슨 어려운 일이 있길랑 제 발 기별해 주셔서, 내게 옥경씨를 도울 기회를 더 마련해 주시오.

고군 가지.

秘 書。 예。(하며 社長の 류령크를 들고 社長の뒤에 따라 退場)

玉 京。 (마루 끝에 힘없이 걸터 앉으며) 아저씨, 기때 우서야할일인지 슬피 물어야 할일인지, 나는 모르겠는걸요.

假字아저씨。 이번날리에 영영 무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뭘 그렇게 비판만 해! 언니는 젊겠다 약침대려먹으면 건강은

곧 회복될걸。(저녁밥을 먹을 준비를하며) 옥경이, 같이 좀 뜰까?

玉 京。 먼저 잡수세요.

假字아저씨。 (벽에 돌아앉아서 혼자 우물거리며 짝어 먹는다)

聖 姬。 (방안에서 소리만) 옥경아.

玉 京。 (방문을 열어주며) 좀 더 쉬지 않교——

聖 姬。 (방문턱까지 문기고 나오며) 아무리 진정을 해도 귀에서 기차지나가는 소리가 사라지지 않아.

玉 京。 너무 쇠약해서 그래.

聖 姬。 어머니가 안 되니, 쉰 일이나? 어디 비어리 나가셨니? 부산서는 피난민들이 죄 야미장사들을 해먹고 산다더니!

玉 京。 언니를 베리고온 아까 그 김사장한테서 말씀 못 들었수?

聖 姬。(어리둥절하여) 뭐?

主 京。난 어머니가 다 알고 있는줄 알았는데——

聖 姬。어머니의 신상에 무슨?

玉 京。……(대답을 못하고 어머니의 視線을 피한다)

聖 姬。어찌된 일이나? 왜 말이 없니?

玉 京。(가만히 일어서더니 喪廳의 휘장을 걷는다)

聖 姬。뭐야, 그게?

玉 京。(옷대에 불을 밝혀준다)

聖 姬。(위패를 읽어보더니 도로혀 멍해지는듯이) 왜 그 모양이?

玉 京。어머닌 어머니를 생각하셔서 허구헌날 밤이면 꼭 기도로만 새우셨어. 지금부터 달포전 하로 새벽에 업던채로 그만——

聖 姬。아야, 어머니! (하고 러 업뜨어느진다)

玉 京。(습학하며) 두형제 어머니앞에 이렇게 나란히 앉았으니, 어머니 부디 저승에서라도 마음을 놓으세요.

聖 姬。어머니 어머니! (하고 여전히 운다)

玉 京。어니 그만 우두. 그만 우두 그만!

聖 姬。호호호……(갑작이 쓸쓸히 웃으며) 오냐, 안 우마. 천대 너는 왜 우니? 사람이 나면 운당 죽기 마. 이라는게.

玉 京。넌 왜 울어?

聖 姬。(눈물을 권우며) 내가 왜 울어?

玉 京。(다시 떼죽거리며) 아야, 어머니!

(話題를 돌리려는듯) 천대 어니, 一四후퇴에 우리 둘이 어머니의 양팔에 매달려, 뽕뽕이 밀리는 피난민 들에서 한강을 건너 영등포까지 왔을때, 갑작이 사람의 사대에 골짜기처럼 우린 죄 쌓여지지 않았서? 그래,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

聖 姫。 가깝으로 일어나, 아무리 소리쳐 「어머니! 어머니! 해도 사방에서 어머니를 찾는 소리뿐! 누구의 소리가 누구의 소린지 알수가 있디? 그러는 동안에 내옆의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피난민사태에 추물리고만 있다간 적군의 대포앞에 떨미를 집히고만다고, 산길로 빠져 가자더구먼. 그때 나도 그뉘를 따랐지. 그랬더니 지름길로 접어든다는게 먼 길로 들었던 모양야. 이거 큰일났다고 혀등대는 두압에 그만 오랑캐놈들에게 사로잡혀, 남자들은 선 자리에서 총살당하고 녀자들은 늑들에게 고투려——

玉 京。 그래 어떻게 됐어?

聖 姫。 (생각마해도 지긋 지긋하다는듯이 발악적으로) 아아, 더묻지 마아! 지긋지긋해! (머리를 싸고 호느낀다)

玉 京。 (꺼안으며) 아아, 불쌍한 언니!

우리 암말 말고 서로 의지하고살다가 서울이나 완전수복되결랑 어머니 모시고, 올라가 미아리 아버지 산소옆에 나란히 묻어드리고 어머니의 일상 소원도 그거였으니까——

聖 姫。 아아, 그때 왜 그만 죽지않고

玉 京。 언니 시정할테니, 우리 저녁이나 먹지 (하며 언니에게 울 機會를 주지 않으려는듯이 획 일어선다)

聖 姫。 내 가방 이리다고

玉 京。 튜렁크를 들어드준다)

聖 姫。 그 가방 열어라.

玉 京。 (열시 시키는대로 한다)

聖 姫。 그안에 위스키 먹다 남은것 있을게다. 그 내라

玉 京。 (책망하듯) 언니!

聖 姫。 일른 내달라니까!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채간다. 가방에서 위스키를 꺼내여 꺼구로 들리키려한다)

玉 京。 아이구 그몸에 그 특한 술을! 언니, 해로. 이리 내요. (하며 술병을 채가려한다)

聖 姬。 (손으로 막으며) 해로우니까, 들어 키는 거지, 이로울 바에야 미쳤다고 입언을 대겠니? (하며 기여히 마신다)
玉 京 아이구 아저씨! (하고 後援을 청한다)

假字아저씨。 (聖姬에게 말을 부치려하며) 저어——

聖 姬。 이 늙은이 누구야?

假字아저씨。 나 역시 서울서 온 피난민인데! 여기서는 가짜아저씨라고들 불려요. 우경이가 자어준 이름야 우리가 이렇게 한 식구로사는 동안에 어느새 내가 이방안 아저씨가 된거지, 하지만 진짜 아저씨가 아니니까 가짜라는거지, 결코 내가 가짜화장품을 맨다고해서 가짜가안야 그렇지 우경이?

聖 姬。 (술잔을 내밀며) 진짜고 가짜고 한잔!

假字아저씨。 (종아서) 해해해……

玉 京。 아저씨 혼자서 그만 다 비어 버리슈。

假字아저씨。 (귀가 번듯하여) 뭐? 정말 (하고 병을 빼았으려한다)

聖 姬。 안돼! (하며 잔에 하잔만 쳐주고, 自己는 병채로 (나팔을분다)

玉 京。 (걱정 스러이) 언니! (하고 병을 빼았으려한다)

聖 姬。 왜이래 이제집애가 (玉京을 밀쳐 버린다)

玉 京。 (나가 떨어진다)

이때 詩人 崔悅 빈 가방을 들고 나타난다。

玉 京。 (달려가서) 선생님, 아까말씀드린 내 언니가 살아 오긴 했는데, 저렇게 자포자기예요. (두약병을 띄며) 이런 약까지 가지고 다니구 제발 저 술병을 빼앗어 주세요。

詩 人。 (약병과 聖姬의하는 모양을 견주어보더니) 해해해…… 꽤 멋진 여성인걸

玉 京。 선생님까지 우리 언니를 조소 하는거요?

詩 人。 조소가 뭐야?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인간의 자련대……

玉 京。 여자가 술에 취해서 저렇게 된게?

詩 人。 사람에게 생각는 두뇌가 있는 이상 누가 바른 정신으로 이 현실을 보겠어? 피변으로 생각지 말고 내버려 두어요。

(가방에 짐을 쟁겨넣으려 한다)

玉 京。(가방을 빼아스며) 떠나시드래도 언니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詩 人。 내가 할수있는 말은 더 독한 술을 제발 더 많이 드려키라는거야。 그런소리할하면 되려 옥경이의 기대에 어그러지

지 않겠어? 그러니, 바쁜사람 추석거리지 마아

聖 姬。(빈술병을 내던지고 핸드·백속을 휘저더니) 아이구머니, 이게 어디 갔어? 옥경야, 이리 오너라。

玉 京。(不安한듯) 왜? (하며 가까이 간다)

聖 姬。(똑바로 쓰아보며) 이년 배년이 이 헨비·백에 손땀지?

玉 京。(눈이 둥글해지며 당황하여) 아, 아니!

聖 姬。(큰소리로) 거짓말 말아! 하로 이틀이 아니고, 허수한날 내생명과같이 위하던게 배 집에서 없어 졌으니 배년이

왜빈게 아니고 뭐냐?

玉 京。 도대제 된데?

聖 姬。 이안에 넣어 두었던 약병이야。

玉 京。 언니 그 약병을 찾아서 뺏으려고 그러우?

聖 姬。 건방진년! 나야 뺏하던。

玉 京。 설마 그 벽안에는 약을 언니가 먹으려고 그러는건 아니겠지?

聖 姬。 살아서 보람있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玉 京。(얼씨 冷철해지며) 그러나 날카롭게) 언니! 언니에 생각 까지가 그렇게 썩어 빠졌다면 난 언니를 경멸하우。

聖 姬。 아플로 내가 여태 죽지않은건 육체에 대한 더러운 애정때문이였어。 그리운 어머니나 한번 뵈우고 죽었으면 하
는게 내 유일의 희망이었던 말야。 그 희망마저 싹 없어진 이마당에 내가 살아 뭘해? 내겐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主 京。 언니의 정성은 알겠어. 하지만 언니의 동생인 이 옥경이가 아직 언니의 눈앞에 살아 있다는 사실도 좀 생각해 줘
聖 姬。 이 세상에선 천대와 지옥과 비난의 대상인 이런 양갈보가에게 무슨 의지가 될단 말이나? 나를 기다리는 건 죽

엄 밖에 없다. 그 약병을 내랴 얼든!

主 京。 (탄호허) 없어졌어.

聖 姬。 뭐?

主 京。 팔매질쳐 버렸어

聖 姬。 어디다가?

主 京。 저 바깥 담넙에다가.

聖 姬。 (두 눈에 눈물이 짙 솟으며) 에이 옥실할년 같으니라구! 날 살려 내 망신을 더 못시켜 이러냐? 이런 착륙

한악질! 도대체 네같은 년이 사람이냐? (하며 食刀를 찾아본다)

主 京。 아아, 선생님! (하고 구원을 청하는듯 몸을 의지한다. 이때부터 地나뿔의 떠들석한 소리에 놀래여 行商女와 이

웃女子 기웃거리린다.)

詩 人。 (찢 싸던 손을 멈추고 아까부터 聖姬를 바라보며 섰더니)

여보세요. 이렇게 발버둥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수있겠소? 인간의 피로움이란 개개인간에게 있는게 아니고, 인
생 차제에있는게요. 당신하나가 떠든다고 전체 인생의 피로움이 가서 지는게아니오.

聖 姬。 이게 어디서 생긴 뺨다구야? 네년의 서방놈이나?

主 京。 아이 망칙스러워!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시인이야.

聖 姬。 그래서 힐는소리를 마구 하는구나. 도대체 인생이 나한테 무슨 상관야? 그런 덜 되어먹은 소린 내겐 통하지않

어! 네소리에 속아서 내가 더 살아 즐상 싶어?

詩 人。 이렇게 흥분만 할게 아니고 냉정히 앉아서 나하고 얘기나 좀 해봅시다.

聖 姬。 사람의 자식하고 애기를하느니 소귀에다가 경이나 읽으래。

詩 人。 (참지못하여) 똥이! (하녀 聖姬의 땀을 갈긴다)

玉 京。 아!

聖 姬。 이자식 냉큼 내쫓아라... 안 쫓아낼레냐? 좋다! 내가 나갈테다。

玉 京。 (부들며) 언니!

聖 姬。 봐라! (뿌리치고 退場)

玉 京。 선생님 언니를 좀——

詩 人。 (침묵에 사로잡혀 動지않고있다) 뒤를 따라요!

玉 京。 언니!

詩人과 같이 玉京도 聖姬의 뒤를 쫓아 나간다。

行 商 女。 (바라보며) 예구 옥경이가 데려 애무단지를 만났수다데。

假 字 아저씨。 살아 온다는 것도 문젠데!.....

行 商 女。 날래 물건이나 쟁겨 달라고 내일은 새벽부터 팔러 나가야갓수다。

假 字 아저씨。 그래。(하고 마루에 올라앉으며 아까만들어놓은 化粧品을 세어주기 시작한다) 하나요, 들에, 셋이면 넷이라.....

假 字 아저씨의 세는소리에 舞臺 어두어지며 두사람을 실고

二、三日後 아침。

釜山市內 某病院 入院室內。

醫師、寢台에 잠든 聖姬의 맥을 짚고 앉았고 玉京 社長 金大石 看護員等

各各 適當한 자리에 진정하여 섰다.

醫師. 다른 증세는 별로 없고 바다에 투신해서 고민하는 동안에 잔 바다물을 과도히 천탕이겠쥬. 위장에 약간 고장이 생겼을 따름입니다. 잠이 이렇게 깊어 든것을 보면 입원후로 신경은 다소 진정된 모양이구요. 별 걱정 마세요. 이만 정도면 곧 퇴원해도 좋습니다.

玉京. 고맙습니다.

社長. (玉京에게) 정말 불향중 다행입니다 그러.

醫師. 자아 그럼.

醫師. 나간다. 看護員 따르다.

社長. 옥정씨, 얼마나 놀랐어요? 나도 신문에서 보고 이르, 그에 저를렸고나 했답니다.

玉京. 신문에 까지?

社長. 어느 신문인지 한구석에 조그마케 비쳤더군요. 미인투신자살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명을 건진걸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玉京. 그러나 앞날이 두려워요. 핸드. 맥에 그 약을 간직하고 다닌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언니가 자살을 계획한지는 하로 이틀이 아닌게 아녜요? 이번엔 실패했다고 단념할 리는 없어요. 퇴원 하더라도 말성일꺼예요

社長. 정말 걱정이요. (깊이 생각더니) 옥정씨 이렇게 하면 어떨까?

京。 편데요?

社 長。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과거에 피차에 허물없게 지내왔던 까닭입니다. 금방 선생님께서 퇴원을 시켜도 좋으나 오늘이라도 언니를 동래 내 처소로 옮기시다. 집은 좋지 못하지만 추위가 한적하고 방의 여유도 더러있고……

京。 글세요.

社 長。 옥경씨는 장사치의 비무한 소리로 알든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인은 이 사회의 모든 현상을 으레 경제적 관점에서 위에서 봅니다. 언니의 염세증도 말하자면, 생활고에서 오는 겁니다. 언니에게 물질 생활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해드린다면 언니의 인생관은 백팔십도까지 책 변해지진 않는다 치더라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京。 언니를 위해선 그렇게 하는 게 좋을는지 모릅니다만, 제 입장으로서는 수락할 수가 없어요.

社 長。 왜?

京。 김사장이 전자에 제게 결혼신청을 안했더라면 물으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은 후 한집에 있다는 건——

社 長。 나는 결코 옥경씨에 대한 결혼을 강요하려는 수단으로 이런 문제를 내거는 건 안요. 결혼은 그당시에 옥경씨께서 딱 거절했기 때문에 난 이미 단념했을 뿐 아니라, 쑥스럽게 그런 문제를 그때 제기 했 때문에 피차에 어색하게 될 결 되려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요.

京。 그건 잘 알아요.

社 長。 그렇다면 굳이 거절할 까야……

京。 제 기분이 허락지 않아요.

社 長。 말 마십시오. 옥경씨는 장사치는 언제나 거짓말을 해먹고 사는 인간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젠 또 무슨 모략이나? 하고 날 경계하는 거요.

京。 절대로——

社 長。 그렇잖아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언니도 언니지만 이 二,三日 사이에 옥경씨도 여간 수척해지지 않았겠는걸.

玉 京。 더구나 내 걱정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社 長。 하하하…… 그럼가요. 하여튼 이만큼 말씀드리고 가겠으니 잘생각해서 꼭 오도록 하세요. 언젠든지 난 모실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社 長 金大石 조심스럽게 退場。 玉京 전송하려 나간다. 舞臺에는 곤히 잠든 聖姬뿐! 聖姬, 피롭게 숨을 쉬거나 호느끼 운다. 玉京 金大石을 보내고 다시 나타난다。

玉 京。(들어오다가 추춤서서 聖姬의 호느끼는 소리를 듣고 감쩍놀래) 뿔이 분해서 저렇게 이를 바드득 거릴까? (혼혈며) 언니! 언니!

聖 姬。(깊은 숨을쉬고는 눈을 번히 뜨며) 아아, 육살할! 육살할 자식!

玉 京。 누굴 보고 이러우, 언니?

聖 姬。 가만 내버려 두어줬으면 지금쯤은 속절없이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말았을 때…… 그 자식은 왜 날 구해 줬담!

玉 京。 또 최선생의 육이군。

聖 姬。 옥경이, 말해 봐. 그 작자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적이 졌대?

玉 京。 언니에게 무슨 험의가 있으면 왜 제 생명을 내걸고 물도 아니고 과도도 센 캄캄한 밤바다에 뛰어들었수? 그

聖 姬。 선생이 모험을 즐기는 활극 배우만 말요? 정신나간 미치광이만 말요? 실상은 그이는 험도 뻔뻔이 못 치신다우

玉 京。 그렇잖으면 마치 도마위에 잡아다놓은 생선처럼 왜 날 에다가얹어놔?

聖 姬。 언니를 지극히 애끼니까 그렇지。

玉 京。 뭐? 사람 웃기는 나. 날 두번만 애겼다간 팔자에없는 여왕으로 떠받치지않겠나? 뚝뚝히 들어. 날 정말 애끼는

건 날 죽여주는게야. 날 죽여, 지옥 가마솥에 처넣어 이 육신을 그 자체도 없이 녹여 버리는거야. 그런 최선생 해주진 못할망정 죽게된 사람을 살리다니 이게 무슨 심술이람! 앞으로 그자더러 절대로 내 앞에 비치지 못하게 해라. 그자의 쌍둥만 봐도 이게 구역이난다。

玉 京。 언니, 그 선생님의 애쓰신 일을 결코 그렇게 악의로 해석하지 마요. 그이는 우리나라 시인 승에도 가장 약심적

이제 가장 순수한 분야。」

聖 姫。 죽으려는 사람의 심정도 이해 못하는게 사인이야요.

玉 京。 시인은 반드시 사(死)의 찬미자래야 되나?

聖 姫。 말마따. 문학하는 것들이란 모두 남의 불행을 행락하는 냉혈동물(冷血動物)들이라더라.

玉 京。 사실은 그 선생의 지는 구구절절이 생(生)을 부정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있어. 하지만 인생을 저주하는건, 생을

聖 姫。 아쉬워 하기때문이요, 생을 아쉬워하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는게 아니겠어?

玉 京。 너 그자의 두던 하는구나.

聖 姫。 두던이 아니라 사실이 그런걸.

玉 京。 말마라. 내가 젊고 이쁘니까 그자가 너한테 야심을 먹고 있는거야. 그 때문에 물에 뛰어들어 애꿎은 날 건져낸

玉 京。 게다. 마치 네게서 찬사를 듣기 위해서 일부러 날 데리러온 김사장인가 하는 사람처럼……

聖 姫。 아이, 기막혀! 선생님을 무슨 장사치로 아나봐.

玉 京。 눈쟁이놈들의 배속은 내가 더 잘 알아. 사내란 동물은 인투접을 쓴 악마들이니까.

聖 姫。 하지만, 언니, 최선생님은 자기가 며칠을 굶어도 먹기 위해선 손끝 발끝도 까딱하지 않겠다는 신조였어. 그런 선

聖 姫。 생이 가려든 여행도 가지않고 지금 부두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있어, 언니에 입원비를 버일려고

玉 京。 내 입원료를 버일려고?

聖 姫。 저 먹을것들은 누가다 사왔기에?

玉 京。 (머리맡에 있는 깡통을 치어다보며) 이걸 다 그자가?

聖 姫。 암 그것뿐인가? 배에서푸는 무거운 짐짝을 저내리노라고 둥가죽이 뻗겨져서 손도떨수없을만큼 썼다누. 그러도 한

玉 京。 분이라도 더 버일려고 밤일까지 해.

聖 姫。 (이상하다는생각에 사르 째힌다)

玉 京。 그이가 설사 무슨 다른 야심으로 이런짓을 한다 손치더라도 이심속한 자기 희생을 물은체한다면 언니는 정말

벼락을 맞을꺼유.

聖 姬。 아무래두 믿을수없다. 날 위로시킬려고 배가 뱀니 꾸며 매는소리다.

玉 京。 아이 기막혀서——

聖 姬。 이 야박한 세상에 남남끼리 무슨 그런 회생이 있을수 있단말이냐?

玉 京。 (화가나서) 아이 우기기두 자아. 약이나 먹우. 시간 뵈어. (藥매일 추비를 한다. 이때 조심스러운 노크소리 도어

에서 들린다) 들어 오세요.

詩人 崔悅 登場. 지드른 勞勤服을 입고 손에는 食料品 醬滷과 종이에 싸 꽃을 들었다.

玉 京。 아이구, 선생님, 열마나 고단 하세요?

詩 人。 (들어오기를 추저하며 문께서) 자아, 이것! (사은 물건을준다)

玉 京。 (언니에 눈치를 보며) 괜찮어요 들어 오세요. 정말이에요.

詩 人。 (사들고 온것을 슬그머니 한구석에 숨겨놓으며 들어온다)

玉 京。 아이구머니 웬걸 또 이렇게? 이 꽃! 아이 꼬아! 천니, 이 새빨갈꽃! 정신이 산듯 들쥬? (꽃을 聖姬에게

보인다)

聖 姬。 왜 이렇게 까부니? 그곳이며 醬滷 이방에 들여놓지 마라. 여태까진 모르고 먹었지만 알고서야 어떻게……

玉 京。 선생님 언니가 선생이 약해서 패니 저래요. 언짢게 생각지 마시고 더운데 옷저고리나 벗으세요 (옷저고리를 베

긴다)

聖 姬。 (화가나서) 옥경아! (하고 소리지른다)

玉 京。 아이 참 약해서! 날 못믿겠거들랑 선생님의 이 어깨를 봐요. (샤쓰물건어 시뻘겟게 벽여진 어깨를 露出시킨다)

詩 人。 (창피하다는듯이) 옥경이!

玉 京。 아이 끔찍스러!

聖 姬。 (기가 막힐듯) 응!

(同時에)

玉 京。 이 기막힌 현실을 모르고 선생님께 그런 실패의 소리만 하면 언니는 정말 난 속어버려! (들어서서 느낀다)

看護員。 (도아를 열고 나타나서) 아래층 회계에서 잠깐 내려오시래요。
玉 京。 (눈물을 얼른 씻으며) 예。(하고 看護員을 따라 나간다)

詩 人。 (聖姬와 단들이 앉은게 열적은듯이 자리에서 일어서 피해 나가려한다)

聖 姬。 잠깐!

詩 人。 ? (주춤 발을 멈춘다)

聖 姬。 대관절 뭘때문에 내 털미를 짚어 바다에는 뛰어 들었소? 역개가 그 지경이 되도록 노동은 왜 하고...

詩 人。 글세... (하고 생각한다)

聖 姬。 글세라니? 자기가 하기도 글세요!

詩 人。 (말을 못하고 망서릴뿐이다)

聖 姬。 여태 익자는 남은 커녕 제 자신을 위해서도 손끝하나 까딱 해본적이 없었다며요? 그런데...

詩 人。 이번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 말요?

聖 姬。 정말로 내가 왜 이런짓을했고 또 하고있는지 내자신도 모르겠소. 그러나 구태여 그 이유를 켜다면, 뭐라고 말을

詩 人。 해서 좋을는지... 내자신을 위해서라고 할까요?

聖 姬。 자기 자신을 위해서?

詩 人。 예。

聖 姬。 어째서?

詩 人。 ...당신이 속지 못해 발버등 치는걸 보고 그 발버등치는 자태속에서 난 내자신을 발견했거든요.

聖 姬。 그 무슨 소리람.

詩 人。 그동안 나도 꽤 여러번 축을려고 소동할 피었더랍니다. 그 때문에 친구에 해도 더러끼치고 경찰의 신세도 졌지

詩 人。 요. 그러나 그때 그건 내자신이 행하거니까 내가 내자신의 자태를 볼수 없었소. 그러다가 이번에 남이죽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양을보니 그게 바로 내자신의 모양인것 같았소. 그때 난 나도 모르게 바다물에 뛰어들었죠. 그건 마치 우리가 뱀을 얻어 맞을때 제도 모르게 손으로 막는거나 같은게 아닌가 싶소.

聖 姬。 호호호…… 참, 우스운 이론도 다 들겠네.

詩 人。 이게 무슨 착각인지 모르지만, 지금 거기누는 당신도 꼭 내자신 같이 느껴져요. 당신이 아프다면 내가 아픈것 같고 당신이 괴로워하면 나도 괴롭구……

聖 姬。 ……

詩 人。 나는 이게 소위 애정이라는게 아닌가 생각도 해보았소, 그러나 그것도 아니요. 내 심회는 그런 혼해빠진 통속적인 말로는 도저히 표현될 수없소.

聖 姬。 그러면 그쪽에서 애쓰는 대신에 내게선 바라는건?

詩 人。 아무것도 없소. 살아 달라는것 밖엔.

聖 姬。 그것분야?

詩 人。 제발 살아주세요. 내가 내자신을 위하듯이 나도 성희씨를 위하고 싶기겠소. 사람이란 자기를 위해선 살 가치가 없는거지 단 자기 아닌 타인을 위해서는 살 수 있는것이란 말의 뜻을 인제야 나도 알았소.

聖 姬。 임자는 내가 어떠한 여잔지 모르는 구려?

詩 人。 잘 압니다. 一四 후퇴때에 가족과 헤어져 방황하다가 적군 한테 사로 잡혀 그들의 야욕의 대상이 되어 있던차 유엔 군이 밀고 올라가자 더럽혀진 육체를 비판하여 죽지 못해 사창굴에 몸을 던졌죠?

聖 姬。 어떻게 그렇게 자서히?

詩 人。 전투지구에서 지금에야 살아나온 여성이니 알아볼수 있는일 아니에요.

聖 姬。 그런데도 어떤사람을 섬기고 살아요? 내 살은 썩었다 계다가 구덩이까지 옥실 거리는데…….

詩 人。 그러나 당신의 거룩한 순정만은 살아있소. 마치 돌아나는 새싹과 같이 그가슴 깊이 고개를 들고있소.

聖 姬。 날 모두 하는 거요?

詩 人。 사회씨에게 자살할 생각이 난 그것이 바로 사회씨 가슴속에 순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그순정마저 없어지면 사

람은 죽을줄조차 몰은다오

聖 姬。 나가요. 남의 모욕 그만하고 나가 줘요!

詩 人。 예. 나가죠. (이러서 나가려한다)

聖 姬。 가만!

詩 人。 (추츄한다)

聖 姬。 (더큰소리로) 나가요.!

詩人 崔悅 浪場

聖 姬。 순정이 살아있어 죽을 생각이나는 기라고? 호호호... (하고冷笑하다가 문득 무은 생각에 잠긴다) 정말 그럴는

지 모를일이야, 아주 색어빠지면 그런 생각조차 없을테니까—

노크 소리 나더니 玉京 登場

玉 京。 (室內를 둘러보고) 아이구, 벌써 가셨네! 선생님 언제 가셨어?

聖 姬。 지금 막.

卍 京。 또 말 다듬는 하였군!

聖 姬。 좀 불러드려라.

玉 京。 응? 선생님을? 왜?

聖 姬。 글세.

玉 京。 그래. (급히 나간다)

聖 姬。 (혼자말로)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 하고는 생각이 아주 다른—

玉 京。 (다시 나타나며) 안되는데, 벌써 가버렸나봐.

聖 姬。 저꽃, 꽃병에다 꽂아 두어라.

玉 京。 웬 일야! 아간 보기 싫다더니...

聖 姬。 (머리 말에있는 冊을 들어보며) 이게 그 사람의 시집이었나!

玉 京。 그럼.

聖 姬。 어디 뭐든지 한권 읽어 봐 그 가운데에서...

玉 京。 (冊을 펴물고 읽기 시작한다)

을밤아! 光明에 눈 어두운 을밤아!

너 不具라 서러워 말라.

본시

暗黒은 永遠!

光明은 須臾!

暗黒을 보기에 너의눈 밝았으니

차라리

光明밖에 못 보는 인간의 눈을 나는

애달아 하노라!

聖 姬。 끝 구절을 한번만 더——

玉 京。 광명 밖에 못 보는 내눈을 나는 애달아 하노라.

聖 姬。 뭐지, 내게 어떤 계시(啓示)와 힘을 주는것 같어.

玉 京。 (황홀해진 언니의눈을 자서히 되려다보며) 호호호... 언니의 안색이 달라졌어.

聖 姬。 (열적은 뜻이 自己의 얼굴을 만져보며)... 미친 제집애두!

玉 京。 (거울을 보며) 내가 거짓말 하나 이 거울을 되려다봐요. 아까간신 두눈에서 까스분 같은 신경질이 막 풍겨나오

더니 호호호... 이젠 그불이 꺼졌는걸 뭐. 언니, 제발 일로부터는 그이를 미워만하지 말고, 가까이 좀 사귀여봐요

연년 꼭 무슨 구월을 받을테니까. 나도 一四 후퇴때에 어머니를 모시고 이 부산 땅에까지 왔을적인 때마침 겨울 중에도 그중 추운때라 잘래야 잘래고 배에선 쪼르락 소리! 우르러 하늘을 봐야 캄캄하고 급히 땅을봐보의 지할데없어, 당장에 목이라도 매는 길 밖엔 없었어. 그때 우연히 어떤 잡지에 난 시를 한번 읽었는데, 그게 바로 선생의 시가 아니겠어. ! 나는 그시를 읽고 어떤힘을 얻었어, 그내용인바야 세상을 저주하고 부정한것들뿐이었는데, 그 저주와 부정이 찬미와 긍정보다도 오히려 내 가슴을 더 깊이 뒤흔들어 주겠지. 마치 바위를에 파고 드는 나무 뿌리와 같이. 이 쓸아린 피란사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명랑한건 전혀 그 선생의 덕분야.

玉 聖 京 媛. 열마후 김사장이 추천해주는 지하실제로 읊겼더니 그때 그선생이 거기 살고 있겠지. 애초에는 누군지도 모르고

저런 피짜도 있을수 있나하고 문제시도 하지 안했지. 그랬는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소개를 받고보니 그이가 바로 최선생이 아니겠어?

玉 聖 京 媛. 정말 나는 내눈을 의심했어. 그런 위대한 시인이 어찌 우리같은 것들하고 같이 될수 있나 하고.....

玉 聖 京 媛. (잡작이 손에끼 반지를 때주며) 애 옥경아 이것을 처분해서 퇴원할 준비를 해라.

玉 聖 京 媛. (의아하여) 웬 일이냐?

玉 聖 京 媛. 벌써 회계를 마치고 데려 병원에서 이처럼 거스를 돈을 받았는걸! (한며 하용치의 紙幣을 내 보인다)

玉 聖 京 媛. 금방 아래층 회계과에서 오래서 갔더니, 최선생이 입원료를 맥겨줬었다.

玉 聖 京 媛. 저런! 그처럼이나?

玉 聖 京 媛. 부산을 떠날 준비를 하시더니, 아마 그 노자해놓았던건가봐. 그리고 아까 문병 왔다가간 김사장도 이렇게 금1봉을 내놓고갔구.....

玉 聖 京 媛. 네 추위에 있는 남성들은 어찌면 이렇게도 착하냐?

玉 聖 京 媛. 모두 언니의 복이제 뭐.

玉 聖 京 媛. 안냐, 네 덕이야.

玉 京。 언니, 이남어지 돈 가지고 최선생 모시고 우리 바닷가에 갈까? 지하실은 너무 답답하고 침침하니까。 나 회사에

서 휴가도 얻을수 있어。

聖 姬。 (미소를 지어보이며) 그래볼까?

玉 京。 자아, 언니! 일어나요! (聖姬를안아 이른다)

玉 京。 서둘러 聖姬의 옷을 가라입히는 동안에 舞臺 어두어지며

1 廻 轉。 1

3

海水浴客들이 그다지 많이 끊지 않는 한적한 바닷가 모래밭,

玉京과 聖姬 詩人 崔悅과 더불어 캄평하는곳。

소나무 가지에 그네. 그밑에 詩人 崔悅이 超居하는 名目만의 安樂椅子 바위틈에 꽃아놓은 冊들,

한구석에 聖姬와 玉京이가 자는 아담한 天幕。

줄에 널린 빨래。

以上 三人共同의 캄평生活은 한幅의 아름다운 그림과같이 展開되었나。

舞臺가 밝가지면 한구석 바위우에서는 나시질하고 어떤 젊은 男女 한쌍, 詩人崔悅은 天幕옆에서 불을피워가며 커
피를 그리고있다.

뽕뽕거리는 發動船소리 먼바다에서 한가롭게 들린다.

이윽고 새우를 잡아담은 그릇과 호미를 든 海水浴服의 玉京나라난다.

聖姬 그뒤에 따랐다. 모두 맨발이다.

玉 京。 (들어오며 쾌활하게) 선생님 미안합니다.

詩 人。 저녁밤은 옥경이 차레니까 피장과장이지 뭐。(하며 빈강릉 셋을 내놓고 커피를 따른다)

玉 京。 자아 언니두 한잔…… 그리고 나두…… (하며 강릉을 分配하고는 커피의 맛을 본다)

아이구 왜 이렇게 향취가 높고 맛이 짙어? 마치 선생님의 시와 같이……

詩 人。 맛이 나쁘다는 소리 같은데……

玉 京。 아이구머니 선생님두…… 언니 내말이 거짓말인가 입증해 주구려 줘……

聖 姬。 (어색하게) 참 좋습니다.

玉 京。 자랑껏 이것 보세요…… 호호호……

詩 人。 고맙습니다

聖 姬。 옥경아 선생님의 치료는?

詩 人。 (억개를 만지며) 뭐, 편찮을 걸요

玉 京。 언니 때문에 생긴 상처니가 치료는 언니가——(하며 詩人崔悅을 聖姬에게 매긴다)

聖 姬。 (당황하여) 애가!

玉 京。 그럼 선생님 돌아 앉으세요 제가 의사 노릇을 하지요 (崔悅의 억개의 상처에 약을 바르며) 참…… 언니 그 손

새우 선생님께서 봐 드리구려

聖 姬。 이거 (하며 새우를 들어보인다)

詩 人。 아이구 퍼 큰네

玉 京。 그거 언니가 작은건데 후라이해서 선생님의 저녁석사에 제공하기로 우리 둘이서 완전 합의를 보았답니다. 그렇지

언니!

聖 姬。 (빙그레 웃으며) 음

詩 人。 아니 남성이라고 특권시해서 되겠오

玉 京。 그러나 선생님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 없어요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생활원칙이니까。

聖 姬。 애가 왜 이렇게 수다냐?

玉 京。 그래도 들이서 일견 할의를 본것을 선생님이 거부하는 자고 안야?

옳지. 두분이 주먹 가위도 결정 하기로 할까? 언니가 이기른 선생님이 자시고 그리고…… 자가……(하며 聖姬와

詩人 崔悅 두사람에게 팽팽뽕을 시키려 한다)

詩 人。 (주먹을 들러맨다)

玉 京。 (권하며) 언니!

聖 姬。 (열척어서) 왜 이래! 애가 선생님 앞에서……!

玉 京。 선생님지가 너무 졸랐어죠!

詩 人。 천만에 그계 좋아 여기 나올때에 우린 어린애가 다시 되 보자는 약속안야!

玉 京。 아예요. 절설히 지가 지나치게 까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인간이란 환경의 동물이라더니 그 어둡침침한

지하실을 떨쳐나와서 이럴까!

詩 人。 그렇지 않음은 이렇게 벗어 내드리니까 자연으로 아주 돌아간셈일까요?

玉 京。 모두가 언니의 덕이지 성희씨가 기분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야.

詩 人。 언니, 고마워, 난 여간 기뻐잖아, 참새와 같이 마구 까불어도 신이다 풀리지 않겠어.

玉 京。 참 언니 아까 그 우클레베는? (하며 찾는다. 안 보이니까) 이크 우리가 놀던 바위 위에다 뒤 두고 왔군. 곧

찾아다가 언니에게 또 한번 들떠 주께. (하고 아까 쟁場한 쪽으로 뛰어 나간다)

詩 人。 (玉璫을 바라보며) 성희씨는 왜 그렇게 좀 못 되시오? 나 같은 것도 여기 나오니까 이제야 저세상에 놀여

나온것 같은데—— (숨을 들이키며) 자 공기를 한번 마셔 보세요 도회지의 공기와는 맛부터가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곳이 이세상에 있을 줄은 의 모르고 살았는지 후회가 될 지경이요

聖 姬。 더욱 여색 해질 뿐이다)

詩 人。 성희씨 기분이 재롭게 우러 바다에 뛰어들어 불이라도 좀 들러 쓸까요? 그럼시다.

자아! (하며 옷을 벗고 우끼를 들고 나선다)

聖 姬。 (별안간 뛰 엎디어 흐느낀다)

詩 人。 왜 이리세요! 내가 실례의 행동을 했나요? (도로 옷을 추서입으려한다)

聖 姬。 (울며) 아예요! 아예요!

詩 人。 아마도 여기가 그다지 마음에 안드신 모양이군

聖 姬。 절대로 그럴잖어요

詩 人。 그럼 어찌된 일인지 말을 해야지.

聖 姬。 아무리 선생님이 애를 쓰셔도 난 틀렸어요 창문없는 그 마굴 생활은 나를 흥신날 맨들었다 봐요 그럴잖은 내

가슴은 지금 벽찰만큼 행복에 젖어있는데 의 욕망이 모양으로 난 뒤늘지를 못해요! 六·二五전만 해도 욕망이

보다 내가 의라 활발한 편이 었었는데……

詩 人。 (눈시울이 뜨거워 짐을 느끼며) 성희씨 님심말고 더 노력 합시다. 지나가는 감기도 한번 걸니몬 몇달이 가는데

인간으로서는 견딜수없는 그 개구랑창에서 그렇게도 절박한 녀이 하루 이틀에 제자리를 찾게서요 나는 확신합니

다 이런 맑은 햇빛을 받으며 한적한 대자연속에 안겨있으면 얼마 안가서 성희씨는 어느사람 못잖게 건강해진다

고。

聖 姬。 정말 이런년도 사람이실는 다시할수있을까요! 질겨울때에 웃을수있고 서러울때에 울수있는……

詩 人。 할수있다면이요,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봄이오면 땅이 녹고, 아지랑이가 피면 풀잎이 되 사라납니다다.

聖 姫。 를 령 어요。 내 주이가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내 고통은 더욱 처참해보이고 더욱 더러워 보이누걸요。 그럼엔 나는 그당장
詩 人。 에 이 등식을 물로 짓적여 그 혼적조차 없애버리고 신을뿐이요
아아, 가엾은 성희! (하고 성희의 손을 파취며) 제발 제우신을 그렇게 학대하고 제 영혼을 그렇게 없애여가지

마오。 흑에 묻힌 눈없는 지렁이 발에 체이는 말 없는 들맹이! 그런것 조차가 연고 없이 된게 아니여는 하물며
인간의 생명이에랴?
(스스로 감격한듯 詩한 句節을 의운다.)

생명!

눈에는 안보여도 소리치면 응하는

산울림

생명!

짓밟히면 발힐수록 되살아나는

잔디불!

생명! 생명!

聖 姫。 (메꾸리해 의운다) 짓밟히면 발힐수록 되살아나는 잔디불!

생명!

詩 人。 허허허... 남의 앞에서 내 시를 의우기는 나생 처음입니다。

聖 姫。 정말 그럴까요。

詩 人。 바로 오늘 아침의 일이에요。 내가 저 바위에 올라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갔읍니다。 사람의 사는거란 별것이 아니로구나。 저 바다를 보라。 바다물은 바람이 오면 파
도를 이르고 바람이 가면 잔잔해 지는것! 그리구두 바다는 제 아름다움과 권위를 잃지 않고있다。 우리 인간
도 그와같이 대자연에 순응하자 자아, 대자연에 폭속에 앓겨있는 저 하늘에 뜬 물새며 저 수뫼선에서 감실거리

는 뜻때! 여원을 지행하여 그얼마나 허탈(虛脫)한가?

聖 姬。 사람도 그와 같이 자연에 몸을 맡기고……

詩 人。 그렇지요. 저를 내세우려는 쓸데없는 야망과 잠념을 버리고……

聖 姬。 바람에 불기는 나염과 같이!

詩 人。 눈으로 볼수 없는 대기(大氣)와도 같이……

聖 姬。 아아, 선생님! 우경이가 선생님의 지를읽고 살 힘을 얻었다더니 저도어쩔지

詩 人。 (다정히 聖姬의 얼굴을 드러다보며) 왜활해 질수 있겠소?

聖 姬。 노력 하죠. 노력해요. 선생님만 믿고——

詩 人。 아까부터 우클레레 소리 들리더니 이때 玉京 우클레레를 뜨 드며 등장

詩 人。 (바라보며) 우경이 군요 신선도에 나타나는 선녀같이 약끼를 들고……

玉 京。 언니! (하고소리치며 달려온다)

聖 姬。 너 외 이렇게 늦었니?

玉 京。 그새 물이 풀어 이 우클레레를 엮어둔 바위가 물가운데 동동 떠있지 않겠어?

聖 姬。 너 험치노라고 고생 했구나.

玉 京。 (그럼잡다는 뜻으로) 어영…… 쉘 할까?

聖 姬。 아무거나……

玉 京。 (우클레레를 하기 시작한다)

聖 姬。 학생때에 노상 내가 부르던 거구나!

玉 京。 (방그페 微笑를 지어 보이며) 그렇다는뜻으로 고개를 끄덕 해준다)

聖 姬。 (멜로디에 맞춰 노래를 시작 한다)

詩 人。 (눈이 등글해지며 玉京을 쳐어다 본다. 聖姬가 웬 노래냐는 表情이다)

聖 姬。 (노래를 끝마치고) 아이 참 피스터워!

詩 人。 (황홀하여) 아니 웬 일이요? 전문가 이상인데——

玉 京。 모두지는 모양이군요? 언니가 대학에서 정악을 전공했다는 사실을?

詩 人。 그래?

玉 京。 언니는 시공관에서 열린 졸업 연주회 때에도 그 피피리같은 목소리에……

聖 姬。 애 옥경아……(하며 동생의 입을 막으려 한다)

玉 京。 (언니의 손을 때리며) 앙콜 또 앙콜……

聖 詩 人。 (정말?) (동시에) 애! 애!

玉 京。 호호호…… 아니 선생님은 그때 서울에 안계셨나요?

詩 人。 나는 워체 사람 모이는걸 싫어해서……。 정회씨 한쿠조만 더——

聖 姬。 패니 그러서. 六·二五이후에 처음으로 입을 떼여 봤는데……

詩 人。 아무리 그래도 천재야 숨길수 없죠

聖 姬。 그만 놀리시고 물에나 한번……

詩 人。 좋아요 그러면 더위를 좀 가지고 나와서 또——(옷을 벗어 던지고 가운을 벗은 聖姬를 고을고 간다)

玉 京。 언니 가만 있어 우키 가지고 나도 같이——(우끼를 찾아는다)

聖 姬。 옥경아 저녁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니……

玉 京。 ……할세.
聖 姬。 (우끼를 땀으며) 넌 에서 저녁 지어라 선생님 모시고 잠깐 들어 갔다 곧 나오께——. 선생님 가세요.

詩 人 崔悅는 聖姬와 바다로 사라진다
못맛당 한듯이 쓰고 있던 水泳帽子를 벗어 던진다.

天幕 안에서 환피이스에 에푸돈을 내다입으면서 궁금한듯이 두사람이 사라진 바다쪽을 바라본다.

化粧品 行商次로 나선 假字아저씨 이때 登場

假字아저씨. 옥경이 뭘 그렇게 바라봐?

玉 京. 가짜 아저씨 또 나오셨구려?

假字아저씨. (살림諸具를 둘러보고)

아아구 우리 지하실 살림이 그대로 나와 있구나

玉 京. 예다 옮겨 놓으니까 근사하지 않어?

假字아저씨. 옥경이가 갖다 탈라던 것이 이거지? (하며 化粧品가방속에서 국자 하나를 내민다)

玉 京. 아이구 이것때문에 일부러 예까지.....

假字아저씨. 장사도 합점

玉 京. 좀 팔렸수?

假字아저씨. 나도 양공주나 찾아 다녀야 할까봐.

(바다쪽에만 정신이 팔리는 玉京이 더러)

뒤편 있기에 그쪽만 자주——(고개를 든다)

玉 京. (못보게 하며) 아무것도 안예요.

假字아저씨. 최선생하고 언니는?

玉 京. 저어.....

假字아저씨. (가르키며) 아니 저기 저사람 아니야?

玉 京.

假字아저씨. 어이구 웬일이야 사람이란면 견을 때 보지도 않던 최선생이 여자하고 어린애같이 물작탄을 하니.....

玉 京. (話題를 바꾸려고) 가짜아저씨 송도(松島)에도 수영 하는 사람이 많습디까?

假字아저씨. 왜 넌 같이 물에 안 들어가구 여기 혼자 남았냐?

玉 京. (如前히) 오음 우리 지하실은 무척 덥죠?

假字아저씨. (玉京이 탄전되는 것을 의하게 치어다보며) 이새끼가?

玉 京. 요다음에 다른것 하나 더 찾아다 주실래요? 뭐가 없더라. 읊지 화저가락!

假字아저씨. (玉京의 얼렁뚱땅하는것이 하도 기가 맥현)

하하하.....오자식! 너 쟀이 낫지 최선생을 언니에게 빼앗겨서?

玉 京. (당황하여) 에이 이놈의 아저씨! 망척 스텝게 그 무슨 소리야! (하며 달려 들어 때린다)

假字아저씨. (손을 내 흔들며) 아이구 잘못했다 그 말 취소다

玉 京. (국자를 내놓듯이 치며) 요까짓것 안갔다 줘도 좋아요! 갖이고 가요! (하고는 앵들아 앵아 풍로에 부채질 한다)

假字아저씨. 앗다 작난으로 그랬는데 이렇게 틀릴까 똥고? (국자를 도로 주어 놓으며) 집에서 화저까락을 가지고 오랬지? 음그래 내일이라도 갔다 주마

玉 京. (쓰드시) 그만뒤요 일없어요

假字아저씨. 정말 일없다곤 그만두구.....(나가려 한다)

玉 京. (고개를들어) 아저씨!

假字아저씨. (고개를 도리키며) 응.

玉 京.저어 사내 어른들은 과거를 가진 여자라도 진심으로 좋아 할수 있나요?

假字아저씨. 갑자기 그건 왜?

玉 京. (조르듯이) 글세 말요.

假字아저씨. 후 지꾸진 녀석들은——

玉 京. (눈이 동글해지며) 뉘요?

假字아저씨. 맛이 든 과일을 골라 잡으려거든 버려지 먹은 것을 따 먹으면 말이 있잖아?

玉 京. (별안간 소다 샐이) 괜한 소리 마세요. 그런 병든걸 좋아할 사람이 어딴 말요?

假字아저씨. 대관절 너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냐? 특 열어 봐 봐 최선생이 너를 두고 언니만 데리고 가서 뭐가 불안한게지? 그렇지?

玉 京. 몰라요! 앵 (돌아서서 흐느낀다)

假字아저씨. 걱정 마아 나 배 편이야. 네가 최선생을 사모하는줄 알고 국수나 한그릇 얻어 먹을까 하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은근히 애를 썼다구 하지만 이따구 보니 최선생은 심성한 과실보다 약간 벌어지 먹은걸 즐기는 지구진 천에드는 사넨것 같애. 컴컴한 지하실을 떠나지 않던 최선생이 별이 생쟁이 짝는 해수욕장엘 나온다고 책을 산다... 의자를 끄으려 낸다 풍로를 실는다 할때부터 난 이상하게 보고 있었어.

玉 京. 여태 아저씨에게만 마치 내 친 아저씨 같이 지내왔기에 말이지만 만일 최선생이 언니를 진정 좋아한다면?

假字아저씨. 이거 참 어려운 문제걸 하여튼 언니는 그만 두어버려 최선생에게.

玉 京. 뭐요?

假字아저씨. 두더지 새끼는 두더지 새끼 끼리 흙을 파는것 안야?

玉 京. (대들며) 그럼 우리선생님이 두더지란 말야? 그렇게 인격을 무시하지 마세요. 선생은 인텔리층에도 가장 고상한 분이요.

假字아저씨. (뜯입맛을 짝적 다시며) 야! 야! 여기서 이렇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집으로 가자 그만.

玉 京. 내가 왜?

假字아저씨. 나이 적은 사람의 말을 들어서 약이 되는 때가 있느니라. 암말 말고 네 짐이나 참져 뇌라 하바퀴 물려서 오께곤 (退場)

玉 京. (회기나서) 행 말할놈의 아저씨. 두더쥐 새끼 두더지 새끼 끼리 흙을 판다구

輕快한 聖姬의 노래소리 들린다 玉京 얼른 저녀 짝는 시늬를 한다. 聖姬 아까와는 만관으로 아주 活快하게 나

라난디.

聖 姫。(도리켜보며 손을 흔들며) 선생님 기대리게 해서는 안돼요. 빨리 돌아오세요!

詩 人。(멀리서 소리만) 오오.

聖 姫。(애교를 밀리 던지고 우경아 불 피우노라고 맘을 뻗겠구나? 바다에 뛰어들어 물을 흠뻑 들머 쓰니까 여간 상

패 하지 않다. 자아 내가 도울 일은 뭐지? 최선생은 매점에 가셨단다. 오늘 저녁에 내뚝창회를 여신단다. 과

자나 과일이니 사이다나 막 사다 놓고——? 밤잠 많이 지어라. 오늘저녁엔 밥 맛이 여간 있질 않겠다. 참

이게 선생님께 해드릴 새우지? 요리는 내가 하께 아이고 후라이 에는 빵가루가 필요한데…… 없지?

玉 京. 음

聖 姫. 음지 빵부스러기가 남았겠다. 그걸 찾아봐야지. (부산하게 빵부스러기를 찾아내며 가두를 만든다. 스위트한 노

래를 흥흥 기리며…… 문득 우경아! 이게 웬일이냐? 지금과 꼭 같은 이런 전경이 지난날 언제구 우리에게

한번 있는것 같구나. 그때가 어느때 였던가? 아니 꿈이던가? (짚이 생각더니 별안간) 오오 이제 생각났다!

우경아 너도 잊지 않았겠구나. 해방된 이듬해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충청도 소리산(俗離山)에서 한 여름을 지내

던 딸? 아아 그때도 우리 이렇게 행복했지? 우거진 소나무 숲사이에서 숨여나오는 그윽한 향기를 마시며 바

위름에서 웃는 맑은 약수를 떠다가 저녁을 짓노라고 지금 꼭 이때와 같이, 넌 불을피우고 난 반찬을 다듬고:

호호호 (우는소리인지 웃는소리인지 분간 할수없다.)

玉 京. (눈물을 슬적拭는다)

聖 姫. (如前히 공상에 취하여) 그때가 지금으로 부터 六·七년 밖에 안되는데…… 아 행복이란 언제나 이렇게 꿈길

이 아득 한건가?

玉 京. (부르짖다 싶이) 아아 그만 두어오 그만! (하며 활짝 느낀다)

聖 姫. 너 우는게 아니냐! (自己도 눈물은 씻으며) 호호호…… 나도 피니 눈물이 나오는구나, 눈물이란 슬플때에만 나

는게아닌 모양이지? 그러나 울지마아 우리는 그때와 같은 행복된 생활을 지금이야 다시 회복 했으니까……

玉 京。(음부림 치듯) 우리 도저히 그때와 같이 행복 할순 없어! 인젠 틀렸어 그런편 다 지나갔어.
聖 姬。물론 그때와는 우린 다르지。 우리는 벌써 아이들 먹어, 단발머리가 파아마로 뽀뽀하고 자면 나서 부모를 여위어
고향하늘을 아수위 할줄을 알고...러지만 옥경아 불행중 다행으로 최선생과 같은 교양이 높고 이해성 짙은 이
가 그림자와 같이 우리 가까이 계시지 않니?

그이는 베밭대로 사귀면 사귄수록 깊이가 있고 멋이 넘치는 어른이야. 난 진심으로 тебе 감사한다. 그리고 난
부산행 열차를 탄걸감사하고 죽지 않고 산걸 감사한다. 옥경아 그분의 말씀은 어찌면 구구절절이 가슴에 우뚝드
나? 마치 봄을 실은 바람이 한번 부슬거리며 들덩어리 같이 언땅에 고운 가루가 되듯이 그분의 숨 소리만
들어도 내 말라 붙은 가슴이 부풀러 오르는것 같구나. 옥경아 이리와서 내 가슴을 한번 짚어봐라. 호호호... 못
나게도 이 나이에 다시 내가 소녀로 되돌아 가려나? (혼자 대구대구 웃다가 벌떡 일어나) 아나 선생님이 왜
여래 안오셔? (멀리 바라보며 부른다) 선생님! 선생님!

玉 鏡。(북박치는 울음을 참을길 없어 얼굴을 싸고 天幕안으로 뛰어든다)
聖 姬。호호호... 내소릴 알아 들고 선생님이 저 뛰시는것봐. 옥경아 저것참! (玉京을 찾는다. 제자리에 없다) 애가
여기서 불피우던 애가 어딜 갔어 갑작이!

聖 詩 人。(淸料水 깡통 과자 과일等 먹을 것을 잔득 안고 나타난다) 성희씨!
聖 姬。(뛰어가 호들갑 스럽게) 아이고 많기도 사셨네!

聖 人。일생 일대의 대음악회를 베풀렌데 이만큼은 준비를 해야죠.
聖 姬。선생님은 실망케 하드리곤 어떻게 해?

聖 人。아무 걱정 마세요 성희씨가 노래를 부르게 됐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내대 만족이요。
聖 姬。서투러도 놀러 들어 주시겠다 말씀이죠!

聖 人。물론이죠。
聖 詩 人。아이 고마워! (감격하여 詩人 崔悅의 몸에 뛰어 들며다가 부끄러워 주춤 피해난다)

聖 姬。아이 고마워! (감격하여 詩人 崔悅의 몸에 뛰어 들며다가 부끄러워 주춤 피해난다)

玉京 조금전에 天籟에서 나와 흥분된 눈으로 日光景을 따라보고 섰다가——

玉京 (냉정히) 언니, 저어…… 간장 좀 사가지고 오우. (하며 빈병을 내준다)

聖 姬. 너 어디 갔다왔니 밥 짓다가?

詩 人. 옥정이 눈이 왜 그렇게 부었어?

聖 姬. 행복 했던 소녀 시절을 회상하고 들어서 울었어요

詩 人. 하하하……. 바보들!

聖 姬. 흐흐흐……. 우습죠?

玉京. (날카롭게) 언니 저녁늦겠어 얼른 좀!

聖 姬. 음, 선생님 잠깐 다녀 오께요.

詩 人. 그동안 난 음악회 회장을 꾸밀테요

聖 姬. (웃으며 제발

聖 姬. 빈병을 밀동거리며 뛰여 나간다. 詩 人 崔는 간단한 會場을 꾸미며 먹을것 들을 차려 놓느라고 다른 정신없다.

玉京. (바쁘게 일하는 詩 人 崔를 원망스럽게 바로보며 섰다가) 선생님,

詩 人. (덜컹치어다 보며) 왜?

玉京. 저어……. (말을 못하고 망설인다)

詩 人. 뭐야?

玉京. 머 먹을 물 좀 기려다 주세요

詩 人. 하하하……. 그말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지랄!

玉京. 곧

詩 人. 그래 (물통을 들고 종종 거름으로 나간다)

玉 京。 (詩人이 사라지기를 기다려) 이틀에…… (하며天幕안으로 미끄러지듯이 들어간다)

詩 人。 (다시 나타나 炊事道具를 둘러 보더니) 옹지! (하며 무릎 그릇을 찾아 든다)

玉 京。 조그마한 가방에다 짐을 주섬 주섬 주서넣으며 급히 天幕에서 나와 詩人崔가 다시 나타나있는 줄도모르고 外出用 구두를 허둥지둥 신는다)

詩 人。 (의아하게 바라보다가) 옥경이!

玉 京。 (갑작 놀래 못백치듯이 어쩔줄을모르고 섰다가 두손으로 얼굴을 싸며 울어버린다)

詩 人。 (물통을 놓으며) 어찌된일야! 내가 옥경이에게 잘못된일이었어!

玉 京。 안예요. 안예요. (터지려는 울음을 참으며 쓴살 같이 달아나 버린다)

詩 人。 (옥경이 나간쪽을 바라 보며) 옥경이! 옥경이!

假字아저씨. (조근전에 登場하여 못마땅 한드시 詩人 崔를 쏘아 보고 섰다가) 여보 최선생! 선생은 성질도 막칙하오. 왜

싱싱하며 색깔 좋고 포동포동한 걸 마다하고 색어 문드러져서 뉘새가 나고 말라 빠르러 저서 오양이 때두러 진 것을 좋아 하시요!

詩 人。 (무슨 말인지 이해할수 없어) 예?

假字아저씨. 성희는 나빠요. 사내들과 마구 놀아 먹던 근성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내 놓는게가 어딴단 말요? 제동생이 자기 를 위해서 그렇게도 지성으로 노력 하고 있는데 그래 그 은공은 조근도 몰라주고 하 많은 사내중에서 어찌 하필 제 동생이 좋아하는 사람을 넘져다 보느냐 말요? 그계 도시 될말요?

詩 人。 (인제야 알겠다는 듯이) 오오 그래서? (그래서하며 옥경이 간쪽을 본다)

假字아저씨. (詩人崔를 떠다밀며) 얼른 뒤 쫓아 가서 옥경이를 보듬어요. 저 대로 내버려두면 큰 사고요. 옥경이성미가 어떨다고.

詩 人。 (질과갈팡 하며) 큰 일 났는걸 정말.

假字아저씨. (큰소리로) 에키 여보시요! 사람이 그렇게도 눈치가 없담? 옥경이가 선생을 얼마나 애근이사랑했다고. 추우나

더우나 최선생의 뒤를 받들려고 그 애쓰는 꼴이란 정말——

詩 人。 나를 애긴 옥경이의 정성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그의 명량한 성격이며 그가 가진 깊은 문학적 소질도 나는

사랑해요. 그러나—

假字 저씨. 그러나 구미엔 안 명기단 말씀이지?

詩 人。 난 어때까지나 그를 나의 귀여운 누이르 밤에 생각지 않소. (玉京이 나간쪽으로 떠다밀고) 미안하지만 옥경이도

부족어 알아듣도록 말쯤해 주세요. 옥경인 아저씨 때문이요. 누구의 말보다 더 귀 답아 들을 게요.

假字 아저씨. 나야 몇천번이고 수고하겠지만 문제는 최선생의 결심야. 다른생과 말고 옥경일 사랑해 주세요. 옥경의 심정을 일찍

부터 알아채고 나라도 중매를 서볼까 했지만 최선생이 여태까지 워낙 여자에게 무관심 했기 때문에 말을 무부
친 거요.

詩 人。 이 몇칠동안에 진정 난 사람이 변했소 이전 성회씨의 덕이요. 성회씨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소. 그런 의미에

假字 아저씨. 서 성회씨는 내은인이요 구세주요 난 지금 성회씨 없이는 못살게 되었소. 그러니 재발 좀 옥경이 한테—

詩 人。 그러지 않아도 이런 눈치를 채고 아까 내가 그에게 권고도 해봤소 그러나 어림없음이다.

假字 아저씨.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나려니와 성회 역시 겨우 살 회망을 얻었는데: 이 사건을 성회가 알아 채면 성
회는 전과같은 캄캄한 구렁속으로 다시 떨어지게 돼요. 아니 그 보다 더 참혹한 꼴이 될는지 모릅니다. 제발

이번 전쟁으로 생긴 가엾은 여성을 불쌍히 여겨 아저씨가 추천 애써주세요 예!

假字 아저씨. 쉬! (아까부터 바위틈에서 엿듣고 섰다고 웃을 가라입고 나오는 성회를 이때에 발견 한 것이다)

聖 姬. (일부러 발은 기침을 하며 시침이를 떼고 들고온 간장병을 제자리에 갔다 놓는다)

詩 人. (聖姬의 태도를 不安한 눈으로 지켜보다. 아까부터 호러지던 날세 이때 더욱 어두어지며 먼하늘에서 우뢰소리

가늘게 들린다.)

詩 人. 성회 왜 이렇게 늦었어요!

聖 姬. (대답代身 긴 한숨을 쉬며 깊은 생각에 잠긴다)

詩 人. (얼저은 부위기를 엄빙 부리려는 드시) 저어 오늘저녁 음악회 회장 꾸민것 좀 보세요 달이 저쪽에서 떠 오를

앞면과 같은 날. 그러나 비내리는 저녁.

東萊에 있는 金大石의 집 應接室

어디선지 라디오에서 들려 나오는 음악

社長 金大石은 호올로 帳簿를 놓고 手關실을 하고있다.

秘書 高君들어온다.

秘 書。 (帽子를 벗어걸며) 사장님 피기다렸어요!

社 長。 (時計를 보며) 몹시 늦었네 그러.

秘 書。 (가방에서 書類를 찾아 내며)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나서 이 결재 서류를 받았는데 도중에 불일이 생겨서!

社 長。 (書類를 받아 읽으며) 만이천불 할당... 하하하... 수고했네 정말 수고했네

秘 書。 제 수고할까 있을니까? 사장님께서 어제 저녁에 사교를 해주셨으니까...

社 長。 이 말라도 엘·씨를 옆면 얼마 안가서 발주는 될거구... 비수에서 메까지 선편으로 二개월... 어보게 늦어도

년내에는 우리의 공장 시설이 완비 되겠네 그러

秘 書。 압그렇습니다

社 長。 이것으로 비로소 나도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할수 있게 되겠구나 자카, 고군, 시장할텐데 안에 들어가서 저녁이라

도 같이!

秘 書。 사장께서도 아직 식사 전이십니까 그러

社 長。 자네를 기다렸지.

秘 書。 너무 죄송합니다.

社 長。(앞서며) 가자.

秘 書。비가 드리치는데 창문이나 다다 걸구요.

社長 앞으로 들어가자 秘書는 窓門을 닫기 시작.

招人鍾소리 울린다

秘書 玄關도아를 열어 본다 玉京이 초라하게 서있다. 가방을 들고 —

京。 (수선스럽게) 아이구 옥경씨 웬 일이세요? 이 우측에 가방까지 들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들어 오세요.

玉 …… 저어 사장님은?

秘 書。 금방 안으로 들어 가셨어요. 어머니님 살아 제실때에 몇번 와보고 뭘 그렇게 서떡서떡 하게……? 자아 —

玉 京。 어색한 발걸음으로 옥경실로 들어선다)

秘 書。 여기 앉아 제십시요 사장님 모시고 곧 나갈게요.

玉 京。 (秘書를 부들리는 듯이) 아니 저어——(하며 도로 일어선다)

秘 書。 에까지 오셨다가 사장님도 안 보시고 가시렵니까. 사장께서는 밤낮 옥경씨 말이신데……

玉 京。 아, 안됨고 가려는게 아니예요

秘 書。 그럼 잠자만! (안으로急이 사라진다)

玉 京。 (도로 일어서며 혼자말도) 역시 돌아 가야겠어. 마음에도 없는이의 폭안에서 무슨 구원을 얻겠다구 이걸 정말

히극이야 미친척이야 玄關으로 도망가려 한다)

社 長。(어느새 나타나며) 옥경씨! (하고 반가히 부른다)

玉 京。(죄나 지은것같이 주춤한다)

社 長。 이 먼데까지 오셨다가 주인도 만나보지 않고 왜 내뻐려시우? 그러지 마시요, 이 김대석이도 그다지 나쁜놈은

아닙니다 자아 더운데 이 원도우 가까이 앉으세요 여긴 꽤 서늘한 바람이 솔솔거립니다 멍멍이 소리도 들리구

고군, 가방 받아놓게.

秘 書。 에. 에. (가방을 받아 놓는다)

社 長。 참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이 있는 데... 다른게 아니고 언니 입원료에 충당해 달라고 병원에 두고 온 돈말이에요

나는 또 박송이나 안나하고 여간 불안하지 않았더랍니다. 그걸 아무 말없이 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군, 가만 섰지 말고 선물기 라도 좀 들게.

秘 書。 (당황하여) 아이 참... (하며 선물기를 玉京이에게 물어준다)

社 長。 감천(甘泉)인가 어디서 캄핑 하신다구요? 자미가 어떻게요? 감천이란 델 내가 언제 다 대포(多大浦)가느라고 하이

야로 지낸적에 있었는데 학적하고 깨끗해서 수양하기에는 막상입니다. 덕분에 언니께서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다
구요 기쁘니다 앨씨 언니를 예까지 데리고 온 나로서는 더 이룰데 없어요 그러나 언니의 회복은 감천의 풍치
보다 옥경씨의 정성에 기인된바 크다고 나는 봅니다. 들누바에 옥경씨는 언니의 기분을 든구어 들려고 가진
애를 쓰고 심지어 자기가 존경하는 최선생님까지도 동원시켜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 드리지못해 고심하신다니 그
얼마나 기록—한

玉 京。 참 이번엔 우리 언니는 최선생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社 長。 (너무 반가워서) 오히려 自己의 귀를 의심하는듯) 뭐요? 언니와 최선생님이? 크게 웃으며) 하하하... 그것참

통쾌한 소지입니다 이젠 정말 순정적인 옥경씨가 아니면 성사 못시킬 일이며 옥경씨의 그런 자기 희생적인 점
을 나는 또한 높이 평가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고군 뭐든 찬걸 좀 내오지 않고 거기 왜 우두커니 섰어?

秘 書。 에, 너무 통쾌한 소식이에요 저까지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곧 내오겠습니다 (하며 단황히 안으로 사라진다)

社 長。 여기서 특 떨어놓고 옥경씨에게 사죄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태 내가 옥경씨를 의심한 점입니다.

혹시나 최선생을 사랑하지 않나하고— 그러나 이렇게 되고 보니 그것은 단순한 내 기우에 불과 했습니다 내
비열한 인격을 사과합니다 그와 동시에 옥경씨의 그결백한 마음씨를 거듭 찬양 합니다. 결국 시인이나 문학자가
그리는 세계란 이 세상에는 있을수 없는 신기무—
그 심기두란 우리 인간에게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윈의 학설을 빌릴것 없이 인간이란 역시 동물의 일종입

나다 먹고 자고 일하다가 죽는것! 이것이 동물에게 부여된 푸르그람이 아닙니까? 인간의 생활 역시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지개벽 이래로 우리조상들은 인간생활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려고 꽤 애썼죠.

그러나 이세계의 어느 학자가 기기대한 무슨 해답을 얻었나요 천당? 극락? 그런건 다 현실 도피에 불과합니다. 결국 동물과 같이 일하고 생을 즐겨라 거기에 만족하면 행복이요 그렇지 못하면 비극이다.

— 이것이 인간생활의 지상 명령이며 이 지상명령을 이제야 옥경씨는 깨달은 겁니다.

京。 미안합니다만 언니와 최선생의 결혼 문제에 결코 나까지 결부시켜 말씀하지 말아 주세요
社。 죄송합니다

그럼 언니의 결혼에 내가 해 둘일수 있는게 될까요? 결혼비용! 그렇지 않으면

京。 그런 문제가 안예요

社。 長。 그보다 더 직접적인! 좋습니다. 자아 추져 하지 마시고! — 나도 여태까지 모양으로 임자없는 서울에서 고철이나

실어내는 가짜 사장이 아니고 세계 최선적인 기계를 움직이는 당당한 사장이 되니까요

이 말라 활달을 받은 서류를 보세요

이번 六·二五 동안에 실업가란 실업가는 그 누구 할것없이 모두 나와 똑 같은 빨가벗은 빨가 승이가 되었읍니다. 인제 다 같이 뻥쓰한장으로 뛰는 판이요 누가 한국을 지배하는 대 새범이 되느냐? 그승부는 오직 —

京。 그만주세요 (하고 일어서서 가방을 든다)

社。 長。 아니 내게 무슨 할말씀이 있어 우정 도신계 아닙니까?

京。 안요!

社。 長。 그럼 그가방은?

京。 (당황하여) 온천장에 등창생이 피난 와 있다기에 그친구에게 전할려고……

社。 長。 (기대가 어그러져 짐짓 화가나서) 그런 설설한 말씀이 어딴어요? 진짜지 몽따거더 가지고 일부러 찾아 준줄

알고 남 여간 기뻐하지 않았는데……(내년지는 듯이) 하여튼 고답소. 지내는 길이라도 잊지않고 찾아주셨으니……
(이때 下女 사이다와 靑 두개를 갖다놓는다) 이거나 좀 드시죠。(통명스럽게 사이다를 따라주고 自己는 장위에
이던 洋酒를 들어 靑에다가 靑칠 쏟는다)

玉 京。 저어…… 여기도 (하며 사이다를 따라놓는 靑을 밀어 놓는다。洋酒를 타달라는 것이다)

社 長。 自己의 귀를 의심하듯) 아니 옥경씨가 술을 자실줄 아시던가요?

玉 京。 세상 사람이 다 먹는걸 난할 못 먹겠어요?

社 長。 허허허…… 어찌된 일지요

玉 京。 따라줄라 절랑 따라 주고 싶절랑 그만 두세요

社 長。 오오. 케이—— (양주를 사이다에 타준다)

玉 京。 (양주란 사이다를 쓴 약 먹듯이 알씨 물이 킨다)

社 長。 (눈이 동해지며) 아이구 (탈선하는 것이 오히려 만족하다는듯이 크게)

玉 京。 하하하…… 이젠 옥경씨가 내 집엘 방문해 주신 사실보다 뭐 엄청난 기적인걸요 (양주병을 들며) 조금만 더어!

社 長。 …… (靑醬의 스윗치를 든다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자아 (하며 손을 버린다. 춤추자는 눈치다。)

玉 京。 ……

社 長。 나같은건 상대해 주실만한 자격이 못된단 말씀이세요?

玉 京。 (社長에게 몸을 매끼려다가 별안간) 아아 저리 비켜요! (社長の 몸을 밀치고 나와 소파에 쏘여져 호느낀다 그

러나 입술을 깨물고 우름소리를 안낼려고 애쓴다)

社 長。 아니 옥경씨 왜 이러시요?

玉 京。 나는 가련한 계집애예요 부모는 물론이려니와 동기도 없고 친척도 없는 마치 길가에 버려진 고무신 짝 같이

하잘것 없는 몸이예요

社 長。 누구하고 싸운게로군요?

玉 京。 나는 죽어주세요 사장님! 죽는다는건... 나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죽을

수도 없어요 예서 내가 죽는다는건—

社 長。 죽는다는건 어딤단 말요?

玉 京。 언니를 위한것도 아니고 최선생을 위한것도 아니에요

社 長。 언니한테 배반을 당하셨군요? 그렇죠?

玉 京。 (마침내 우름이 터진다)

社 長。 내 짐작에도 그런가 했소

玉 京。 오늘 이자리 부터 나는 사장님의 착한 아내가 되었어요 나는 결심했어요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社 長。 (기가막힌듯이) 하하하... 오랫동안 외람하게도 내가 몰고 있던 꿈이 이제야 실현 되는가 했더니.....

玉 京。 예? 결국 우정씨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나를 찾아온게 안요?

社 長。

社 長。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지낸날의 사랑의 꿈을 매장하는 무덤으로 제 몸속이 이용된다는것은 너무 참혹한 노릇이

아니겠소? 자아 잘배가 없결랑 방 얻을 돈을 드리죠 이걸 가지고 나가주세요

玉 京。 내게 필요한건 돈이 안예요

社 長。 그렇겠죠 돈이 아니고 아내라는 명목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언니로 하여금 최선생을 마음놓고 사랑할수 있게 만

들수 있을 테니까

玉 京。 제발 날 사장님 더부사리로 라도 뒤두어 주세요 그러면 난 노력 하죠 내뒤집힌 가슴을 진정시켜 모든 정성이

오로지 사장에게만 쏠리도록—

社 長。 정말요?

玉 京。 맹제합니다。

社 長。 그러면 옥경씨의 가족이 그렇게 될때를 기다려서 결혼 하기로 합시다。

玉 京。 제발 그렇게 슬그머니 파 들리지 마시고——

社 長。 (화가나서) 내가 그만큼 너 그렇게 생각해 주었으면 고맙게 생각 할 일이지 남자의 심정을 모르는 이런 무리가

어딤만 말요?

玉 京。 예?

社 長。 지금 내감정으로서는 옥경씨가 미워 죽겠소 이 손으로 목을 눌러 죽이거나 그렇찮으면 진심 버려주고도 싶소。

내게도 질투의 감정이 없으면 벌이 없으니까。

그러나 옥경씨 맥에는 어리서부터 내가 드나 들었고 특히 아버지는 내 은사요 나 때문에 옥경씨의 전정이 그

릇된다면 그걸 나로서 전될수 없는 일야. 그래서 내가 참는거요。

玉 京。 그런 수수럽잖은 사기에 내 두리가 다소 통할줄 알고 온게 내 오삼이였군요

社 長。 알겠거든 내눈앞에서 뵈지 말아요

玉 京。 ……에 눈물을 슬씩 썩으며 玄關쪽으로 발을 옮긴다)

(이때 밖에서 노크소리 들린다)

社 長。 (주춤하며) 누굴까 이시간에 찾아 올 손님은 없을 렴비……

(하며 玄關쪽으로 가려한다)

玉 京。 (앞을 막으며 무슨 不安을 느꼈는지) 가만요!

社 長。 왜?

玉 京。 ……혹?

社 長。 누구 찾아오기로 했나요?

玉 京。 (생각하더니) 괜찮어요 날 찾아온 사람은 아녜 꺼예요 내가 여기 온줄은 아무도 모르니까

(또 한번 조심스러운 노크)

社 長 (玄關문을 열고) 누구세요 이리 들어 오십시오 (대답이 없으니까) 대판결 거기서신 분이 누구예요? (하며 나간다)
京 (바깥을 엿보더니) 아이구머니 언니로구나 언니가 날 찾아 왔으니 이 일을 어떻게해?

(안으로 通하는 도아뒤로 숨으 한다)

社 長 (다시 나타나며) 옥경씨 언니가 나오세요

京 사장님 내가 왜 와있단 말씀을 하셨군요?

社 長 물론!

京 아이 큰일났네! (어쩔줄을 몰라 허둥지둥 하다가 社長에게) 최후의 부탁이에요 언니들 불러들여 제발 이렇게

좀 말씀 해주세요 나와 社長과의 약혼이 성립했다구 그래어만 몇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만

이 연구이에요 결코 이것을 연걸로 사장을 괴롭게 할거나 하는 그런 비루한 짓은 안하겠요

社 長 입맛을 다시며 걸터 앉는다

京 (熱心히) 사장은 큰 사업할 하서서 그만한 유통성은 부릴수 있잖아요!

이만한 사정도 못 들어주신다면 사장은 정말 눈들도 없는이예요

(눈시울에 눈물까지 맺힌다)

社 長 언니를 불러 드려시요

京 내말대로 해주시겠어요

社 長 해 보죠

京 (숨을 참만큼)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눈물을 쫓으며 혈으러진 머리를 매만지며 氣分을 가다듬더니 玄關문을 열

고 여태까지와는 판관으로 꾸며 明朗하게) 아이구 언니 어서 들어와요. 미처 회복도 안된 몸에 비를맞아 감기

들겠어. (바깥에서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팔을 펴쳐 聖姬를 고으려 드리드니) 이집은 이제 언니에 동생 옥경씨

의 집인데 될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몰우? 그렇지 않아도 얘기 할 일이 있어 언니를 데려올까 하던 참인데:

— 렷잡어요 사장!

社 長。 (우승을 지으며) 비는오는데 밤이 되구해서 감춰서 여기까지 나오시기에 고생스럽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던 중

어렸어요

玉 京。 (손을 으을며) 언니 자아 오늘저녁에 사장하고 악수를 한번 —

聖 姬。 재삼스럽게 악수는?

玉 京。 우리는 곧 택일을 해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 내일이든 모레든 될수 있는대로 빨리 그렇지? 사장님?

社 長。 혼수며 청첩장 기타 준비가 대단히 나쁜것 같아서 걱정이요

玉 京。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대표로서 언니가 — (聖姬와 社長の 악수 시키려한다)

聖 姬。 너 속에 없는 것을 이렇게 하거나?

玉 京。 아이 기막혀! 속에 없는 일이라니?

聖 姬。 내가 잘못했다 너 만전 되지 말고 그만 돌아가서 최선생을 곧 모셔라

玉 京。 (社長の 팔을 끼고) 수아니 언니는 여기 까지 이른 이 연속한 사실을 부인 하려우? 자아 똑똑히 봐요 이래요

社 長。 (社長の 팔을 끼고) 꼭 부러서며) 사장님 좀! (演劇의 호흡을 마쳐 달라는 듯이다)

다 번다)

玉 京。 오랫동안 그리던 옥경씨와 이렇게 구체적인 결정을 보게되어 난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玉京의 손을 自己앞에

聖 姬。 (눈에 눈물이 핑글며) 옥경아 그만해라 이제 알았다。

玉 京。 정말 알겠수?

聖 姬。 암 알구 말구! 억지로 나를 최선생에게 피여 내끼려고 애쓰는 네꼴 참아 볼수 없다 (호느껴 울어버린다)

玉 京。 그 무슨 소리유?

聖 姬。 사람의 본능이란 언제까지나 억제할수 없는게다. 한남자를 두고 형제끼리 맞서선 안된다는 우리의 도덕(道德律)

때문에 결코 너는 내 진정을 회생시켜서는 안된다.

玉 京。 사장님 말씀 좀 더 해주세요 가만 계시지 말구……

聖 姬。(막으며) 옥경아 나는 이미 몸과 마음이 현 기제와 같이 다허려빠진 제집이다.

아무리 가꾸어도 사람 구실도 할수 없거니와 생활이니 사랑이니 하는게 도시 나헌텐 어울리질 안는다. 하지만
년 돌아오는 풀뉘처럼 심정 하찮니? 피어 오르는 구름덩이와 같이 황홀한 소녀의 꿈을 마음에도 없는 사나이
의 몸속에서 썩인다면 그얼마나 억울하고 기막힐 노릇이겠냐? 그러니 내 걱정을랑 아예 말고……

玉 京。 언니 아까 내가 다소 감정적이었던것은 교양이 없고 청망해서 그랬어 다시는 안 그럴께.

한번만 용서해주우.

나는 그선생이 없더라도 능히 살수있을 만큼 나이 어리고 건강하잖어 허지만 언니는 그이 없이는 절대로 못
살어 그이역시 언니 없이는 못 살구——

聖 姬。 이런 문제를 여기서 우기곤 결국 너는 나를 금수보다 더 못한 년을 명하고 만다. 내게 대한 너의 지극한 정

성……그것만으로도 내뻘가 저릴만큼 고마운데 예서 내 좋아하는 사람까지 내가 빼앗다니 뉘뻘한 소리냐?

이애진 인제 영영 하지말기로하자

(조금 前에 안으로 避했던 社長 이때 茶를 손수 들고 나타난다) 사장님 용서하세요 옥경아 잘있거라

玉 京。 언니 어디로?

聖 姬。 묻지 말라 그리고 날 찾지도 말라 내게는 재갈질이 있다。(발걸음 돌리며 한다)

玉 京。(부들며) 언니! 안 돼요! 가려거던 나하고 같이 가요! 어디든지 같이가요!

聖 姬。 나라! (뿌리치고 쓴살 같이 내 뺨다)

玉 京。(뒤를 쫓으며) 언니! 언니! (부르면서 玄關밖으로 나간다. 밖에서 개 짖는소리 요란하다)

다시 뛰어 들어와 社長에게 매달어 안타까히 발을 굴르며 언니의 눈치 못채게 호흡할 좀 못마쳐주고 왜 그에
내 쫓았어요!

社 長。 운서 하세요 나도 피 당들한 여성입니다만 어쩐지...

玉 京。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는 정의가 부족 해서 그렇지 뭐요!

社 長。 압요. 내 질투의 감정이 채 식지를 못해서 그럴꺼요.

玉 京。 어서 언니를 찾아 주세요 어서 언니를!

社 長。 가봅시다. (우산을 찾아들고)

(뛰어 나간다)

玉 京。 (사장의 뒤를 따른다)

— 빈 舞臺 어두워지며 廻轉 —

5

前場面으로부터 二三日後인 저녁 어느私娼窟 二層의 聖姬의房과 廊下 遠景으로 聖堂。

舞臺 밝아지며 어더선지 退却的인 자스·송... 娼婦들의 우습 소리... 洋女로 혹은 胡女로 其他 가진 族屬의

계집으로 꾸민 娼婦들 粉냄새를풍기고. 廊下를 오간다.

室內는 鴉시·결로 꾸민 聖姬 호을로 寢臺에 걸터앉아 洋酒를 따라마신다. 어지러운 雜念을 버리려는듯 회 일러

저더니 室內를 지낸다.

聖 姬。 (견딜수없다는듯 다시 椅子에 터 몸을 던지며) 저 오가는 사람이 불빛! 저 우습소리! 그 모두가 제대론데 왜

내 가슴만 이렇게 자꾸 설레일까? 혼적도 없이 똑 썩어버릴 결심으로 이런질 다시 기여들었는데, 아무리 술은

마셔도 취하지도 않구... 이 생활을 감당못할까봐 겁이 나서 이럴까? 그럴참은 내 각오가 부족해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필시 내 가슴 속에 인지도 최선생의 자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럴꺼야. 아아, 이미 친년... 왜 못잊어?

그서생은 잊어가지. 내기억에서 짝 잊어버려가지. (洋酒를 또 한잔 획 들어 마신다.)
가까운 聖堂에서 聖鐘소리 울린다.

풍동한 私娼窟마담 다똥거리며 登場。

마담. (소리친다) 가시나들아 저것들이보래. 정당에서는 벌써 저녁종이 울린대이. 빨리 빨리 懸竿으로 내려온나! 오늘이 공일이 돼서 그런지, 할로우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온대이. (聖姬의 房을 드러나보고) 잘 꾸렸고나 너 이름 뭐라했노?

聖姬. 아누거나—

마담. 참 캄넨이라캐지러? (손을 꼬을며) 캄넨 얼론 나온나. 오늘이 첫날 개시닝께 질속있는 서방을 몇놈 물어야 지러.

마담, 聖姬의 등을 두들겨주면서 내려간다. 娼窟들 몇 廊下를 수선속럽게 또 지나간다.

洋女로 꾸민 娼婦, 六尺身長의 黑人兵士를 끼고 올라오더니 黑人 비를거리며 聖姬房으로 민고 들어온다.

洋女로 꾸민 娼婦.

노오! 노오! 마이 몸 저쪽!

黑人.

(억개를생으스해 보이며) 오오.

洋女로 꾸민 娼婦.

캄·온! 캄·온!

洋女로 꾸민 娼婦, 黑人을 끌고 나갈다.

이윽고, 聖姬, 초조한 발거름으로 다시 뛰어올라온다. 自己의房 窓門으로 달려가더니 바깥을 내려다본다.

聖姬.

를림없이 최선생이다. 대판절 저 선생이 내가 여길 온줄을 어떻게 알고 저렇게 나타났을까? 난 아무 인사도

없이 내 행방을 감춰버렸는데... 정말 귀신이 폭발 노릇인걸... 헌데, 저 선생이 왜 저렇게 수척해졌누

어하로 이들동안에 갑작스럽게. 저선생의 가슴역시 내 가슴 모양으로 못견디게 헤디집혀 저떨까? 저 모양으로

돌아다니시다가 만일 뜻하지 않은 일이나 생기면... (도리켜 생각 하더니) 애그 이 미친년! 또 쓸데없는 걱정

올하네. 난 안돼. 저이를 바리봐도 안돼! 옥경이한테 죄야. (窓門에서 물러서며 괴로운 가슴을 鎮靜시키려고 눈

을 감는다)

(이때 廊下에서 요란스러운 발소리!)

개. (도아를 휘 열어 부치며) 칼맨! 도로 뛰어올라가더라 왜 곧 안내려와? 야단 났어. 마담이. 어제는 첫날이라 쉬었지만, 오늘은 단장까지 하고 손님 딱지 시킬판이냐고?

聖 姬. (窓문 밖을 가르키며) 저사람을 좀 쫓아주어.

개. (같이 내려다보며) 어느것 말야?

聖 姬. (숨어 손구락질하며) 저——

개. 머리기름?

聖 姬. 음.

개. 정말 저 자식이 누구야? 아까부터 재수없게 자꾸 성희탄 여자들 만나겠다는거야. 성희가 바로 칼맨 너지?

聖 姬. 그래, 뭐했어?

개. 그런 여잔 없었지. 그랬더니 이방을 가르키면서 이창문에서 열리는거리는걸 엿뚱 봤다는거야. 갈보에 뒤에는 으떼

聖 姬. 저런 물귀신이 따라다니긴 하지만 대판절 누구야? 남편이야? 그러잖으면——

聖 姬. 누구든 내가 만나선 안될 사람야.

개. 음, 좋아! 저 거랑들의 새끼 좀쳐버릴테니까—— (씩은더러며 슬히 나가려한다)

聖 姬. (부들며) 안되…… 폭력을 써서는 안되!

개. 그러든 어떻게 해? 저놈은 세파트처럼 저렇게 지키고 있고 그때문에 칼맨은 품작도 못하고—— 그런다른 장사

는 열영 다해먹은것 안야?

聖 姬. 성희탄 녀자가 이집엔 없다고만 해주어. 그리문 물러갈걸.

개. 여간한 귀신이 아니던테——

聖 姬. 앓다, 자기가 찾는 사람이 없다는데야 핏이 불게있다고 지키고 싶겠어! 자아, 얼른 나 하라는대로——

역 개. 마담한데 또 코 베우지 않을까? (하고 못이기는듯이 나가려한다)

(이때 조심스러운 노크소리)

聖 姬. 누구야?

(문이 열리며 行商女 들이든다.)

역 개. 아니, 화장품 장사 안야? 애가 어땠을 알고 주적 주적 올라왔어, 기분나쁘게? 내려가!

行商女. 저 색시에게 한마디만—— 옥경이가 와서——

聖 姬. (놀래며) 뭐! 어디? (하고 窓문 아레 행걸쭉을 내다보려한다)

行商女. 그 짝이 아니고 저 쪼문에——

聖 姬. 어떻게 옥경인 또 알았을까, 내가 예 있는줄을?

行商女. 나레 오늘 낮에 화장품 팔러 이집엘 왔디 알았갔소, 그래 임자를 봐수다레.

聖 姬. 오오, 그러문 최선생에게크 그쪽에서——

行商女. 다른군들께는 알릴세가 없었시오——

역 개. 아너 칼넨, 기분나쁘게 이게다 뭐야? 일가 친척은 물론이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이 세계를 통털어 개미새끼 한마

리도 없다더니

聖 姬. 나가서 옥경이더러 낮에 본 사람이 언니가 아니더라고 일러 주오.

行商女. 그러디 말고, 잠깐만이라도 만나주구레. 나도 바쁜몸이디만, 옥경이가 하도 언니를 무찾어 하도 뇌심초사를 하기에

저렇게, 테리구 나왔수다레——

역 개. 여진 밝알 세상하고는 다른곳이니까, 테리고 가요.

行商女. 안 만나주몬 옥경인 죽어버릴는디 몰라.

역 개. 그런 공갈 때리지 말고 나가요.

行商女. 공갈이 아니야요.

억 개. 팔방 없어지라니까! (行商女の 등을 떠다밀고 나가더니 도아를 달아 버린다)

聖 姬。 (혼자말로) 부산바닥은 좁기도 하다. 그렇게 몰래 숨어들었는데 하로 이틀에 이렇게 되드니……

도아가 열리드니, 玉京, 室內로 들어선다. 聖姬, 잠잠물라 물러선다.

玉 京。 (언니의 모양이 하도 기가막혀 입을열지 못하고 섰다)

聖 姬。 유경이나? (하며 긴장된 視線을 避하려는듯 담배를 끄고서 부쳐놓고, 여기를 휘 날린다)

玉 京。 (언니를 노려보는 눈에는 눈물이 솟아오르고 다문 입술이 경련되며) 언니 이제 내게 대한 부수며 앙가후리요

聖 姬。 좋다. 내행동에 대한 비판은 배자유에 매긴다.

玉 京。 그렇잖으면 왜 이 지긋 지긋 한델 다시

聖 姬。 왜 당장에 못죽느냐 말이지? 음. 나도 몇번이고 죽으려했다. 그러나 막상죽으려드니까…… (기가막힐듯) 해해해……

말할필요도 없다. 나가거라. 나는 예서 썩겠다. 세상에 아무 과문도 이르지않고 고스란히 폭 썩어버리는게 내 유

일한 삶의길이며, 나의 죽는 최상의 방법이다.

玉 京。 그런 땅지도 안는 소리……

聖 姬。 내가 죽어봐라, 한남자를두고 형제가싸우다가 그에 한쪽이 꺾구려졌다고 세상에서 좀 손구락질하겠니? 그러면 죽

는나도 나지만 살아있는 천정이 만디같은 너까지……

玉 京。 (얼굴을싸며) 그만뒤요. 그만……(느낀다)

聖 姬。 (괴로워서 어쩔줄 모르다가 배았는듯어) 여기선 난 본적도 없고, 이름도 달라졌다. 제발 이렇게 찾아와서 내본색

을 탄로시키지 말아……

玉 京。 언니, 서로 애끈히 그리다가 만난 언니의 형상이 이렇게 왜야한단말요! 당장에 一 화장을 지워요! 그리고 나하

고 나가요, 생음! 언니가 이 꼴을 하고 이런곳에 들어앉았는건 이진 날 위한 회생이긴커녕 되니 내 마음만

아무게해요.

聖 姬。 이 언니는 一四후의때에 영동포 부근에서 영영 행방불명이 된것으로 치부해주어 이왕지사 죽으려고 약까지

지니고 다니던번 아니냐?

京 언니, 언니가 여기서 산송장이 되면 난 어떻게해. 그런소리 하지말고 바깥세상엔 나가서 들어가 살아. 언니 역시 그동안 혼자 지내왔으니까 의로운거란 어떤걸지 알았을꺼 안야? 난정말 언니없이는 못살아,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시기 전날 『내가 혹시 죽더라도 너는 꼭 내언니를 찾아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셨어. 현대 우리가 한낱 자때문에 이렇게 억각이 난다는 소문이나 나문 돌아가신 어머니를 빌 념목조차 없지 않어?

聖 (聖姬 느낀다) 그러나 내 칠없는 행동을 용서하고 우리는 이전과같이 회복하게 살아야돼. 아아 그때 내가 왜 그더러운 질투의 감정을 봤을까? 다른사람도 아니요, 내가 내 모든것을 받혀야할언니한테..... 언니, 난 여기서 맹세해. 절대로 그건 내 본심이 아니었어. 그러니 용서해. 응, 용서해. 내가슴은 터칠것살애.

玉 京. 무튼 잘못이 있다고 용서를 하니, 그게 사람의 본응인데...: 패니 맘을씩이지마아... 아무도 사람의 본응을 남으랴수 없고 타할수도 없다.

聖 京. 그건 본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야.
姬. 아무말 말고 넌 최선생을 모셔라. 그래야만 우리의 사이엔 아무 힘이 없어지고, 우리의 친분과 정리는 유지된다 언니를 이렇게 위하는 동생의 사랑에 해방을 받았대서야 어찌 언니로서 떳떳한 날을 보낼수 있겠니? 세계서 최선생을 멀게 해놓는 내죄 이 가슴에 못이 돼 있다. 이 못을 가져야 난 널 대할수 있고 한지라도 살수 있을 꺼다.

玉 京. 제발 최선생은 들쳐거리지 마아. 그선생이 내게 친절한 말씀 한마디든 건너준줄 알어? 그선생은 지식이나 인격이 월등하여 내가 우러러 보거나했음뿐야

聖 京. 우러러 보는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냐?
京. 사랑이라손 치더라도 의기러기 짝사랑의 격이었던걸 무슨문제가 돼!
聖. 설사 최선생이 싫어했다고 동생이 좋아하는걸 언니가 가로채서 필일이야! 최선생의말이 내게만 쓸터도록 널위해도 려하는게 언니의 할일이아니겠어?

玉 京。 언니, 최선생은 이제 내 기억에서 아주 잊어져 나가 버렸어. 최선생 뿐이 안야. 이성(美性)이란걸 난 내 생활에서 아주 말살해 버렸어.

聖 姬。 너의 그런 구단의 생각 그 자체부터가 벌써 네 가슴 속에 최선생이 새파랗게 살아있다는걸 증명하는거야.

玉 京。 그러잖아 절대로. 난 자신이 있어. 수녀와같이 깨끗이 살 자신이 있어.

聖 姬。 그런 철이없는 소리 말아! 마침 최선생이 저기와 있으니. 저이를 불러올려 내된 이형상을 봐야. 그래야 저분도 내결심을 알꺼고 그리고 내게 정도 떨어질테니——

玉 京。 窓으로 못가게 하며 안돼요!

聖 姬。 (뿌리치며) 왜이래!

玉 京。 (날카롭게) 언니!

聖 姬。 (아래에선 성난소리로) 칼뎀! (하고 부르며 나타난다)

玉 京。 (窓밖을 가르키며) 저 머리 긴 사람 이방에 좀 불러주어.

聖 姬。 정말 이럴테요?

玉 京。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내려와! 미담이 불러!

聖 姬。 내게 생각이 달린 문제야. 이거 해결 왜야만 손님도 받아.

玉 京。 언니가 굳이 나를 유서해주지 못한다면 좋아.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 질테니까——

聖 姬。 옥경아! (하고 부를려한다. 그러나 어느새 도아를 메다 곳고 다라난다. 익개에게 애원하듯) 뛰어나가 좀 부들어
다우. 얼른!

玉 京。 왜이래, 패니. 미담이 화가나서 야단야

聖 姬。 저애 성미가 격해서 무슨 잘못이 생길는지 몰라.

玉 京。 이거 참——

聖 姬。 그리고 저 선생도 이리로 줌——(하고 밀어낸다)

여. 개. (할일없이 나간다)

聖. 姬. (걱정스러운듯이窓밖을 내다보더니) 아아, 이쪽을... (하고 얼굴을 싸며 침대에 쓸어진다)

도아가 열리더니 詩人 權悅 나타나, 원망스러운듯이 노려본다.

聖. 姬. 선생은 너무 병정해요. 나빠요. 옥경이가 선생을 그렇게 따르고 사모하고 그리고 우상과같이 숭배하는데 선생의 태도가 그뒤예요?

詩. 人.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벽력같은 소리로) 닥쳐요! 그런 소리를 듣자고 온 부산 바닥을 헤매며 성회를 찾아낸 게 아니오!

聖. 姬. 이런ittel 찾아오느니 제발 옥경일 구해주세요. 옥경이 가슴엔 선생뿐이요. 그애와같이 선생의 인간과 예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엔 없어요.

詩. 人. 성회 어니로서의 사회의 정성은 모르는바 아니요. 그러나 관공은 이미 결정 되었소. 성회는 내 것이며, 나는 성회의 것이란것은 자타가 다 허락하고있소. 그러니 우리는 다른 잔념 다 버리고 어떻게해야 우리의생을 유지할수 있는지, 그거나 생각합시다. 내가슴에는 성회와 더불어 얻은 생의 환희를 어떻게하면 빛나게 할수있느냐? 그생각뿐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구태어 성회를 무지많은 저 밤알 세상으로 나가자고 하지 않겠소. 자아! (하며 저리고는 약병에서 毒藥을 몇알 고으내 준다)

聖. 姬. (손바닥에 얹어주는 丸藥을 유심히, 더러다 보더니)

내 핸드·백 속에 넣고 다니던 것이—— (하며 詩人을 치어다본다.)

詩. 人. 아무말 말고 같이 먹읍시다. 자아 들어요. (옆에 물을 따라 준다)

聖. 姬. (감개 무량한듯 가늘게 느낀다)

詩. 人. 自己도 兩손에 무과 약을 자작들고 정중히) 인간이란 이세상에 태어난 그것이 바로 불행의 시초인것 처럼, 내가 외람하게도 성회를 구해낸 그것이 우대의 비극의 발단이있소. 희망이런 결국 須臾(須臾)를 비치는 번개불... 광명이란 어둠의 한껏 그림자에 불과하고, 생은 사멸(死滅)을 위하여서만 존재하는것... 아무리 따져 봐도 둥근

지구는 허공으로 밖에 안 되니 진리(眞理)의 궁극은 결국 절망! 자아. 이것을 마시므로써 우리 또한 절망을 넘어 영원의 망각(忘却) 속에서 살기로 합시다.

(斷然히) 못 합니다.

聖 人。 에?

聖 人。 하기는 나도 주검 이외에 이 육된 무음을 견지할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소.

聖 人。 그러면 더구나——

聖 人。 내게는 최선생과 같이 길동무는 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소.

聖 人。 모든 잡념 다 버리시오 어둠이 깰려면 살아나는 별과같이 추격만이 우리의 사랑을 빛낼 것이요.

聖 人。 이 며칠 동안의 선생과의 교제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것일 수 없었소 그건 열병환자의 몸부림이 였었고, 미친사람의 잠고대 였었소. 그러니 계발——

詩 人。 그런 속에 없는 소리를 하는 성희의 가슴속엔 얼마나 많은 괴롬이 격동하고 있는가를 나는 알고있소.

聖 人。 (냉정히) 우린 한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소. 그만 돌아가 주세요.

詩 人。 (벽력같은 소리로) 성희!

聖 人。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주세요?

聖 人。 (도아를 안으로 걸며) 누가 나타나 우리의 추적을 해방할지 모르니 일든 이약 드오. 오진 겨울 밤, 가지끝에서 몸부림 치는 가랑잎처럼 떨어져야 시원스러울 이 목숨을 얼른 끊읍시다. 자아! (하녀 절한다)

聖 人。 내가 미쳐나가는걸 보시지 못해서 이러세요? 제발 이런 연극은 우정이를 부르고 해주세요. 정신 상대역이 틀렸서요.

詩 人。 끝끝내 내말을 거역하면, 억지로라도——(하며 聖 人 에게 덤벼어약을 強制로 메이리한다.)

聖 人。 (발악하며) 봐요! 봐!

詩 人。 (침대에 몰아 부쳐놓고) 자아!

聖 姬。 (소리치며) 아아, 사람 살리우! 사람! (가갸으로 몸을 띄쳐 앞으로걸 도아로 열고 나가려한다)

詩 人。 (꽃으며) 성희! (하고 다시 부른다)

(마담 急히 나타난다)

마 담。 아이구, 이 무신 짓고? 와라! 와! (덤벼들어 때어놓는다)

(역개 其他 娼婦들 웬일인가 하고 드러다혼다)

마 담。 에이, 썩은년의 가시나! 손님 받을 생각도 안하고 방구석에 들어 배웠기에 뵈어나 했더니, 이런 미친지랄 할 랐고 그랬고나.

(역개에게) 대판절 년 와 이런새끼를 문턱안에 들여놔소!

역 개。 (聖姬에게) 그것봐.

마 담。 이새끼 얼른 고으러내라! (하며 詩人의 등을 때다민다)

역 개。 나가요, 팔리! (詩人 崔悅을 데리고 나간다)

마 담。 (聖姬의 가방을 내동댕이치며) 이 가시나. 너도 나가거라.

聖 姬。 걱정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여긴 못 있겠어요.

마 담。 짐챙겨가지고 날래 내려 온나.

聖 姬。 에.

마담 나가고, 다른 娼婦들도 살아졌다)

聖 姬。 (짐을 챙기려다가 몸을던지고 울며) 이렇게 될줄 알았더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걸.

(노코소리 나더니 역개 얼굴을 내밀며——)

역 개。 금방 그작자가 약병 찾아다 탈래.

聖 姬。 정신이 번뜻 나는듯 약병!

역 개。 데이볼 밑에나 어디 떨어져 있을꺼래.

聖 姬。 과연 卓子 밑 дук병이 꿰뚫어 져 있다. 얼른 펴 버린 양병과 약알을 주어 줘며) 없더라고 그래.

聖 개。 그건 뭐테?

聖 姬。 (숨기며) 저어 이건……

聖 개。 그만 뒤버려. 귀찮어.

聖 姬。 (화를 벌컥내) 미친 소리두! 이건…… 내해라니까.

聖 개。 (나가며) 크일났는걸 그자가 막 배를 쓰는데. 그 약병 안찾아 추문 죽어도 안 물러나겠다고……

聖 姬。 약병을 들고 (조용히) 우스며 해해해…… 역시 내가 제추인을 찾았고나. 부산에 당던날 밤 내가 내 핸드·백속

에 들어있었다라면 내가 이런 고경은 알지 못할테…… 내가 없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문을 들
고 한알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두알에는 인사불성! — 세알을 먹어야 즉좌에 판단을 지어주었지? (세알을 들
니) 귀찮게 남겨둘게 뭐야? 한꺼번에 다 털어버지.

(詩) 崔悅 약을 먹으려할때 도어가 회 영리더니 崔悅나타난다)

聖 人。 (혼분되어) 그약 설회가 가졌지? 내와요. 얼른!

聖 姬。 (피할길이 없어 병을 던져준다) 자요.

聖 人。 (빈병임을 알고 매다치며) 알맹인 다 어졌어? 으며 卓子 밑을 더듬는다. 낱알을 찾으려고——)

聖 姬。 (이름에 야을 얼른 임안에 털어 넣는다)

聖 人。 (덤벼들며) 안돼! 그걸 후자 다 먹어선——

聖 姬。 (詩人의 손을 피하며 어느새 물을 들어 꿀꺽 약을 삼켜 버린다.)

聖 人。 설회!

聖 姬。 (입술을 경연하며) 허허허……이젠 늦었어요. 이젠

聖 人。 (버럭같은 소리로) 설회! (하고 덤벼들어) 날 죽이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억개를 쥐고 분잔듯이 흔들다.)

聖 姬。 (기를쓰고 밟쳐내려하며) 안돼요. 내게 손을 대지 말아요. 내게

詩 人。 (푸리치며) 에이, 야속한!

聖 姬。 (소리치며) 누구나 옥경일 불러 제분을 데려가게 해주어. 누구나—

詩 人。 (격한 눈물을 보이며) 왜 끝끝내 제 양심을 속이며 자기희 가슴속에 살아있는 『人間』을 부정하려는가! 최후

聖 姬。 의 순간까지 제 본심을 속인다면 난 성회를 정멸한테야 정멸해 (하며 쓸어트린다)

詩 人。 아아 (어깨를 과동치며 發惡이나 하는듯이 소리쳐 호느끼더니) 사실 말하면 선생을 내 기억에서 무리 물리

聖 姬。 치려해도 무슨 고질처럼 영영 떠나지를 앓았어 아아 이런고질이 어땠어!

詩 人。 (안으려하며) 오오 성회, 그것 보구려…… 그것봐. 성회가 내 우상이듯 나도 성회의 우상이야. 그래서……

聖 姬。 아아, 이때까지는듯한 가슴 전될수 전될수없어 전될수—

詩 人。 성회 하며 덩식 안는다.)

聖 姬。 아이 와오, 옥경이의 올라오는 소리가……

詩 人。 (성회의 뺨의 자기의 뺨을 부비며) 아아, 가없는 성회……

玉 京。 들어와 의아한듯이 주춤하며) 아나

聖 姬。 (한사코) 안되어요 와오 (하고 목부림을친다 그러나 독은 이미 전신에 돈 모양이다 (벌서기진하여) 옥경아

玉 京。 미안하다. 너 나를 용서해라. 선생님의 물속이 이렇게도 편안하구나. 내가 내게 본능을 속이지 말했는데. 그말은

聖 姬。 내게하는 말이였나부다. (詩人權의 가슴에 파고든다.)

玉 京。 선생님, 언니를 꼭 껴안어주세요. 꼭……

聖 姬。 내 없이는 성회는 절대로 눈도 못감아.

玉 京。 선생님, 내한평생은 선생님과 사귄 그 며칠뿐이었어요 내생애는 그며칠을 위해 있었던거예요. 아아——(하며 숨을

詩 人。 걸운다)

玉 京。 언니 언니 (입석안고 激烈히운다)

詩 人。 (일어서 나가며) 성회, 나도 이길로 곧 성회의 뒤를 따를테니 마음 놓고——(일어서 나가며)

玉 京。 가까운 선당에서 울려오던 鍾소리와 더불어 장엄한 음악소리, 이때일중 높아지며, 막 무절계 내린다 (끝)

藝術院會員住所錄

(任命會員)

- 高 羲 東 서울特別市鍾路區苑西洞一六
 廉 尙 燮 " 西大門區北阿峴洞一의二六七
 玄 濟 明 " 城東區新堂洞山二四의一一二
 吳 相 淳 " 中區明洞 (青銅茶房)

(推薦會員)

- 朴 鍾 和 서울特別市鍾路區忠信洞五五의五
 金 東 里 " 中區雙林洞二二
 趙 演 鉉 " 鍾路區蓮建洞一三三
 張 勃 " 鍾路區明倫洞三街六一의八
 孫 在 馨 " 鍾路區孝子洞八二
 李 象 範 " 鍾路區樓下洞一八二
 金 聖 泰 " 鍾路區東崇洞一
 成 慶 麟 " 西大門區松月洞三의一

- 柳 致 眞 " 龍山區葛月洞七의二八
 李 圭 煥 " 中區長橋洞三五 東明映畫社)

(一般會員)

- 柳 致 環 慶尙北道 慶州高等學校
 徐 廷 柱 서울特別市麻浦區孔德洞三〇一
 金 煥 基 " 城北區城北洞三一의二
 尹 孝 重 " 龍山區漢江路二街二九三
 馮 濂 " 鍾路區安國洞二
 金 東 振 " 鍾路區樓上洞一六의一
 朴 泰 俊 " 西大門區新村洞一三一의四
 李 珠 煥 " 鍾路區唐珠洞二二八
 李 海 浪 " ~~城北區敦岩洞一五三의六三~~
 吳 泳 鎮 " 城東區新堂洞三九五의一三
 安 鍾 和 " 城東區下往十里洞九七〇

檀紀四二八八年六月二十五日 印刷
檀紀四二八八年六月三十日 發行

우리의 맹서

- 一,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 二,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시자。
- 三,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

(非賣品)

藝術院報創刊號

編輯人 高 羲 東

發行兼印刷人 朴 鍾 和

發行所 大韓民國藝術院

빈 면

빈 면

